

# 12단계와 12전통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의 인쇄는 영문판 12단계와 12전통(Twelve steps and twelve traditions)의 페이지와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의 여백이 조금씩 다르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A.A. G.S.O.



# 12단계와 12전통

## TWELVE STEPS AND TWELVE TRADITIONS

© 1989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Inc.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from English with permission of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Inc. (AAWS)

Copyright i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is work is also owed by AAWS, New York, New York. No part of this translation may be duplicat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AAWS.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INC.

BOX 459, GRAND CENTRAL STATION

NEW YORK, NY 10163

초판 1쇄 발행 1990년 12월 31일

2판 1쇄 인쇄 2002년 10월 15일

2판 1쇄 발행 2002년 10월 25일

3판 1쇄 발행 2014년 3월 13일

4판 1쇄 발행 2017년 1월 5일

**한국 A.A. G.S.O.**

07307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0길 6 정우B/D 2층  
전화 : 02)833-0311



Copyright © 1952, 1953, 1981 by The A.A. Grapevine,  
Inc., and Alcoholics Anonymous Publishing (now known as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Inc.)

All right reserved  
soft-cover edition  
Nineteenth printing, 1995

*This is A.A. General Service  
Conference-approved literature*

ALCOHOLICS ANONYMOUS and A.A. are registered  
trademarks® World Services, Inc.

ISBN KOR 978-89-92730-95-2

Library of Congress Catalog Card No. 53-5454

머리말 ..... 15

## A.A. 12단계들

제1단계 ..... 21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 누가 완전 패배를 시인하는 것에 관심을 두겠는가? 무력함의 시인은 해방의 첫 발걸음이다. 겸손과 단주와의 상관관계. 정신적 강박에 더하여 육체적 알레르기. 왜 모든 A.A. 멤버들은 바닥을 경험해야 하는가?

제2단계 ..... 25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A.A.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12단계들은 다만 제안일 뿐이다. 열린 마음의 중요성. 믿음으로 가는 다양한 길. A.A.를 위대하신 힘으로 대체함. 환멸을 느끼는 사람의 어려움. 무관심과 편견의 장애물. A.A.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찾다. 지력(知力)과 자만심의 문제들. 부정적 및 긍정적 사고. 독선, 반항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현저한 특성. 제2단계는 본정신으로 가는 집결점. 신(神)과의 올바른 관계.

제3단계 ..... 34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神)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제3단계는 잠긴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어떻게 우리는 신(神)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가? 용의가 그 열쇠다. 독립의 한 방법으로써 의존. 자만심의 위험. 위대하신 힘에게 우리의 의지를 맡김. 의지력의 오용(誤用). 신의 뜻을 따르는데 필요한 지속적이고도 개인적인 노력.

제4단계 ..... 42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본능들이 어떻게 그 원래의 기능의 도를 넘는가. 제4단계는 우리의 결점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임. 본능적 충동의 극단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문제들. 잘못 인도된 도덕적 검토는 죄책감, 과대망상 혹은 남을 탓하는 결과를 초래함. 결점과 함께 장점도 주시할 것. 자기 정당화는 위험. 검토를 하려는 용의는 빛과 새로운 확신을 가져옴. 제4단계는 평생 할 임무의 시작임. 감정적 불안정의 일반 증상은 걱정, 분노, 자기 연민, 우울증. 자기 검토는 인간관계를 재검토함. 철저함의 중요성.

제5단계 ..... 55

**“우리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神)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12단계들은 자만심을 축소시킨다. 제5단계는 어렵지만, 그러나 단주와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고백은 오래된 자기 훈련이다. 결점에 대한 두려움 없는 시인 없이는 단주 상태에 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 제5단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인간 및 신과의 참된 관계를 시작함. 소외감을 버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용서를 한다. 겸손을 배우고 정직을 얻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현실감을 얻는다. 철저한 정직의 필요성. 합리화의 위험. 어떻게 고백할 사람을 선택하는가? 결과는 평안(平安)과 신에 대한 인식. 신 및 인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계들을 따르도록 준비시켜 준다.

제6단계 ..... 63

**“신(神)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적 결점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제6단계. 평생 해야 할 임무의 시작.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과 완전함과의 차이의 인식. 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만 하는가? “준비함”이 매우 중요함.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함. 늦추는 것은 위험하다.

반항은 치명적일 수 있다. 유한한 목적을 버리고 우리를 위한 신(神)의 뜻을 향해 움직이려는 시점(時點).

제7단계 ..... 70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 주시기를 간청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인간 영혼의 참된 자유를 향해 가는 통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움. 자만심에 구멍을 내서 축소시키는 것의 중요성. 겸손에 의해 변화된 실패와 비참함, 연약함으로부터의 힘. 고통은 새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료. 자기중심적 두려움은 결점들을 활성화시키는 요인. 제7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신에게로 향하도록 허락하는 태도의 변화다.

제8단계 ..... 77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이 단계와 다음 두 단계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력 있는 모험이다. 장애물들: 용서하기를 주저함,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음, 의도적 망각. 과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의 필요성. 철저함에서 오는 깊어가는 통찰력.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害)의 종류. 극단적 비판을 피함. 객관적 견해를 취함. 제8단계는 소외감의 종말의 시작이다.

제9단계 ..... 83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평안한 마음이 훌륭한 판단의 첫 필수 요건이다. 보상을 함에 있어 적절한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 용기란 무엇인가? 분별이란 면밀히 계획된 기회를 택하는 것이다. 보상은 우리가 A.A.에 합류할 때 시작된다.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얻을 수 없다.



분별의 필요성. 우리가 행한 과거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지려는 준비는 곧 제9단계의 정신이다.

제10단계 ..... 88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모든 상황 아래서 우리는 단주 상태와 감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기 검토가 규칙적 습관이 되다. 결점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심 있게 고쳐 나가라. 감정적 숙취. 과거가 매듭지어질 때, 현재의 도전과 마주칠 수 있다. 검토의 다양성. 분노, 원한, 질투, 시기심, 자기 연민, 상처 입은 자존심—이 모든 것은 술병으로 이끈다. 자제력이 첫째 목표다. “거물주의”에 대한 보험. 결점과 동시에 장점도 살펴보자. 동기의 검토.

제11단계 ..... 96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명상과 기도는 위대한 힘에게로 통하는 주된 통로. 자기 검토와 명상과 기도 간의 상관관계. 인생의 움직일 수 없는 기초. 어떻게 명상할 것인가? 명상은 그 한계가 없다. 각 개인의 탐험. 첫 열매는 감정적 균형.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신(神)의 뜻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실천에 옮길 은총을 매일 기원함. 기도의 실질적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상과 기도의 보상.

제12단계 ..... 106

**“이런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삶의 기쁨이 제12단계의 주제다. 행동이 그 핵심 단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무엇이 영적 깨달음인가? 의식과 존재의 새로운 상태가 무상의 선물로 주어진다. 선물을 받으려는 준비는 12단계들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멋있게 변한 현실. 다른 알코올 중독자

들을 돕는 보상. 제12단계 실천의 종류들. 제12단계 실천의 문제들.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 이런 원칙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조로움과 고통과 재앙이 단계들의 실천에 의해 유용함으로 변함. 실천의 어려움들. “2단계 실천”을 “12단계 실천”으로 바꾸고, 믿음의 증인이 되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다. 영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함. 지배와 지나친 의존. 우리의 생활을 주고받음의 기초 위에 세움.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에 필수적인 신(神)에 대한 의존.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 이런 원칙들을 실천함”: A.A. 안에서의 가족 관계. 물질적 문제들에 대한 관념이 변화한다. 그와 같이 개인적 중요성에 대한 느낌도 변화한다. 본능들이 그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함. 이해가 올바른 태도의 열쇠이며, 올바른 행동이 훌륭한 삶의 열쇠다.

## A.A. 12 전통들

제1전통 ..... 129

**“우리의 공동복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의 회복은 A.A.의 단합(A.A. unity)에 달려있다.”**

단합(unity)이 없으면 A.A.는 죽는다. 개인적 자유, 그러나 훌륭한 단합. 역설에 대한 해답: A.A.의 각 멤버의 생명은 영적 원칙들에의 복종에 달려있다. 그룹은 존속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생존하지 못한다. 공동복리가 우선이다. 어떻게 하면 그룹으로서 함께 가장 잘 살고, 함께 가장 잘 일할 수 있는가?

제2전통 ..... 132

**“우리의 그룹 목적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이다. — 이는 우리 그룹의 양심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신(神)이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신뢰받는 봉사자일 뿐이지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니다.”**

A.A.는 어디에서 그 지시를 받는가? A.A.에서의 유일한 권위는 그룹 양심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신(神)이시다. 그룹의 형성, 성장에 따른 고통. 교체 위원회는 그룹의 봉사자들이다.

지도자들은 다스리지 않는다, 그들은 봉사한다. A.A.는 참 지도자를 갖고 있는가? “훌륭한 선배 지도자”와 “피 흘리는 집사”, 그룹 양심이 말한다.

제3전통 ..... 139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A.A.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두려움에 의한 초기의 불관용. A.A.에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때때로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멤버 규정을 없었다. 경험의 두 가지 본보기.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할 때, 그는 A.A.의 멤버다.

제4전통 ..... 146

**“각 그룹은 다른 그룹이나 A.A.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율적이어야 한다.”**

모든 A.A. 그룹은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그룹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일들을 운영한다. 그와 같은 자유는 위험한가? 개인처럼 그룹도 결국은 그 생존을 보장하는 원칙들에 따라야만 한다. 두 가지 폭풍주의보 — 각 그룹은 A.A. 전체에 해를 끼치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외부의 이해관계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예: 성공하지 못한 “A.A. 센터.”

제5전통 ..... 150

**“각 그룹의 유일한 근본 목적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형편없이 하느니보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 단체의 생명은 이 원칙에 달려있다. 각 A.A. 멤버 자신이 초심자와 일체감을 가지는 능력과 그 초심자에게 회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능력은 신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다. 단주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

제6전통 ..... 155

“A.A. 그룹은 관계 기관이나 외부의 기업에 보증을 서거나 용자를 해주거나 A.A.의 이름을 빌려주는 일 등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이나 재산, 명성의 문제는 우리를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되는 기업을,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가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은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일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A.A.의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제7전통 ..... 160

“모든 A.A. 그룹은 외부의 기부금을 사절하며, 전적으로 자립해 나가야 한다.”

어떤 A.A. 전통도 이것만큼 실천하는데 고통을 준 전통도 없다. 집단적 빈곤은 처음에는 필수 문제였다.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분리할 필요성. A.A.의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서만 생존해 남으려는 결정. A.A. 본부를 직접 후원하는 책임을 A.A. 멤버들에게 지움. 최소한의 경비와 검약의 예비금이 본부의 정책이다.

제8전통 ..... 166

“A.A.는 항상 비직업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는 전임 직원을 둘 수 있다.”

당신들은 제12단계와 돈을 혼합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제12단계 실천과 돈을 받는 봉사를 구분하는 선(線). A.A.는 전임으로 봉사하는 직원 없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전문적 직원들은 전문적 A.A. 멤버가 아니다. A.A.와 사업 혹은 교육 등과의 관계. 제12단계 실천은 결코 돈을 받아서는 안 되나 우리를 위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만큼 보수를 받는다.

제9전통 ..... 172

**“A.A.는 결코 조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봉사부나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으며, 그들은 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특수한 봉사부나 위원회. 일반 봉사 협의회(G.S.C.), 이사회 그리고 그룹 위원회는 A.A. 멤버나 그룹에 명령을 발할 수 없다. A.A. 멤버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지배받을 수 없다. A.A.의 각 멤버가 제안된 회복의 단계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그 자신의 사망 증명서에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이 없는 것도 효과를 발한다. 같은 조건이 그룹에도 적용된다. 고통과 사랑이 A.A.의 훈육관이다. 권위주의 정신과 봉사 정신의 차이.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단주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손이 닿는 데까지 가져다 놓는 것이다.

제10전통 ..... 176

**“A.A.는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A.A.의 이름이 공론에 들먹여져서는 안 된다.”**

A.A.는 어떤 공론에도 어느 한쪽에 서지 않는다.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미덕이라기보다는 A.A.의 존속과 전파가 우리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언 운동(Washingtonian movement)에서 배운 교훈들.

제11전통 ..... 180

**“A.A.의 홍보 원칙은 요란한 선전보다 A.A.의 본래 매력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이름을 지켜야 한다.”**

홍보는 A.A.에 중요하다. 훌륭한 홍보는 생명을 구한다. 우리는 A.A. 개인 멤버가 아니라, A.A.의 원칙에 대한 홍보를 추구한다. 신문은 협조했다. 공적 차원에서 개인의 이름은 우리 홍보 원칙의 초석이다. 제11전통은 A.A. 안에서는 개인적 야망이란 그 실 땅이 없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고 있다. 각 멤버는 우리 단체의 활동적인 보호자이다.

제12전통 ..... 184

**“익명은 우리의 모든 전통의 영적 기본이며, 이는 각 개인보다 항상 A.A.의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익명의 영적 의미는 희생이다. 개인의 목적을 공동선(善)에 따르게 하는 것은 모든 12전통들의 진수다. 왜 A.A.는 비밀 단체로 남아 있을 수 없었는가? 원칙들이 개인에 우선한다. 공적 차원에서 100%의 익명. 익명은 참 겸손이다.

제12전통 — 긴 형식 ..... 189

## 머 리 말

**A.** A.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래(古來)로부터 내려오는 당황하게 만드는 병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을 돕기 위해 함께 뭉친 십만 여명\* 이상의 남녀 알코올 중독자들의 세계적인 공동체이다.

이 책은 A.A.의 “12단계”와 “12전통”을 다루고 있으며, A.A. 멤버들이 회복하고, 그들의 단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원칙들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A.A.의 12단계들은 그 본질상 영적 원칙들의 모음이며, 만일 생활의 방식으로 그것을 실천한다면, 음주의 강박을 없앨 수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을 행복하고 쓸모 있는 전인(全人)이 되게 한다.

A.A.의 12전통들은 그 공동체 자체의 생명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A.A.가 단합을 유지하고 그 자체가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즉 그것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비록 다음의 글은 주로 멤버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A.A.의 많은 친구들에 의하면 이 글들은 A.A. 자체의 외부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적용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다.

비(非) 알코올 중독자인 많은 사람들이 A.A.의 12단계들을 실천한 결과 그들도 스스로가 생활의 다른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 있게

---

\* 2012년에는 200만 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A.A.를 통해 회복되고 있다.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12단계들이 문제의 음주자들에게 단주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단계들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행복하고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을 보고 있는 것이다.

A.A.의 12전통들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생들은 ‘A.A.가 하나의 단체로서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의아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어째서 A.A. 안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같은 어떤 것도 볼 수 없는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어떻게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전통적인 원칙들이 A.A. 공동체를 일치와 효과로 지켜 나갈 수 있는가? 이 책의 후반 부분은 비록 A.A.의 멤버들을 위해 기획되었지만, 위와 같은 질문자들에게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A.A.에 대한 내면적인 것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A.A.는 잘 알려진 외과의사와 뉴욕의 중개인 간의 모임으로, 오하이오 주(州), 애크론 시에서 1935년에 시작되었다. 둘 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으며 A.A. 공동체의 공동 창립자가 될 운명이었다.

비록 성공을 가져온 몇몇의 아이디어들은 A.A. 공동체의 행동과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알려진 A.A.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주로 종교와 의학 분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 단체가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원칙들을 선택하는데 3년간의 시행착오 후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실패를 겪은 후에, 세 개의 성공적인 그룹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애크론에, 두 번째는 뉴욕에 그리고 세 번째는 클리브랜드에. 이때까지만 해도 세 그룹 모



두에서 확실히 회복한 사람 40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모임은 그 경험을 책으로 엮기로 결정했으며, 이 책은 1939년 4월에 발행되었다. 그 당시 회복한 사람 수는 약 백 명에 달했다. 그 책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이라고 명명되었고, 그것으로부터 공동체도 명칭을 택했다.

그 책 내용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관점에서 본 알코올 중독이 서술되었고, 처음으로 이 단체의 영적 아이디어가 12단계 안에 성문화(成文化)되었으며, 이 단계들을 알코올 중독자들의 진퇴양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쓰여졌다. 그 책의 나머지 부분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신의 술 마시던 경험과 회복을 설명한 30개의 이야기 혹은 사례사(事例史)로 채워졌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이라는 책은 그 공동체의 기본적 교과서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다. 현재 이 책은 초창기의 일을 처음 쓴 것처럼 12단계들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39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을 출판함으로써 그 개척 기간은 끝나고,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에 따라 커다란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그 후 몇 년 동안에 수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A.A.에 몰려들었는데, 그것은 주로 전 세계를 통한 잡지와 신문들에 의해 주어진 훌륭한하고도 지속적인 홍보의 결과였다. 성직자와 의사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추천을 하면서 이 새로운 운동에 동참했다. 이 놀라운 팽창은 그와 함께 매우 심각한 성장통(成長痛)을 가져왔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

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아직은 변덕스러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합과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함께 살고 일할 수 있을지는 전혀 확실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멤버의 자격, 돈, 개인적 인간관계, 홍보, 그룹과 클럽의 운영, 그리고 수많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폭발적인 많은 혼란스러운 경험으로부터 A.A.의 12전통들이 모양을 갖추었으며, 1946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고, 후에 1950년 클리브랜드에서 열린 첫 국제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 책의 전통 부분은 결국 12전통들을 만들게 하고 현재의 형식, 내용 그리고 일치를 가져다준 그런 경험들을 어느 정도 상세히 묘사했다.

이제 A.A.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A.A.는 \*40여 외국 땅에 도달했다. A.A.의 친구들에 의하면, 이것은 그 특유하고 가치 있는 봉사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A.A.가 현재에 이른 그 원칙과 힘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A.A.의 G.S.O.는 다음 주소에 연락하면 된다.

Alcoholic Anonymous, P.O. Box 459  
Grand Central Station  
New York, New York 10163, U.S.A.)

A.A. 한국연합

우. 07307.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길 6, 정우빌딩 2층  
Tel. 02)833-0311/ Fax. 02)833-0422  
E-mail: aakoreagso@gmail.com  
홈페이지: www.aakorea.org

---

\* 2012년, A.A.는 170개 국에 설립되어 있다.

**A.A.**

**12 단계**



# 제 1 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누가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려고 하겠는가? 물론, 실제로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자연적 본능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에 반대(反對)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다. 참으로, 손에 술잔을 들고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파괴적 음주의 강박 속으로 빠뜨려져 빠지게 했으며, 그 강박은 오직 신(神)의 섭리적 활동으로만 우리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떤 다른 종류의 파산도 이와 같은 것은 없다. 알코올이 이제는 무자비한 탐욕스러운 채권자가 되고, 우리의 자부심과 그 술의 강요에 저항할 모든 의지를 빼앗는다. 일단 이런 적나라한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된다.

그러나 A.A.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곧 이 절대적 굴욕을 참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다. 우리는 오로지 완전한 패배를 통해서만 해방과 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시인은 곧 행복하고도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하는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이다.

A.A.에 들어오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먼저 자신의 무력함과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매우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의 단주 정신 — 만일 그것이 있다 해도 — 은 위태로울 것이다. 그는 결코 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 의심의 여지없이 A.A. 생활의 하나의 사실로 증명되었다.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기까지

는 우리가 어떤 영구적인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원칙은, 우리 A.A. 사회 전체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가장 주된 큰 뿌리인 것이다.

처음 패배를 시인하도록 도전받았을 때, 우리 중 대부분은 저항했다. 우리는 자신감을 배울 것을 기대하면서 A.A.에 접근했다. 그리고 나서 알코올에 관한한 자신감이란 전혀 소용이 없으며, 실제로 그것은 커다란 부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다. 우리의 후원자들은 우리가 인간의 아무리 큰 의지력도 깨뜨릴 수 없는 이상하게도 강력한 정신적 강박(強拍)의 피해자(被害者)였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또 도움을 받지 않은 의지력에 의해 이 충동을 정복하는 일이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곤경을 냉혹하게 더욱 깊게 하며, 우리의 후원자들은 알코올에 대한 우리의 점증하는 과민성을 지적했으며, 그들은 이를 알레르기라고 불렀다. 폭군과 같은 그 알코올은 우리에게 쌍날의 칼을 휘둘렀다: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도록 저주한 미친 듯한 충동에 의해 고통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파괴를 확실하게 하는 육체적 알레르기에 의해 고통받았다. 그렇게 시달림을 받은 사람 중에서 혼자 힘으로 이겨 낸 사람은 참으로 거의 없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들 자신의 힘으로 회복한 예가 거의 없다는 것은 하나의 통계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포도로 처음 술을 만든 이래로 분명한 사실이다.

A.A.의 초창기에는, 가장 절망적인 중독자 이외는 아무도 이 불쾌한 진실을 삼켜 소화할 수 없었다.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중독자조차도 실제로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는 데 자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이 깨달았고, 그들이 의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구명대를 잡았을 때처럼 있는 힘을 다해 A.A.의 원칙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회복되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멤버가 적었을 때 발행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들”이라는 책의 초판이 낮은 밑바닥의 사례(事例)들만을 다루었던 이유였다. 좀 덜 절망적인 알코올 중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A.A.를 시도했으나, 그들은 절망의 상태를 시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변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다. 아직 그들의 건강과 가족과 직장 그리고 차고에 두 대의 자가용까지 소유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들의 알코올 중독병을 인정(recognize·認定)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이 커지면서, 그들에게 장차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을 가진 젊은 사람들도 합류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온, 문자 그대로 지옥의 10년 내지 15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다. 제1단계가 우리의 삶이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단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경험한 밑바닥을 끌어 올려 그들이 경험하는 밑바닥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 우리 자신의 음주 역사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깨닫기 수년 전에 이미 우리는 조절할 수 없었다는 것, 우리의 술 마시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치명적 진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은 음주 조절을 좀 더 시도해 보지 않습니까? 다만 알코올 중독에 대해 우리가 당신에게 들려준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시지요.” 이러한 태도는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 안에 그의 질환의 참 모습을 심어 놓았을 때, 그 사람은 다시는 결코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술에 취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어쩌면, 그 A.A. 사람들이 옳은 것은 아닐까?.....”라고 자문했다. 몇 번의 그와 같은 경험 후에, 때때로 극심한 어려움이 시작되기

수년 전에 그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온다. 그는 우리 중 누구와도 똑같이 밑바닥을 경험한 것이다. 술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변호인이 된 것이다.

왜 모든 A.A. 멤버가 밑바닥을 먼저 경험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가? 그 정답은 그들이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A.A.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11단계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아직 술을 마시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그 누구도 시도하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누가 철저히 정직하며 관용적이 되기를 원하겠는가? 그 누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려고 하겠는가? 명상과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가 위대하신 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자 하겠는가? 그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A.A.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함에 있어 시간과 정력을 희생하기를 원하겠는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보통의 알코올 중독자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 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체형(體刑) 아래서, 우리는 A.A.에 밀려서 들어왔고, 거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황이 치명적인 것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돼야만 신념에 대해 열린 마음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하려는 만큼 용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무자비한 강박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엇이랄도 할 준비를 갖추고 우리는 감연히 일어선다.



## 제 2 단계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처음으로 A.A.에 온 사람들은, 그들이 제2단계를 읽는 순간, 어려움에 부딪힌다. 때로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것을 보시오! 당신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이며, 우리의 삶이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토록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무력함 상태로 우리를 축소시켜 놓고서, 이제 와서 당신은 위대하신 힘 이외에 아무도 우리의 강박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신(神)을 믿지 **않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도 그분이 이 기적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먼저 믿지 않겠다는 사람 — 호전적인 사람 — 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야만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다. 그가 그렇게도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인생철학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 알코올이 그를 영구히 패배케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도 매우 불쾌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인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그는 전혀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최초의 갯벌의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당당하게 일어난 인간이 진화의 선봉에 있으며, 그러므로 인간이 그가 아는 우주의 유일한 신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가?

이때에 임하여, A.A.의 후원자는 대체로 큰 소리로 웃는다. 새로 나온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과거 생활의 종말을 고하는 시작이며, 새로운 생활로 돌입하는 시작이다. 그의 후원자는 아마도 “여유를 가지시오. 당신이 넘어야 할 한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미국 무신론자 협회의 부회장이었던 내 친구도 그러했으나 그 한계를 여유 있게 넘었습니다.”고 말할 것이다.

“예, 나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A.A.에는 한때 내가 믿었던 믿었던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여유를 갖는지요?’ 그것이 내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하고 그 초심자는 말한다.

후원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참으로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긴장을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애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되도록 다음의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A.A.는 당신에게 무엇이든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12단계 전체가 다만 제안일 뿐입니다. 둘째, 술을 끊고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제2단계 전부를 소화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면 나 자신도 그것을 조금씩 서서히 받아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당신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저 논쟁의 사회에서 벗어나 답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따위의 심각한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열린 마음입니다.”

그 후원자는 계속해 말한다, “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보십시오. 나는 과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나는 과학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까지도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나의 스승은 모든 과학적 발전의 근본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재탐구를 계속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 A.A.를 보았을 때 나의 반응은 당신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이 A.A.의 일들은 전혀 비과학적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를 소화시킬 수 없다. 나는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A.A.가 결과를 보여주었고,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는 시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전혀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닫힌 마음을 지닌 것은 A.A.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따지기를 그만두자마자, 나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2단계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내 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혹은 어느 날 나 자신보다 위대하신 힘을 믿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으나, 나는 확실히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만 따지기를 그만두고 그리고 A.A. 프로그램의 나머지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으로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A.A. 멤버들이 믿음을 찾는 방법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제안한 것에 흥미가 없더라도, 당신이 잘 보고 경청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알맞은 것을 발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代替)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A.A. 자체를 당신의 ‘위대하신 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술 문제를 해결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확실히 문제 해결에 근접하지도 못한 당신보다는 위대한 힘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최소한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충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많은 멤버를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한번 그 문턱을 넘기만 하면 그들의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알코올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생활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고, 그들은 위대하신 힘을 믿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신(神)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곤란한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거기에는 무관심 속으로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 자만심에 가득 차서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종교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 신(神)이 실패했다고 하여 도전적이 된 사람들이 있다. A.A.의 경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 있는 믿음을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때때로 전혀 믿음을 가져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믿음을 잃었거나 혹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게 A.A.는 더 힘들게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을 다 시도해 보았다. 두 길이 모두 몹시 실망적인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이 갈 곳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무관심의 장벽과 공상적인 자만심, 편견과 반항적 태도는 납득하지 못하는 불가지론자나 혹은 전투적인 무신론자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견고하고 더욱 심하다. 종교는 신(神)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고, 불가지론자는 그것이 증명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는 신(神)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틀림없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사람의 어려움은 심각한 혼돈의 그것이다. 그는 어떤 종류의 확신이 주는 위로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는 믿는 자나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의 어떤 지극히 작은 확신에도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하는 사람이다.

A.A.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류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어린 시절의 믿음에서 떠났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었지요. 물론 좋은 가정과 종교적 훈련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준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상당히 정직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확신했으며, 또한 우리는 야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단순하고 공정한 원칙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특성에 기초를 둔 물질적 성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상쾌한 일이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학의 추상적 개념이나 종교적 의무 혹은 현세나 미래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염려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라는 공간과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훌륭한 것입니다. 승리하려는 의지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알코올이 우리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좋은 방책이 사라지고, 또 실패한다면 영원히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찾은 것은 A.A. 안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문제에 부딪친다. 즉 지성적으로 자만에 가득 찬 남녀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A.A.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지나치게 똑똑한 척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조속하다고 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풀려 자만심에 찬 풍선처럼 만드는 데 우리의 교육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려고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두뇌의 힘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은밀히 느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즉 만능이었습니다. 지성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명석한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승리의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성의 신(神)이 우리 조상들의 신(神)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술의 신(john barleycorn)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당당히 승리한 우리는 완전한 패배자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A.A.에서 한때 우리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으로 작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본보기로서, 우리가 겸손을 앞세우기만 한다면 겸손과 지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효과가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또한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A.A.의 또 다른 멤버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종교와 그 종교의 모든 것에 완전히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터무니없는 것들로 가득 차고, 우리가 그 성경을 구구절절이 외울 수 있어도 후예들을 위한 소위 지복(至福)이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도덕성은 불가능할 만큼 훌륭하기도 했으나 또한 불가능할 만큼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종교주의자들의 도덕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주일에는 가장 훌륭하다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위선과 완고함 그리고 독선을 보고 만족한 듯 흐뭇해했습니다. 종교 안에서 소위 선(善)하다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신(神)의 이름 아래 아직도 서로 죽이고 있다는 못된 사실을 비난하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이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대신에 부정적인 사고로 대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A.A.에 온 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우리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죄악을 욕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점을 살피는 것에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렇게 경멸로써 욕했던 바로 그 독선이 끝없이 괴롭히는 우리 자신의 악(惡)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 거짓된 모습의 잘난 체하는 체면이야말로 우리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A.A.

에 밀려와서 우리는 좀 더 올바르게 배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자주 도전적인 태도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신(神) 그 자체에 도전적이었던 시절을 가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이유는 욕심에 찬 아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불가능한 선물 목록을 내어놓듯이, 신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주 우리는 어떤 심각한 재난을 당했고, 우리 생각에 그것은 신이 우리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자는 이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녀가 마음을 바꾸도록 신께 기도했으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주시기를 신께 기도했으나, 병든 아이들을 주셨거나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하도록 신께 기도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깊이 의존하던 사랑했던 사람은 소위 신의 섭리에 따라 우리로부터 영영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술주정꾼이 되었고, 그리고 신에게 이를 중지시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A.A.를 만났을 때 우리의 도전적 태도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묻지도 않은 채, 그 대신 우리는 그 뜻이 어떠해야 한다고 그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의존을 의미하지 반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A.A.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많은 남녀들이 알코올에 의한 마지막 재앙을 면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또 다른 고통과 시련을 당면해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도망치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고 그 불가능한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효과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곧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믿음에 충만하면서도 아직 술 냄새를 푹푹 풍기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는 본인이 독실한 신자라고 믿고 있다. 그의 종교적 규례의 준수는 철두철미하다. 그는 여전히 신(神)을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하지만, 신이 그를 믿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맹세에 맹세를 거듭한다. 매번 맹세 때마다, 매번 다시 마시게 되고, 지난번보다 더 악화되곤 한다. 그는 용감하게 신의 도움을 받아 술과 싸우려고 노력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좋은 뜻을 갖고 열심히 애쓰는 알코올 중독자란 성직자나 의사,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가슴 아픈 수수께끼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다. 이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너무나 많지만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았다. 이 해답은 믿음의 양(量)보다는 질(質)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맹점이 되어왔다. 우리는 실제로는 겸손을 지니지 못했으나 마치 겸손을 지닌 듯이 생각했다. 우리는 종교적 실천면에서도 진지했다고 생각했으나 정직하게 평가해 본다면, 다만 겉핥기식이었다. 혹은 그 정반대로 우리는 감정에 치우쳤고, 그것을 참된 종교적 느낌이라고 착각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공짜로 무엇인가를 바랐던 것이다. 진실은 신(神)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강박을 몰아낼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청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깊고도 뜻 있는 의미에서 우리의 재고 조사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었다. 심지어 올바르게 기도한 적도 없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소서.”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신(神)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기만에 빠져있었고, 우리를 본정신으로 회복시킬 충분한 은총을 받을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분별이 없는가에 대해 아는 활동성 알코올 중독자란 별로 없으며, 또한 자기의 분별 없음을 보고서 그 사실을 견뎌 낼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도 별로 없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을 “문제가 있는 음주가”로 기꺼이 시인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음주와 알코올 중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무지 속에서 더욱 선동당하고 있다. “본정신”이란 “정신의 건전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그가 제정신으로 자신의 파괴적 행동을 분석해 본다면, 그 행동이 식당의 테이블에서 일어났건 혹은 그의 도덕성에서 발생했건 간에 그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전함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2단계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함께 모이게 되는 집합소다. 불가지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혹은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함께 이 단계 위에 설 수 있다. 참된 겸손과 열린 마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A.A. 모임은 우리가 신(神)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 신(神)께서 우리를 본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의 확신인 것이다.

## 제 3 단계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神)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제** 3단계를 실천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볼 때, 딱 단히고 자물쇠로 채워진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열쇠와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결정이 전부다. 열쇠는 오직 하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즉 용의(用意)다. 일단 용의에 의해 문이 열리면, 그 문은 거의 저절로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의 길을 발견할 것이고 그 길옆에는 팻말이 새겨져 있다. 그것에는 “성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다. 처음 두 단계에서 우리는 반성하는데 바빴다. 우리는 자신이 알코올에 무력했음을 깨닫고 또한 어떤 종류의 믿음이, 비록 그것이 A.A.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들은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다만 받아들임만을 요구했다.

남은 모든 단계들처럼 제3단계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신(神) — 원한다면 위대하신 힘 — 이 들어오는 것을 항상 방해했던 제멋대로의 자-의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믿음은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믿음을 지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을 우리의 삶 밖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3단계가 바로 이것을 실천하려는 첫 번째 시도인 것이다. 실제로 전체 A.A. 프로그램의 효과는 우리가 이제3단계 즉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

명을 맡기기로 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그리고 진지하게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세속적이고 실용적 정신을 가진 초심자에게 이 단계는 힘들거나 나아가서 불가능하게까지 보인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노력해 보기를 원한다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신(神)의 보살피심에 자신의 의지와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다행히 똑같은 의심을 지니고서도 이 제3단계를 시도했던 우리는 누구든지 이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더욱이 하나의 시작, 비록 가장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첨가해 증명할 수 있다. 일단 한번 용의(用意)의 열쇠를 자물통에 넣기만 하면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문이 열리게 하면 우리가 항상 좀 더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제멋대로의 내 뜻이 그 문을 다시 닫히게 할지라도, 자주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려는 용의의 열쇠를 다시 드는 순간 그 문은 항상 다시 열릴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혹은 원자 물리학의 주장과 같은 것처럼 신비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A.A.에 합류하고 그리고 A.A.에 매달리기로 작정한 모든 남녀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제3단계를 시작한 것이다. 알코올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그들 각자가 A.A.의 보살핌과 보호와 인도에 그들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 이미 내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대신 A.A.가 제시하는 방법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의 용의를 지닌 어떤 새 멤버도, 침몰하는 배와 같이 되어버린 자신에게 A.A.가 유일하게 안전한 항구라는 것을 느낀다. 이제 만일 이것이 새로이 찾은 신(神)의 섭리에 그 자신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맡기는 것인가?

그러나 본능은 자주 그러하듯이 아직도 다음과 같이 외친다. “그렇습니

다. 알코올에 관한 한, 나는 A.A.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나의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변변치 않은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생명과 의지를 무엇인가 혹은 누구에게든 지속적으로 맡긴다면 **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도넛의 가운데 구멍처럼 보이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자기중심적 편벽성을 지탱하기 위해 본능과 논리가 항상 애쓰는 하나의 과정이며 또 그렇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위대하신 힘에게 의존하려는 용의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실제로 더욱 더 독립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A.가 실천하고 있듯이, 의존이란 실제로 영혼의 진정한 독립을 얻는 방법인 것이다.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이 의존의 아이디어를 잠깐 살펴보자.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이며 그리고 그 의존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현대의 모든 집들은 그 내부로 전력과 빛을 전달하는 전선줄이 있다. 우리는 이 의존을 매우 즐기고 있으며, 우리의 최선의 희망은 아무것도 이 전류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학의 경이로움에 의존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더 독립적이 된다. 우리는 더욱 독립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전력은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어디에나 흘러간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상한 전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단순한 필요와 가장 절실한 필요까지도 충족시킨다. 척수성 소아마비에 걸려 그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 동력에 완전한 신뢰와 의존을 하는 인공호흡기에 매달린 환자에게 물어보라.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모두 우리 스스로만이 결정할 권리를 지녔다고 우리는 얼마나 완고하게 주장하는가. 그야 물론, 우리는 모든 문제의 찬부(贊否) 양론을 저울질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의 말을 정중하게 들겠지만 모든 결정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 그 누구도 우리의 개인적 독립성에 간섭하지 못한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의지력에 바탕을 둔 지성만이 우리의 내면 생활을 올바르게 조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증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각자가 신(神)의 행세를 하는 이 용감한 철학은 말하기에는 멋지지만 그것은 아직 철저한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거울 속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그가 어떤 알코올 중독자이건 그에게 충분한 대답이 될 것이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기가 너무 참혹하다면(보통 그렇다), 그는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만심으로부터 얻는 결과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세상 어디에서나 그는 노여움과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회는 싸움질하는 패거리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된다. 한 패거리는 다른 쪽에게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고 말한다. 그런 모든 압력 단체는 만일 그 단체가 충분히 힘이 있다면 그 단체의 의지를 다른 단체에게 독선적으로 강요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일은 세상 어디에서나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노력의 결과로써 평화와 우애는 이전보다도 줄어든다. 자만심의 철학은 노력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아주 명백하게도, 그런 자만심의 철학은 뼈를 부수는 수레바퀴의 고문 틀과 같으며, 그 성공의 종국은 파멸이다.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우리는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각자는 제멋대로 하려는 자아-의지라는 뼈를 부수는 수레바퀴의

고문 틀에 죽을 뻔했었고 그리하여 그 무게로 충분히 고통을 받아 좀 더 나은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용의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우리가 A.A.에 끌려온 것,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 기초적 믿음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위대하신 힘에게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하기를 원하게 된 것, 이 모두는 우리의 미덕(美德)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존”이라는 말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렇듯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에게도 혐오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전문가인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잘못된 모양의 의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의존의 많은 것을 경험했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성인 남녀도 부모에게 지나치게 감정적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래 전에 그것을 떼어 버렸어야 했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 못했다면 그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바로 이런 잘못된 모습의 의존이 많은 반항적인 알코올 중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의존도 견딜 수 없는 해를 끼치고 만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A.A. 그룹이나 위대하신 힘에 대한 의존은 어떤 불행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영적 원칙은 처음으로 큰 시험대에 올랐다. A.A. 멤버들은 군(軍)에 입대했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다. 과연 그들이 규율을 지키고, 총알 앞에서 맞서며 그리고 전쟁의 단조로움과 비참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 A.A. 안에서 배운 그런 종류의 의존이 그들을 지탱해 줄 것인가? 그들은 할 수 있었다. 고향에 남아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전쟁터의 그들이 더 적게 재발했거나 혹은 감정적 불안을 덜 겪었다. 그들은 어떤 다른 군인들 못지않게 인내와 용맹을 발휘할 수 있었다. 알라스카건 살레르노 상륙지전 위대하신 힘에 대한 그들의 의존은 효과가 있었다.

이 의존은 나약함과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힘의 주된 원천이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용의를 지닌 사람이 지속적으로 위대하신 힘에게 그 자신의 의지와 생명을 맡길 수 있는가? 그의 알코올 문제의 해결을 A.A.에 의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가 첫 출발을 시작한 것을 이미 보았다. 이때쯤 그는 알코올 이외의 다른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문제들의 어떤 것은 순수한 개인적 각오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문제들은 꿈쩍도 않으며, 그것들은 그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며 그리고 그가 새로 발견한 단주를 위협한다. 우리의 친구는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는 자책과 죄책감으로 아직 괴로워할 것이다. 아직까지 부러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비통함이 그를 휩쌀 것이다. 경제적 불안정이 그를 병들게 하고 그가 알코올에 의해 잃어버린 안정을 생각할 때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잃게 된 애정과 그들로부터 분리된 어려운 형편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용기 하나만 가지고 혹은 도움 없는 의지만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 분명히 지금 그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의존해야만 한다.

처음에는 아마도 그 '누군가'는 A.A.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많은 문제들이, 술을 마심으로서 그 아픔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졌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에 의존하게 된다. 물론 후원자는 우리 친구의 생활이 그가 술을 끊었으나 아직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결국 A.A. 프로그램이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을 받아들이고 몇몇의 A.A. 모임에 참석하여 얻은 단주는 물론 매우 좋은 것이지만 영구적인 단주 그리고 만족스럽고 또한 쓸모 있는 삶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여기에 바로 그

A.A. 프로그램의 나머지 단계들이 필요한 것이다. 생활의 한 방법으로써 이런 단계들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바람직한 결과는 별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제3단계에 대해 결연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에만 A.A. 프로그램의 다른 단계들이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진다. 이 말은, 항상 자기 축소 이외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나아가 인간의 의지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계속 들어온 초심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올바르게 설득된 셈이다. 즉 알코올 이외의 많은 문제들은 개인이 혼자서 맹렬히 매달려도 별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다. 그 혼자서만이 자신의 환경 아래서 용의의 질(質)을 그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가 이 용의를 갖게 되었을 때, 열심히 노력할 결심은 그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동이다. 모든 12단계들은 그것들의 원칙을 따르려는 지속적이며 개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가 믿는 바, 그렇게 신(神)의 뜻에 따르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신(神)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이런 일은 놀라운 계시(啓示)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의지력을 잘못 사용한 데 있었다. 우리를 위한 신(神)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의지를 맞추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자신의 문제를 의지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신(神)의 뜻에 맞추는 것이 갈수록 더욱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A.A.의 12단계의 목적이며, 이 제3단계가 그 문(門)을 여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하면, 제3단계의 실천을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쉽다. 감정적 혼란과 어떤 일을 결정



내리지 못해 망설여질 때는 항상 우리는 고요함을 요청하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서 간단히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으로 이 기도문의 직역본을 첨부합니다:

“신(神)이시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리고 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주소서.

## 제 4 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창** 조는 어떤 목적을 위해 본능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한 본능들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남녀들이 그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양식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주거지를 짓지 않는다면 생존이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번식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사회적 본능이 없었다면, 그리고 상호 간에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사회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욕구들 — 성적 본능, 물질적 그리고 감정적 안정에 대한 본능, 동지애에 대한 본능 — 은 절대로 필요하고 올바르며, 그리고 분명히 신(神)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그렇게 필요한 이런 본능들이 때때로 그 적절한 목적의 기능을 훨씬 넘어서곤 한다. 이런 본능들은 강력하게 맹목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교묘하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자 한다. 성(性)적 욕구와 물질적 그리고 정서적 안정에 대한 욕구 및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자 하는 욕구들은 때때로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 된다.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들은 인간에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모든 문제는 욕망들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어떤 인간도 이런 문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거의 모든 심각한 감정적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은 본능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본능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결점으로 변하고 만다.

제4단계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 이러한 결점들이 과거에는 어떤 것이었으며, 현재는 어떤 것들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노력

하는 단계다.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자연적 욕구들이 우리를 빼놓아지게 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끼친 불행은 공정하게 살펴보기를 바란다. 우리의 감정적 결함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그 결함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행할 용의와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에게 단주도 혹은 만족도 별로 있을 수 없다. 철저하고 두려움 없는 도덕적 검토 없이 우리 중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효과가 있을 그 믿음이 아직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도덕적 재고 조사의 상세한 내용에 달려들기 전에, 무엇이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본보기들도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무한한 뜻을 갖게 된다. 성적 욕망을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어떤 한 사람을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이 긴박한 충동은 그의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그의 물질적 및 감정적 안정을 파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재정적 안정에 대해 그와 같은 강박을 갖게 되어, 그는 오로지 돈을 축적하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그는 수전노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가족과 친구들 모두를 스스로 부정하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안정에 대한 추구는 항상 돈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지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 더 강한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려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책무를 감당하는데 실패한 이 연약한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환멸과 무력함이 그의 운명이다. 때가 되면 모든 그의 보호자들은 떠나거나 죽게 되고, 그는 또다시 한번 홀로 되어 두려움에 떨게 된다.

우리는 또한 권력에 혈안이 되어있는 남녀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동료들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정당한 안정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든 기회를 바람에 날려 보내곤 한다. 한 인생이 본능을 위한 전쟁터가 되고 말 때는 언제나 평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의 전부는 아니다. 한 사람이 그 자신의 본능을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강제할 때는 언제나 불행이 뒤따른다. 만일, 부(富)의 추구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된다면, 분노와, 질투 그리고 복수심이 솟아오를 것이다. 성(性)적인 것이 방탕으로 흐르면, 거기에도 비슷한 것들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다만 그 보호자의 마음 안에 지배욕이나 혐오감을 불러올 뿐이고, 그 두 가지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나친 관심과 보호와 사랑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똑같이 불건전한 것이다. 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욕구가 억제하지 못하리만큼 심하게 되면, 그것이 바느질하는 모임이거나 혹은 국제회의의 모임에서건,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거나 때때로 반발을 일으킨다. 이런 본능의 충동은 쌀쌀맞게 툭 쏘아붙이는 말에서부터 격렬한 혁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또한 본능을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특별히 자기들 안에서 본능이 날뛰는 그것이 그들의 파괴적 음주의 잠재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 좌절 그리고 우울증의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에 대한 죄의식에서 도피하기 위해 술을 마셨고, 그리고 나서는 더 많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시 술을 마셨다. 우리는 허영심에서 술을 마셨다. 즉 화려함과 권력에 대한 거짓된 꿈을 더욱 즐길 수 있다는 허영심에서 마셨다. 이런 잘못된 영혼의 병은 보기에 도 흥하다. 이렇게 날뛰는 본능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캐보려고 진지한 노력을 해보려는 순간, 우

리는 심각한 반작용에 부딪혀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격상 우울한 쪽이라면, 우리는 죄의식과 자기혐오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기형적이고도 고통스런 쾌감을 얻으면서, 지저분한 늪에서 뒹굴 것이다. 우리가 병적으로 이런 우울한 행동을 쫓으면, 우리는 망각 외에는 어떤 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절망의 정점에 빠질지도 모른다. 물론 이쯤에서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고 그래서 어떤 진정한 겸손도 잃고 만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존심의 이면(裏面)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덕적 검토가 전혀 아니다. 이는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자주 술과 죽음으로 이끌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의 자연적 성격이 독선적이거나 과대망상적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정반대일 것이다. 우리는 A.A.가 제안한 검토에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술이 우리를 망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했던 멋진 시절을 자부심을 갖고 지적할 것이다. 우리의 심각한 성격적 장애는,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주로 과다한 음주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론적으로 술 끊는 것 —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리고 항상 — 만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술을 끊는 그 순간 한때 우리가 지녔던 좋은 성격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술 마시는 것만 빼놓고, 원래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술을 끊은 지금 도덕적 검토가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또한 검토를 기피하려는 또 다른 멋진 핑계를 만든다. 자신의 현재의 불안과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거지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도덕적 검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지른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더 좋게 대해 준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는 정당하고

이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원한들도 “옳은 종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검토를 진행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의 후원자가 도우러 온다. 그들은 이 제 4단계에서 A.A.의 시험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경우가 이상하거나 남들과 다르지 않으며 또한 그의 성격적 결함도 A.A.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거나 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를 위로한다. 이것을 후원자는 자유롭고도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과장함 없이 그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결점들을 말함으로써 재빨리 증명해 준다. 이런 조용하고도 실질적인 재고 조사는 매우 용기를 북돋아 준다. 후원자는 아마도 초심자가 자신의 결점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는 불건전한 것을 제거하고 균형을 갖도록 한다. 초심자가 좀 더 객관적이 되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없이 그 자신의 결점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검토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후원자는 매우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자만심에 의해 살아온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결점에 대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심자들은 거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만심이 쌓아온 벽 속에 있는 흠집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고 그 흠을 통해 이성(理性)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먼저, A.A. 멤버들의 대다수가 술 마시던 시절에 자기 정당화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왔던 것을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자기 정당화란 자기변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물론 술 마시기 위한 변명이고 모든 미치광이 짓과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변명이다. 우리는 변명을 만드는 일을 때

우 훌륭한 예술을 하듯 해냈다. 우리는 시절이 어려워서 혹은 좋아서 마셔야 했다.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흘러 혹은 사랑이 전혀 없어서 마셔야만 했다. 직장에서 커다란 성공을 했거나 혹은 절망적 실패를 했으므로 마셔야만 했다. 우리는 나라가 전쟁에 승리를 해서 혹은 패배로 평화를 잃었기 때문에 마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상황이 우리를 술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음주에 대한 조절력을 잃어버렸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어떤 상황이던 이런 상황을 직면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A.A. 안에서 복수심에 찬 원한들, 자기 연민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자만심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서서히 배웠다. 우리가 거물 행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그런 패배에 대한 복수를 계획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하려고 했던 노여움의 권투 글러브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만일 우리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했다면, 비록 그 혼란이 누구 혹은 무엇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혼란을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어떻게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를 희생시키는가를 깨닫는 데는 자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것들을 재빨리 인식할 수 있으나, 우리 자신 안에서는 오로지 그렇게 느리게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많은 이런 결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비록 그런 것을 밖에 드러내 놓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 해도 시인해야만 했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것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남을 탓하는 비난”이라는 단어를 떨쳐 버려야만 했다. 이는 비록 시작만 하는데도 커다란 용의(用意)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첫 두세 번의 장애를 일단 넘으면, 그 남은 앞길은 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희망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겸손을 얻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울증 형(型)이나 권력을 쫓는 형(型)은 성격적 양 극단의 형이지만, A.A. 안이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는 형이다. 이런 성격들은 예를 든 것과 같이 똑같은 형이 흔히 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빈도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분류에 다 맞는 형이다. 인간이란 결코 똑같지는 않으며,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검토를 할 때에는 그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기에게 맞는 신발(결점들)을 찾은 후, 그는 그 신발을 신고서, 그리고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확신을 갖고 걸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좀 더 역력한 성격적 결함들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종교적 훈련을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목록에 도덕적 원칙들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을 기록할 것이다. 다른 어떤 이들은 이런 목록을 성격적 결함으로 생각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부적응의 차림표라고 부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죄라는 말은 차치하더라도 만일 부도덕성에 대한 말이 있다면, 매우 불쾌해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한 가지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즉 만일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주와, 항상 그리고 인생에 대처할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기대하려 한다면, 고쳐져야 할 많은 잘못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점이다.

이러한 결점들을 이름 붙이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주요한 결점들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목록을 들어보자 — 일곱 가지 죽음에 이른 죄악들 즉 교만, 탐욕, 색욕, 분노, 식탐(食貪), 질투 그리고 게으름을 들 수 있다. 교만이 이 순서 첫 머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정당화로 이끌며, 항상 의식



혹은 무의식적 두려움에 몰리어, 인간의 대부분의 어려움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며, 참된 향상을 막는 주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교만은 신(神)께서 내려주신 우리의 본능들을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지나친 요구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성(性)과 안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될 때면, 그때 교만은 우리의 과도한 본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잠입해 들어온다.

이런 모든 결점들은 그 자체로 영적 병(病)인 두려움을 낳는다. 그리고 두려움은 다시 성격적 결점들을 낳는다. 우리의 본능들이 충족되지 못하리라는 터무니없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성(性)과 권력을 갈망하거나 자신의 본능적 욕구가 위협받게 되었을 때 화를 내거나 우리의 야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다른 이들의 야망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러워하도록 우리를 강제로 몰아친다. 자신이 결코 충족하게 갖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남아채려 한다. 일을 해야 한다는 예상에 정말 놀라면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운다. 우리는 빈둥대고, 미루고, 혹은 잘한다고 해보았자 투덜대며 일하거나 반은 김이 빠져서 일한다.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가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인생의 기초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불개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A.A.가 두려움 없는 도덕적 검토를 제안할 때, 그것은 모든 초심자에게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마다 그의 교만과 그의 두려움 양쪽 모두가 그를 격퇴시킨다. 교만은 “너는 이 길로 지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두려움은 “네가 감히 어딜 보느냐!”하고 말한다. 그러나 도덕적 검토를 실제로 시도했던 A.A.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교만과 두려움은 나중에 보면,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한번 우리가 검토하려는 완전한 용의를 갖고 이 일을 철저히 하려고 힘쓴다면, 놀라운 빛이 이 칙칙한 곳에 비칠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아

갈 때, 새로운 종류의 확신이 생겨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대할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제4단계의 첫 번째 열매들이다.

여기까지 와서 초심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즉, 본능들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대변하는 그의 성격적 결점들이 자신의 음주와 인생 실패의 일차적 원인이었다는 결론, 그리고 그가 이러한 결점들 중 제일 나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힘껏 노력할 용의를 갖지 않는다면, 단주건 마음의 평화건 둘 다 그를 피해갈 것이라는 결론, 또한 그의 인생의 거짓된 모든 기초는 허물어져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결론들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제 자기 자신의 결점을 찾는 일을 기꺼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 자신의 검토를 하는가?”하고 그는 묻는다.

제4단계는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의 시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심각하게 괴로움을 주고 매우 분명한 성격적 결점들을 살펴보도록 그에게 제안할 수 있다.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늠할 그의 최선의 판단을 사용하여, 그는 성(性), 안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본적 본능들에 관련된 자기 자신의 행위를 대충 검토할 수 있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정확히 어떤 경우에 나의 이기적 성(性) 관계 추구가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해를 끼쳤는가?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으며 얼마나 심하게 상처를 받았는가? 나는 나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나의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는가? 나는 사회에서 나의 위치를 위태롭게 했는가? 그 당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나는 정확히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나는 아무것도 끝 수가 없는 죄책감으로 불타고 있었는가? 혹은 나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가,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 책임회피를 했는가? 성(性) 문제의 좌절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절당했을 때 나는 복수심을 가졌거나 혹은 우울해 했는가?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풀이 했는가? 집에서 거절당하거나 냉대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외박의 핑계로 삼았는가?

또한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 및 감정적 안전에 관련된 행동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하는 질문들이다. 여기에서 두려움, 탐욕, 소유욕, 교만은 자주 최악(最惡)의 상황을 만든다. 그의 사업과 고용 기록을 살펴볼 때, 거의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런 유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 문제에 더하여 어떤 성격적 결함이 나의 경제적 불안정에 원인이 되었는가? 직장에 대한 적격성 여부로 인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나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나를 갈등으로 채웠는가? 이러한 부족한 느낌을 기만, 사기, 거짓, 책임 회피의 방법으로 감추려고 했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정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는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 거물 행세를 했는가? 동료들 속이고 사기 치는 그런 무절제한 야심을 가졌었나? 나는 돈을 낭비했는가? 값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는가? 가족을 적절히 돌볼 것을 거절하며, 구두쇠 노릇을 했는가? 재정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는가? 투기, 도박, 증권, 경마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A.A.에 나온 직장 여성들 또한 이 질문들의 많은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주부도 또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녀는 외상을 속이고 식료품 값을 조절하고, 오후를 도박으로 보내며 그리고 무책임과 낭비와 남용으로 남편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수 있다.

직장, 가정, 친구를 잃기까지 술을 마신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성격적 결함들이 그들의 안전을 망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냉정하게 반대 심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 불안정의 가장 흔한 증상들은 걱정, 노여움, 자기 연민 그리고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들에서 일어나지만, 어느 때는 외부적 원인에서도 일어난다. 이런 점들을 검토하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모든 인간관계를 세심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불안정은 본능들이 위협받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런 방향을 향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아서, 어떤 성적 관계가 나에게 불안, 슬픔, 좌절 혹은 우울증을 일으켰는가? 각각의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가? 이런 복잡함은, 이기심과 부당한 요구 때문에 내게 일어난 것인가? 혹은 만일 나의 혼란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면, 왜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종류의 기본적인 질문들이 곧 나의 불편함의 근원을 밝혀내고 그리고 내가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자기 규범에 맞도록 평온하게 조정하게 하는 질문들이다.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해 이런 같은 감정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보자. 내 자신의 실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이 괴로운 불안을 일으켰는가 자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원인의 일부였다면, 그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일 내가 현재의 문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 맞게 나의 생활을 맞추어 가는데 필요한 방법을 기꺼이 취할 용의가 있는가?

각자의 경우에 따라 쉽게 마음에 떠오를 이런 질문들이 근본 원인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사회 일반과의 빼놓아진 관계로부터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특히 어리석고 완고했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과 참다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철저한 무능력 그것이었다. 병적 자기중심주의는 두 개의 재난의 함정을 판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지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지나치게 그들에게 의존하려 한다. 만일 우리가 지나치게 그들에게 기대면, 그들은 조만간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인간이며, 우리의 끊임 없는 요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불안정은 커지고 끓아터진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고집 센 요구에 맞도록 조절하려 할 때, 그들은 반발하고, 심하게 저항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박해감이 생기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우리가 조절하려는 노력을 두 배로 하고 그리고 계속해 실패하면, 우리의 고통은 심해지고 지속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한번도 제대로 가족의 일원이며, 친구들 중의 한 친구이며, 일하는 동료 중의 한 동료이며 사회의 유익한 한 일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리 중 으뜸이 되려고 사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무리 속에 숨어 버리려고 했다. 이런 자기중심적 행동은 주위의 어떤 사람과도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했다. 참된 형제애에 대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성격적 결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어놓은 질문들 중 많은 것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양심적인 검토가 객관적 질문들과 관련된 바로 그 성격적 결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다고 제안할 수 있다. 우리의 표면적인 기록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은 우리 안의 깊은 곳에 있는 동일한 결점들을 자기 정당화의 깊은 두께 밑으로 파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자주 당황하곤 한다. 그 결점들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알코올 중독과 비참 속으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검토를 할 때에는 철저함이 바로 우리의 좌우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과 답을 기록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은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고 정직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발전하려는 철저한 용의의 **명백한** 첫 번째 증거가 된다.

## 제 5 단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A.** A.의 모든 12단계들은 우리의 자연적 욕구와는 반대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자만심을 축소시킨다. 자아를 꺾는데 있어, 제5단계보다 어려운 단계는 없다. 그러나 오랜 단주생활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 단계보다 더 필요한 단계는 거의 없다.

A.A.의 경험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나, 그 문제들을 일으키거나 증폭시키는 성격적 결점들을 지닌 채, 혼자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탐조등으로 제4단계를 살살이 훑어본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들을 안도감 속에서 드러내 준다면, 그리고 또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제의 괴로운 허깨비와 함께 홀로 살려는 것을 그만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엔 두려움과 주저함이 심각해, 많은 A.A.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제5단계를 피해서 넘어가려고 애쓴다. 우리는 좀 더 쉬운 길을 찾는다. 즉 술을 마실 때 가끔 나쁜 배우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별로 아픔이 없는 방법으로 시인함으로써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덤으로, 우리의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술 마실 때의 우리의 행동의 극적인 일부분을 과장된 표현으로 첨가한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속 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

지 않는다. 어떤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기억에 대해서는 아무하고도 이야기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이것들은 우리의 비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결코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비밀이 우리와 함께 무덤까지 갈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러나 만일 A.A.의 경험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현명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결정이다. 제5단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태도는 별로 없다. 어떤 이들은 전혀 술 끊은 상태에 머물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진실로 자기정화(自己淨化)를 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재발한다. 비록 A.A.의 고참자들도 수년간 술을 끊고서도, 이 단계를 생략하여 대가를 지불하곤 한다. 그들은 그 짐을 어떻게 혼자서 지고 가려고 애썼는지를 말하며, 얼마나 초조와 불안과 자책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는지를 말하고,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위안을 찾아 헤맸는지를 말하나, 그들은 때때로 자기가 스스로 숨기려고 애쓰는 바로 그 결점을 이유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위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는 일은 물론 매우 오래된 고전이다. 그것은 모든 세기에서 정당화되어 왔고, 그것은 모든 영적 중심적인 이들과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종교만이 이 구원의 원칙을 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성격적 결점에 대한 실질적 통찰과 지식을 지녀야 할 깊은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믿을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관한 한, A.A.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 중 대부분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시인함 없이는 우리는 단주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용의를 지낼 때까지 우리의 파괴적 강박을 몰아내기 위해 신(神)의 은총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제5단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 같은가? 그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던 흑독한 소외감을 제거할 것이다. 거의 예외 없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고독에 시달린다. 우리의 음주가 심해지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기 전에, 거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괴로워했다. 우리는 부끄러워 감히 다른 사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거나, 혹은 관심이나 동반자 관계를 원해서 소란스러우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코 그것들을 얻지는 못했다. — 최소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랬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벽이 항상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갑자기 맡은 바 배역의 대사를 한 줄도 외우지 못하는 무대 위의 배우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알코올을 사랑했던 하나의 이유다. 술은 우리로 하여금 즉흥적으로 연기를 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술의 신 바커스조차도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우리는 결국 철저히 넘어졌고 그리고 흑독한 고독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우리가 A.A.에 도달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해하는 듯한 사람들 가운데 섰고 그 소속감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소외감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사회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홀로 있지 않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불안한 격리감에서 오는 지난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우리의 갈등들을 완전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했던 것이다. 제5단계가 해답이었다. 그것은 인간과 신(神)의 진정한 만남의 시작이었다.

이 중요한 단계는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행동했든 상관없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 도구도 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아무리 심각하게 느낀다 할지라

도 우리의 후원자나 영적 지도자와 함께 이 단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되었다. 완전한 용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의 재고 조사가 우리를 확신시켰으나,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내면 깊숙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제5단계에 단호히 덤벼들었을 때였다.

우리의 결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기대해도 되는 또 하나의 이익 배당은 — 비록 흔히 오해받고 있는 단어이지만 — 겸손이다. A.A. 안에서 발전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깨닫는 분명한 인식에 이르게 하고 그 인식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알고 그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뒤따르게 한다. 그러므로 겸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실질적인 일은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가 무엇이 자신의 결점인지를 분명히 알 때까지는 어떤 결점도 고쳐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점들을 **아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제4단계에서 이룩한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은, 결국 관찰일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 모두는 자신이 정직성과 관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알았고, 또한 때때로 자기 연민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혔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굴욕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는 우리가 아직 실질적인 겸손을 꽤나 얻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인식이 되었으나 우리의 결점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곧 혼자서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결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과 더 많은 정직을 제5단계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자기-기만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켰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의 반성을 혼란스럽게 했다. 만일 전 생애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속여 왔다면, 우리가 지금은 자기-기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결점들의 참된 목록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들에게나마 진실로 시인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직 두려움, 자기-연민 그리고 상한 감정들로 괴로움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나친 죄책감과 자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결점들을 극적으로 혹은 과장해서 표현하게 할 수 있다. 혹은 분노와 상처 입은 자존심은 우리의 결점을 숨기는 스크린이 되는 반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아마도, 또한 우리가 크건 적건 간에 많은 결점들로 가득 차서, 그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끝까지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혼자서 자기 평가를 하는 것과 그렇게 혼자 하는 것에 근거를 둔 우리의 결점 시인은 거의 대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알고 또 시인하려 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 즉 신(神)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채,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까이 충고와 지시를 받아들일 용의를 가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바른 사고, 확고한 정직 그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가는 길 위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춤거렸다. “어째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신(神)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지를 말해 줄 수 없는가? 만일 조물주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그분은 상세히 알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어째서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시인하면 안 되는가? 어째서 이런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는가?”하고 우리는 말했다.

이쯤에서 신(神)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그 어려움이 두 배가 된다. 비록 처음에 신(神)이 우리에게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기는 했으나, 우리는 그 사실에 쉽게 빨리 익숙해진다. 어떻든 신(神)과만 함께 홀로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마주쳐야 하는 것

처럼 창피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것에 대해 실제로 앉아서 큰 소리로 말할 때까지, 자기 정화를 하겠다는 우리의 용의는 대부분 아직 이론에 지니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정직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신(神)에게 정직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렇다. 우리가 혼자서 할 때 오는 것은 합리화와 희망적 생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점(利點)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직접적인 평(評)과 상담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충고가 무엇인지를 의심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 혼자서 한다는 것은 위험스럽다. 비록 좋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이 신(神)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실천과 겸손이 둘 다 부족하여, 그들은 자기 망상에 빠지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신(神)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우 높은 영적 발전을 한 사람들도 그들이 신(神)으로부터 받았다고 느끼는 지시에 대해 친구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검토를 받도록 거의 항상 주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확실히 초심자는 이런 모습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바보스럽고 아마도 비극적일 수 있는 기회에 자기를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평이나 충고가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보다 위대한 힘과의 접촉을 정립하는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받을 어떤 신(神)의 지시보다도 더욱 구체적일 것이다.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 분별력이야말로 매우 높이 평가되는 미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른

어떤 사람도 알아서는 안 될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 술을 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 심각한 문제란 어쩌면 우리의 문제와 유사한 것들일 것이다. 이 사람이 결국 우리의 후원자일 수도 있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만일 당신이 상당한 신뢰를 가졌다면 그리고 그의 성질이나 문제들이 당신의 것들과 유사하다면, 그 선택은 잘 된 것이다. 또 한편, 당신의 후원자는 이미 당신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점이 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분만 그에게 드러내 놓고 싶은 제한적 관계일 수도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라도 어쨌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 당신은 좀 더 어렵고 깊은 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개인은 전혀 A.A. 밖의 사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의 목사나 혹은 의사일 수도 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최선의 선택일 경우도 있다.

이 상황의 참다운 시험은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려는 당신 자신의 용의와 당신의 첫 번째의 정확한 검토를 나눌 그 사람에게 대한 충분한 당신의 신뢰에 있다. 비록 당신이 그 사람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남자나 여자에게 접근하는 데에는 흔히 상당한 각오를 요한다. 아무도 A.A. 프로그램이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가 당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다행히 당신은 아마도 매우 상쾌한 놀라움을 맛볼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할 때, 그리고 당신의 신뢰를 받는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알게 되었을 때, 대화는 쉽게 시작되고 곧 진지해질 것이다. 오래 가지 않아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두 가지 말할 것이고 그것

은 당신을 보다 더 편안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안도감은 시시각각 커질 것이다. 수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그 갇힌 곳에서 터져 나오고 그것들이 노출되자마자 기적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픔이 가라앉으면서 상처가 아무는 고요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겸손과 평온함이 그렇게 같이할 때, 그 위대한 순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한때 불가지론자였거나 무신론자였던 많은 A.A.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즉 이 제5단계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처음으로 신(神)의 존재를 느꼈다고. 그리고 비록 이전에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전에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神)을 인식하게 된다.

신(神)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느낌과, 우리의 무서운 죄책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정직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소외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를 설만한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맑은 정신을 향해 다음 단계들을 준비한다.

## 제 6 단계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이 단계는 어린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단계다.”라고 A.A.의 가장 위대한 친구들 중 한 사람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한 성직자가 그렇게 선언한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 **기탄없이** — 자기의 모든 결점에 대해 **제6단계를 반복해서** 노력하기 위해 충분한 용의와 정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는 영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러므로 창조주의 형상과 이미지를 향해 성장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어른이라고 불릴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물론, 신(神)이 성격적 결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거할 것인가 — 하는 논란의 문제는 거의 모든 A.A.의 멤버에 의해 즉각적이고도 긍정적인 답을 얻을 것이다. 그에게 이런 제안은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다만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사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보통 그 증거를 다음과 같은 진술로 대신할 것이다.

“확실히, 나는 패배해 지쳐 있었고, 철저히 얻어맞았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력이란 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환경을 바꾸거나, 가족, 친구, 의사, 그리고 성직자들의 최선의 노력이거나 알코올 중독증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만 술을 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 정화를 할 용의를 갖게 되고, 내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위대한 힘에게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술 마시려는 강박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당장 거두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A.A. 모임에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들을 수 있다. 술 끊은 A.A. 각 멤버가 이 매우 완고하고 치명적인 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매우 완벽하고 문자 그대로의 방법으로 모든 A.A. 사람들은 신(神)이 그들의 인생에서 술에 대한 망상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그리고 신(神)은 확실히 이것을 제거해주셨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허락받았다면, 어째서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든 어려움이나 결점들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성취할 수 없겠는가? 이것은 우리 존재의 수수께끼이며, 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다만 신(神)만이 아실 것이다. 어떻든 최소한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의 일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하다.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할 만큼 술을 자기 몸에 그렇게 많이 퍼부을 때, 그들은 가장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기-보존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도 부정한 채,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내면 깊은 본능에 반(反)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이 알코올에 의한 처참한 패배로 겸손해졌을 때, 신(神)의 은총은 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지닌 강박을 쫓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살고자 하는 강력한 본능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베풀고자 하는 창조주의 바람과 충분히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과 신(神)은 똑같이 자살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문제들의 다른 것 대부분은 그런 범주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먹고, 번식하고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있는 사회 안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안정되기를 원한다. 실제로 신(神)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신(神)은 사람이 술로 자신을 파괴하도록 설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은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능을 주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 욕구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창조주가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아는 한 신(神)이 어떤 인간으로부터도 그의 모든 본능적 욕구들을 제거했다는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우리는 많은 자연적 욕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런 욕구들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 이상으로 도를 지나치게 했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그 욕구들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몰아칠 때나, 혹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능하거나 마땅한 만족이나 쾌락 이상을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제멋대로 요구할 때, 바로 그때가 신(神)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 완전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격적 결점 혹은 우리의 죄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간청하면, 확실히 신(神)은 우리의 태만함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의 협조 없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고 또 그렇게 눈처럼 희게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용의를 갖고 노력해야 하는 그 무엇일 것이다. 신(神)은 성격 형성의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한의 최선을 다하기만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제6단계 — 즉 “신(神)께서 우리의 이러한 성격상 결점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준비를 완전히 했다” — 는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말하는 A.A.의 표현 방법이다. 이것은 술 마시려는 충동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성격상 결점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들 중 몇몇은 그럴지도 모르나, 대부분은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 향상에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완전히 준비했다”는 이 중요한 말은 우리가 알고 또한 배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목표로 삼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겠는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아무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모

을 수 있는 한의 모든 정직을 다해서 그러한 완전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실망스럽게도, 우리 중 제일 잘하는 사람조차도 항상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걸림돌이란 우리가 “아니, 아직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는 좀 더 위험한 땅 위를 걷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지나치게 강한 본능의 힘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발전했다 해도 신(神)의 은총을 거부하는 욕구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다고 느끼는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반박할 것이나,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장 뚜렷하고도 파괴적인 결점들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자기가 허풍선이라고 비난받을 만큼 교만하기를 바라지 않고, 도둑이라고 낙인 찍힐 만큼 그렇게 탐욕스럽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아무도 살인을 할 만큼 분노하거나, 강간을 할 만큼 색욕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그의 건강을 해칠 만큼 거식증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질투로 인한 만성적 고통에 의해 괴로워하거나 게으름으로 인해 마비 상태의 무기력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런 극단적인 차원의 결점들로 고통받지는 않는다.

이런 극단을 피했던 우리는 스스로 자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결국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극단을 피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어떻게 우리에게 처벌을 가져올 이런 극단을 피하는데 있어 그리 많은 영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종류의 결점 중에 덜 극심한 것들에 접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서있게 되는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점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 누가 옆의 동료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하물며 매우 우월하기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탐욕

을 야망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 놓고 싶어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 색욕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리고 그 말을 믿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들은 그들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색욕을 숨겨둘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을 때조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상의 성적 탈선을 낭만적인 꿈으로 멋있게 치장하는 경향이 있다.

독선적인 노여움 또한 매우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뒤틀어진 방법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실제로 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월감의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여움에 가득 찬 험담 즉, 점잖은 모양새를 갖춘 인신공격 또한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준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거식증이 파괴적이 아닐 만큼 덜할 때, 그에 대해 하는 말이 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쓴다. 우리는 질투라는 수수께끼에 걸린 세상에 살고 있다. 크건 작건 누구나 질투에 감염되었다. 이 결점으로부터 우리는 빼뚫어졌지만 분명한 만족을 얻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갖지도 못할 것을 바람으로써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가? 혹은 그와 똑같이 우리가 평생 얻지 못할 재능에 대해, 그 사실에 적응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화가 나서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가? 얼마나 자주 우리는 안전해지기 위한 동기로 열심히 일하다가 후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 그리고 그것을 “은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재능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실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일 뿐이다. 누구나 거의 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결점의 목록을 내놓을 수 있으며, 그것들이 최소한 극심할 정도의 비참을 일으킬 때까지 우리 중 그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런 모든 결점이 그들에게서 제거되도록 실제로 준비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좀 덜 심한 결점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게 되면, 그 결점들 중 어떤 것은 아직 버리지 않고 매달리고 싶어 하는 것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영적 그리고 도덕적 완전함을 목적으로 빠르고도 쉽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견디기에 충분할 만큼만의 완벽을 바라고, 그것은 물론, 무엇이 인생을 견디기에 충분한가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란 자기가 스스로 택한 목적을 향한 노력과 신(神)에 속하는 완전한 목적을 향한 노력 이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 “어떻게 하면 제6단계의 전체적 의미를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그것이 **완전성**이 됩니까!”하고 물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 같으나, 실제로 말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제1단계 즉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했다는 것을 100% 시인한 이 단계만이 절대적 완전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열 한 단계들은 완전한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바 목표이며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측정하는 잣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제6단계는 여전히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시급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며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술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이 단계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아주 새로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눈을 완벽을 향해 높이 들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급히 갈 수 있는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아직은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없는 그런 결점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어 놓은 마음의 질긴 선을 지워야만 한다. 우리가 아

마도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이것은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나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겨놓은 위험스럽게 열려있는 쪽은 버리도록 하자.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나아가기로 전적인 용의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늦추는 것은 용서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당화를 잘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 안에서, 그 말은 확실히 장기간에 걸쳐서 늦추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얼마나 쉬운 일인가! 물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혀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아마도 내 문제 중 어떤 것의 처리는 무한정 연기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스스로 속이는 것은 다른 또 많은 그럴듯한 정당화를 불러올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나쁜 결점을 꼭 잡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니오, 결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신(神)의 은총으로부터 닫히고 만다. 뒤로 미루는 것은 위험하고, 반항은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이 제한된 목적을 버리고, 우리에게 대한 신(神)의 뜻을 향해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인 것이다.

## 제 7 단계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 주시기를 간청했다.”

이 단계는 특히 구체적으로 겸손과 관련이 있으므로, 겸손이란 무엇이며 그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한다.

참으로, 좀 더 큰 겸손을 성취한다는 것은 A.A.의 각 12단계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겸손 없이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결코 술을 끊을 수 없다. 거의 모든 A.A. 사람들 또한 단지 술을 끊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이 값진 성품인 겸손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진실로 행복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겸손 없이는 유익한 목적의 삶을 살 수 없으며,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떤 응급 상태에도 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다.

겸손이란, 말로서나 하나의 개념으로서, 세상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험한 시대에 있다. 개념이 오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 자체를 사람들은 몹시 싫어한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한 방식으로서 겸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일상의 대화나, 읽는 많은 것에서 그 업적에 대한 인간의 자만심을 강조한다.

위대한 지성으로, 과학자들은 강제로 자연의 신비를 벗기고 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대한 자원은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황금시대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가난은 사라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원하는 안전과 개인적 만족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이 올

것이다. 그 이론이란 일단 모든 사람의 기초적 본능이 만족되면, 다투어야 할 아무것도 별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인 것 같다. 세상은 행복하게 되고 문화와 인격에 관해 관심을 쫓는 자유가 올 것이다. 주로 그들 자신의 지성과 노동에 의해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을 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분명히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그리고 확실히 어떤 A.A. 멤버도 물질적 성공을 비난하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는 소신에 아직도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다가 영망을 만들고 만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망치게 된 부류의 사람들도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안정과 명성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몫 이상을 요구해 왔다. 우리가 성공하는 듯 보일 때,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술을 마셨다. 부분적으로나마, 좌절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우리가 바랐던 것에 대한 충분함이란 결코 없었다.

대부분 좋은 의도를 가진, 이 모든 노력 속에서, 우리에게 타격을 안겨준 결점은 겸손의 부족이었다. 인격 형성과 영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물질적 만족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부족했다. 매우 특징적으로,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었다.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인간으로서 살고 직분을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대신, 우리는 이 충족을 우리 삶의 최종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중 대부분이 훌륭한 인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명확하게 말해서 훌륭한 인격이란 자기만족이라는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 뿐이고 정직

과 도덕성의 적절한 발휘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과 편안함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면, 인격 형성이란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좇아가는 길 위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인격고양 그 자체를 바람직한 어떤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본능적 욕구가 채워졌는지 혹은 아니든지 간에 노력해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직과 관용과 인간과 신(神)에 대한 참사랑을 삶에 있어서 매일 매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영구적인 가치에 대한 정신적 의지가 없는 것과 삶의 참된 목적에 대한 무지는 또 다른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 힘과 지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시간 동안, 그 기간만큼은 위대하신 힘에 대한 효과 있는 믿음이란 불가능했다. 이는 신(神)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에도 그랬다. 우리가 아직도 신(神) 행세를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성적인 종교적 믿음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독립적 자기 의존을 먼저 앞세우는 한, 위대하신 힘에 대한 순수한 의존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겸손의 기초적 요소란 신(神)의 뜻을 찾고 이를 행하려는 소망,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 무엇인가 배우게 강요된 것은 오직 반복된 굴욕에 의해서였다. 우리가 겸손을 땅에 엎드려 기는 절망적 상황 이상의 그 어떤 소중한 것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오직 연속적인 패배, 굴욕에 점철되고, 자부심의 마지막 붕괴를 거친 하나의 긴 여정 끝에 왔던 것이다. A.A.의 모든 초심자가 전해 듣고 곧 그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은 술



에 대한 무력함을 겸손히 시인한 것이 무력하게 만드는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겸손을 하나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생각을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그리고 인간 영혼의 참된 자유를 찾아가는 통로로서의 겸손에 대한 비전을 얻으려면, 또한 겸손 그 자체를 바람직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여 겸손을 얻으려고 기꺼이 노력할 용의를 갖게 되려면, 우리 대부분에게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조정된 전 생애는 당장에 거꾸로 반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반발이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뒤따른다.

결국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했을 때, “신(神)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쉬기 쉽다. 그리고 나서 놀라움 속에서 이것이 다만 우리가 걷는 새로운 길의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여전히 전적인 필요성에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주저 속에서, 우선 우리를 술꾼으로 만들고 만 성격적 결점들,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결점들과 맞붙어 싸우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결점들 중 어떤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그것으로부터 움츠러들 것이다. 그리고는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다른 결점들에는 열정적인 집요함으로 매달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 결점들을 지나치게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충동과 욕망들을 제거하기 위한 각오와 용의를 불러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A.A.의 경험을 통해 이끌어 낸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어쩔 수 없이 도달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굳은 의지로 노력해야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결론이다. 우리의 성장의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력과 강제를 느낀다. 노력에 따른 고통을 택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오는 어떤 처벌을 당하든가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처음의 몇 발자국은 마지못해 내딛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걸었다. 우리는 아직 겸손에 대해 바람직한 개인적 미덕으로 높이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 겸손을 꼭 필요한 도움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점들의 어떤 것들을 똑바로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그것들이 제거되도록 용의를 갖게 될 때, 겸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이때쯤 우리는 자신의 더욱 지독한 결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해방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우리는 마음의 참 평화와 같은 어떤 것이 있는 그런 순간들을 즐기게 된다. 이제까지 오직 흥분이나 우울 혹은 불안만을 알았던 우리에게 —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 이 새로이 발견한 평화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한한 선물인 것이다. 무엇인가 참으로 새로운 것이 더해졌다. 전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마치 겸손이라는 이름의 떡을 강제로 먹이는 것 같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줄 수 있는 영양분이 많은 재료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겸손에 대한 이 발전된 인식은 우리의 견해에 또 다른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우리의 눈은 자만심을 깨트리는 고통으로부터 바로 오는 무한한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주로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도망 다니는데 소요되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마치 흑사병을 피하듯이 도망쳤다. 술병을 통한 도피가 언제나 우리의 해결책이었다. 성자들에게는 고통을 통한 인격 형성이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호소력이 없었다.

그런데 A.A.에 와서 우리는 보고 또 듣게 되었다. 어느 곳에서도 우

리는 실패와 비극이 겸손에 의해 매우 값진 자산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이 나약함으로부터 힘을 이끌어 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고통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료로 우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고통은 어느 정도의 겸손을 가져다주었고, 그 겸손은 고통을 치유한다는 것을 곧 발견했다. 우리는 고통을 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어느 때보다도 겸손을 원하게 되었다.

겸손에 대해 좀 더 배워가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의미 깊은 결과는 신(神)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자(信者)였건 불신자(不信者)였건 관계없이 사실이었다. 우리는 위대하신 힘이 오직 응급 시에만 부르는, 어린이 야구팀의 대타자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신(神)은 때때로 조금씩 돕고 있다는 관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런 태도의 한계에 눈을 떴다. 신(神)을 맨 앞에 두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 자신 홀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밝은 약속과 의미를 전해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겸손을 얻는 것이 반드시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겸손이 끊임없는 고통으로부터 올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겸손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도 올 수 있다. 겸손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참으로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 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제7단계의 총체적 의미를 보기 시작했을 때이다.

실제로 제7단계를 실천하려고 접근할 때, 우리 A.A. 사람들은 한 번

더 우리의 보다 더 깊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었던 것을 신(神)의 은총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근시안적 혹은 보잘것없는 욕망에 근거한 성격적 결점들이 이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가 된다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신(神)께 불합리한 요구를 해 왔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의 결점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은 자기중심적인 두려움 — 주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잃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 — 이다.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 속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되는 혼란과 좌절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욕구를 줄이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평화란 있을 수 없었다. 욕구와 단순한 요청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제7단계는 겸손을 안내자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신(神)을 향해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단계이다. 제7단계에서의 제일 큰 강조는 겸손에 있다.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한 것을 시인하고 우리 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술 문제를 제거한 것과 같이, 우리의 다른 결점들의 제거를 추구함에 있어 기꺼이 겸손을 시도해 볼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7단계는 말해주고 있다. 만일 그 정도의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치명적인 강박을 없애버릴 은총을 발견케 했다면, 우리가 어찌면 갖고 있을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도 같은 결과를 이룩할 희망이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 제 8 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제** 8 및 제9단계들은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우리가 끼친 손해를 보상하려고 강력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셋째로, 과거의 잔해를 깨끗이 청소하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능한 최선의 인간관계를 이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한다.

이것은 매우 큰 주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점점 늘어가는 익숙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끝내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과 가장 훌륭한 평화와, 우정 그리고 형제애를 나누며 사는 것을 배우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건,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모험이다. 모든 A.A. 사람들은 먼저 과거를 되돌아보고 진실로 과거에 그가 남긴 인간적 파괴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도 엄격한 검토를 할 때까지 그는 이 새로운 삶의 모험에서 별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가 도덕적 재고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이것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배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감정적 상처들, 어떤 것은 오래되었고, 어떤 것은 잊혀졌으며 그리고 어떤 것은 아직도 고통스럽게 끓고 있는 상처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처음에는 목적도 의미도 없는 수술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꺼이 시작하기만 하면, 이것을 하는 엄청난 유익함이 빠르게 나타날 것

이다. 그 유익함이란 장애가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고통이 줄어들어  
든다는 것이다.

이런 장애물들은,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가장 어  
려우면서도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용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 뼈뿔어지고 망쳐진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  
은 방어적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잘못을 바라보  
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원한을 갖고 그가 우리에게 잘못  
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것은 특히 그가 실제로 나쁘게 행  
동했을 때에는 사실이 된다. 의기양양해서 자신의 잘못을 최소  
화하거나 잊기 위해 우리는 그의 잘못에 집착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날카롭게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알코올 중독자들만이 병든 감정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더욱이 술 마실 때의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  
람들의 결점을 악화시킨 것은 대개 사실이다. 우리는 반복해서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인내심을 시  
험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에게서는 최악의 행동이 나오게 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동료들과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재  
앙을 증가시켰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를 간청  
하려 한다면, 어째서 그들 모두를 용서함으로써 시작하지 않  
는가?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 때, 대부분의 우리  
는 또 다른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힌다. 우리는 우리가 해를 끼  
친 사람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야비했던 행동을 시인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매우 심각한 충격을 받았  
다. 비밀하게 이런 것들을 신(神)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했었다. 더군다나 실제로 관계된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심지어 편지를 써야한다는 것조차 우리를 난처하게 했고, 우리가 대부분의 그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했을 때 특히 그러했다. 또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 중에 다행히도 아직 상처 받은 줄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째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채로 두면 안 되는가?”하고 우리는 소리쳤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자만심과 함께 공모하여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매우 다른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졌다. 즉 술 마실 때 우리 자신을 제외하고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집했다. 우리는 집의 청구서를 다 지불했고 또 집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고통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대체로 직장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 동료들은 고통받지 않았다. 우리의 음주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명성은 손상되지 않았다.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활기 있게 술 취하는 것은 오로지 멋진 사람들의 실수라고 때때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다. 그러므로 무슨 실제적인 해를 끼쳤다는 말인가? 몇 마디의 지나가는 사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해는 확실히 없었다. 이런 태도는, 물론, 의도적 망각의 결과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깊고, 정직한 관찰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태도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보상을 할 수 없고, 또 다른 경우에는 보상의 행동을 연기해야만 하는 때도 있으나, 어떻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대로의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고도 실제로 철저한 검토를 해야만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끼친 감정적인 상처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때때로 잊혀져 있지만 매우 깊고 상처 받은

감정적 갈등들이 우리의 무의식권에 항상 내재해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난폭하게 뺏겨버리게 하고, 이는 또 우리의 성격을 망가트렸고 우리의 삶을 더욱 나쁜 상태로 변화시켰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목적이 매우 중요한 반면, 우리가 자신의 인간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기본적인 어려움들을 찾아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인간관계가 거의 항상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에 대한 검토보다 더 만족과 가치 높은 보답을 주는 분야도 별로 없다. 인간관계에 대한 조용하고도 사려 깊은 반성은 우리의 내면의 통찰력을 깊게 한다. 기본적인 결점들, 때때로 인생의 전반적 양태에 책임이 있는 결점들을 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표면적으로 잘못된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철저함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그것도 충분히 보상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害) 끼쳤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해(害)”를 사람들은 서로 간에 끼치고 있는가? “해(害)”라는 말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능들이 충돌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혹은 영적 손상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성질이 항상 나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 만일 우리가 거짓 말하거나 속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질적 재산을 박탈할 뿐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에게 경멸적이며 복수심이 타오르게 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성적 행동이 이기적이면, 질투나 비참 그리고 같은 종류의 강한 보복심을 일으킨다.



그와 같은 심한 유(類)의 나쁜 행동만이 우리가 끼치는 해(害)의 모든 목록은 전혀 아니다. 때때로 매우 심각한 해(害)가 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종류의 해(害)를 생각해보자. 가정생활에서 인식하고, 무책임하며, 무감각 또는 차갑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우리가 짜증을 내고 비판적이며, 성급하고 유머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또한 가족 중 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철(鐵)과 같이 융통성 없는 규칙으로 전 가족을 지배하려 하거나 혹은 시시각각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사소한 지시를 계속해서 쏟아냄으로써 가족들을 지배하려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말끝마다 자기 연민으로 우울함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목록들 — 즉, 술 마시는 중독자로서의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어렵고 혹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목록들은 거의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적 경향을 우리가 상점이나 직장 그리고 동료들의 사회에 갖고 나가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으킨 것과 동일하게 심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이 모든 면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서, 우리 안에 어떤 성격적 성향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또 혼란스럽게 했는가를 결정하면, 우리가 공격을 가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살살이 더듬어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오래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깊게 상처 받은 사람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억이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먼 과거로 연차적으로 가보면, 어떤 상태로든 영향을 입은 사람들의 긴 명단을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물론 각각의 경우를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고 저울질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건 혹은 상상이든, 우리에게 한 잘못은 용서하는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시인하는 과정을 단단히 붙잡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나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나 그들의 결점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조용하고도 객관적인 견해는 우리의 확고한 목적이다.

우리의 연필이 명단 작성을 주춤거릴 때, 우리는 힘을 내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A.A.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동료와 신(神)으로부터의 소외감의 종지부인 것이다.

## 제 9 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을 했다.”

**은** 바른 판단, 가장 적당한 시간에 신중한 분별력, 용기 그리고 사리분별 — 이런 것들이 제9단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특성들이다.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각의 경우를 면밀히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난 후에,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단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즉시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다만 부분적인 보상 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보다는 더 큰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 행동을 뒤로 미루어야 하는 또 다른 경우도 있고, 상황의 성격상 우리가 직접적인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가 A.A.에 합류하는 그 날로부터 어떤 종류의 직접 보상을 시작한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과정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시기를 설정하거나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물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소리 지르며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첫 모임에서 돌아오거나 혹은 A.A.의 책자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우리의 음주로 인하여 끼친 손상을 시인하고자 한다. 거의 항상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준 다른 결점들을 시인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며,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가족들(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던 숙취에 빠졌던 아침들과 비교하기에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다. 이 첫 대좌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인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처지에서 쓰러린 어떤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올바른 판단은 우리가 시간 여유를 갖기를 제안할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결점들을 기꺼이 드러낼 용의가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을 회생시키면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사무실에서나 공장에서도 같은 접근 방법이 상당히 적용될 것이다. 우리의 음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며, 그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즉각 생각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한 것보다는 좀 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몇 주(週) 동안 혹은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려 원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A.A.의 대들보에 잘 매어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가서 A.A.란 어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할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끼친 손상을 편안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사과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빚진 책임, 그것이 재정적이건 다른 어떤 것이건, 대가를 지불할 수도 혹은 지불할 약속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용하고 진지한 태도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관대한 반응은 자주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비록 가장 가혹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비판자들조차도, 첫 시도에서 자주 타협 이상의 태도로 만나줄 것이다.

이런 인정과 칭찬의 분위기는 매우 감동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같은 종류의 감동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의욕을 만들어내어 균형을 잃게 할 수도 있다. 드문 경우에 있어, 우리가 차갑고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와 같이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논쟁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끈질기게 주장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혹은 그것이 우리를 실망이나 부정적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리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그런 반응들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빗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보상을 함에 있어 이런 예비적인 시도를 한 후, 우리는 임무가 끝났다고 결론짓고 안도감을 즐기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명예의 월계관에 머무르고 싶어 할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좀더 굴욕적이고 두려운 만남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은 매우 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비켜가려는 그럴듯한 변명을 자주 만들 것이다. 혹은 실제로는 심각한 잘못들을 바로잡을 많은 좋은 기회를 이미 지나친 때에도,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뒤로 미루고만 있기도 한다. 회피를 할 때에는 분별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생활의 새로운 방법에 자신감을 갖고 행동과 모범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 보다 건전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시작하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그들에게 끼친 해에 대해 그들이 조금 밖에 모르거나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철저한 정직 속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데의 유일한 예외는 우리가 털어놓는 것이 실질적인 해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이런 대화는 격의 없는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럴만한 기회가 오지 않으면, 모든 용기를 다해

관계된 사람에게 바로 다가가서 우리의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 앞에서 지나친 자책에 빠질 필요는 없으나, 이런 차원에서의 보상은 항상 솔직하고 그리고 전반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해를 끼친 손상에 대해 완전히 들추어내려 하는 우리의 욕심에는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털어놓음으로서 우리가 보상하려는 사람이냐, 혹은 —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혼치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를 의심을 하지 않는 아내나 남편에게 혼외(婚外)의 모험담을 상세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 비록 그와 같은 것을 논의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그가 누구이던 제3자에게 해 끼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무모하게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에, 관련된 인생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날카로운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용을 했건 혹은 비용을 부풀려 허위 지출을 했건, 우리가 회사 돈으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 이런 것이 들키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우리의 부정을 고백하면, 해고와 그리고 실업 상태가 거의 확실한데도, 우리는 즉시 회사에 고백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족들이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상관없이, 보상을 함에 있어 그렇게 엄격하게 정의로워지려고 하는가? 혹은 우리는 먼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의논할 것인가? 대가가 어떻든 때가 오면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한편 — 우리는 신(神)의 도움과 안내를 진지하

게 간청하면서, 우리의 후원자나 영적 지도자 앞에 이 문제를 털어놓을 것인가? 물론, 그 같은 모든 곤경에 다 맞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이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도 주어진 상황 아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어디까지나 보상할 완전한 용의를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에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과거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갖추는 것은 바로 제9단계의 정신이다.

## 제 10 단계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우리가 처음 아홉 단계들을 밟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모형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10단계에 접근할 때,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매일매일 A.A.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아래서도 단주 상태를 유지하고,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목적의 삶을 살 수 있는가?”하는 엄밀한 시험이 닥쳐온다.

우리의 장점과 결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참된 욕구야말로 우리에게서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매우 어렵게 이것을 터득했다. 물론, 모든 시대, 어느 곳에서나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풍부한 자기 검토와 비판을 실천해 왔다. 자기 검토가 규칙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까지, 그 누구도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없다는 것은 현자(賢者)들에게는 항상 알려진 사실이다.

술꾼이 전날 술을 심하게 마셨기 때문에 심한 숙취에 빠졌다면, 그는 오늘을 잘 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마셨건 안 마셨건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종류의 숙취가 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의 지나친 부정적 감정 — 노여움, 두려움, 질투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 — 의 직접적인 결과인 감정적인 숙취다. 만일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평온하게 살려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숙취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병적으로 과



거 속에서 방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금**, 잘못에 대한 시인과,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검토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참으로 우리의 과거를 우리 뒤로 제쳐놓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를 이루었을 때, 내일의 도전을 그것들이 오는 대로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이 따라온다.

원칙적으로 모든 검토가 비록 비슷하지만, 시간이라는 요소가 서로 간에 구별을 짓는다. 우리 자신이 혼란스러워진 것을 발견했을 때, 즉 하루 중 어느 때나 하는, “불시에 점검하는 검토”가 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지나간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검토하는 즉 하루의 끝에 하는 검토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잘한 일은 대변에 그리고 해야만 할 것은 차변에 기록하는 대차대조표를 만든다. 그리고 혼자 서나 혹은 후원자나 영적 지도자와 함께, 지난번 마지막 검토 이후의 우리의 발전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A.A. 사람들은 일 년 또는 반년마다 자기-정화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바깥세상으로부터 물러나 묵상하는 곳 즉 하루 이틀 동안의 방해받지 않는 자기-검토나 명상을 위한 조용한 곳에서 묵상 경험을 좋아한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와 함께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A.A.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작위(作爲) 혹은 부작위의 죄를 적막하게 되새기며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야만 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검토에 대한 강조는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자기-평가의 습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건전한 실천이 습관화되면, 그것이 너무 흥미롭고 유익함으로, 그것을 하는데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기-검토에 소비된 몇 분 혹은 몇 시간은 우리의 그날의 모든 나머지 시간을 좀 더 훌륭하

고 행복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 결국 우리의 검토는 특이한 것도 아니며, 분리되어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의 정규적인 한 부분이 된다.

불시에 하는 검토가 무엇이냐는 것을 묻기 전에 그러한 검토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

원인이야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원칙이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도 또한 오류 속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칙에 예외는 없는가? “정당화할 수 있는 분노”는 어떤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속였다면, 우리는 화를 내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적절히 노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A.A.의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은 위험한 예외가 된다. 정당화되는 분노는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원한에 의해 더 희생당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우리의 원한이 정당했건 안 했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성질을 폭발시키는 것은 하루를 망치고, 잔뜩 키운 원한은 우리를 비참할 정도로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정당한 분노와 정당하지 못한 분노를 구분하는데 결코 재능을 갖지 못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분노는 항상 정당화되었다. 좀 더 균형 잡힌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사치가 되는 분노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취한 상태에 끝없이 머물게 할 수 있다. 이런 감정적 “마른 주장”은 자주 우리를 바로 술병으로 이끌었다. 다른 종류의 혼란들 — 질투, 부러움, 자기 연민, 상처 받은 자존심 — 도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혼란 중에 택한 불시점검의 검토는 폭풍과 같은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의 불시점검은 그날을 사는 데 일어나는 상황에 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오래 끌

있던 문제들에 대한 심사숙고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그런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따로 마련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즉각적인 검토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하는데, 특히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건들이 우리를 균형을 잃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하도록 유혹할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자제력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직한 분석과, 잘못이 우리의 몫일 때 그것을 시인할 용의, 그리고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용서할 같은 정도의 용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방식으로 실수를 했을 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향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자제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최우선의 과제다. 우리가 성급하고 분별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공정하고 관대해지려는 능력은 그 당장에 증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단 하나의 불친절한 장광설이나 하나의 고의적이고 갑작스러운 비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루 종일 혹은 일 년 내내 망칠 수 있다. 우리의 입과 펜을 절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성급한 비판이나 격렬하고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논쟁은 피해야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뾰로통하고 침묵적인 경멸도 피해야만 한다. 이것들은 자존심과 복수심을 미끼로 갖고 있는 지뢰밭이다. 우리가 첫째 해야 할 일은 이 지뢰밭을 옅으로 비껴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미끼로 유혹받았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제하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선한 목적을 향해 생각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불쾌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만이 자제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를 성취하거나 혹은 물질적 성공을 이룩하기 시작할 때, 또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개인적 승리를 사랑한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며, 우리는 성공했을 때, 우리를 도취

게 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포도주를 마셨다.

일시적인 행운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보다 더 큰 성공의 환상에 빠졌었다. 그래서 교만에 가득 찬 자만심에 눈이 어두워, 우리는 거물 행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사람들은 따분해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고서 우리로부터 떠나버렸다.

이제 우리는 A.A.에 들어와 술을 끊고, 친구들과 사업 동료들에게서 다시 존경을 되찾고서도 우리는 아직 특별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한다. “거물주의”에 대한 하나의 보험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오늘 오직 신(神)의 은총으로 술을 끊고 있으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성공도 우리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성공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주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우리는 참된 관용에 접근하고 또한 우리 동료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향상해 가면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의 아픔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노하고 상처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더욱 더 명확해질 것이다.

우리 관점의 이렇듯 급격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진실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마 실제로 싫어했거나 미워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비록 이런 태도가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A.A. 사람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어떤 태도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몹시 증오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소수를 독점적 소유욕으로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어떤 이들을 계속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록 한때에 조금씩일 망정 버려야만 할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우리가 친절을 보이지 못한 곳에 친절을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싫어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비상한 노력을 하면서, 정의와 예의를 그들에게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든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시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항상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시인이 도움이 된다면 또한 그들에게도 시인할 수 있다. 예의, 친절, 정의 그리고 사랑, 이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그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이다. 의심이 날 때는,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는, 그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가?”하고 자주 자문할 수 있다.

저녁이 올 때, 아마도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날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이곳이 검토라는 것이 항상 적자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좋은 곳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한 날은 물론 좋지 못한 날이다. 실제로 본다면, 우리의 깨어 있는 시간들은 대개 건설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들 그리고 선한 행동들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거기 대차대조표에 적혀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 중의 하나로 대변에 기록해도 좋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실패의 아픔들은 자산으로 변환된다. 그런 아픔들 속에서 우리는 더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자극을 받게 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언제인가 고통은 모든 영적 향상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A.A의 우리는 단주 전에 음주의 고통이 먼저 왔었고, 평

온함이 오기 전에 감정적 동요가 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지!

그날의 원장(元帳)의 차변 쪽을 훑어보면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각각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동기들은 깨닫고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다. 자만심, 노여움, 질투, 불안 혹은 두려워 할 때, 우리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으며, 그것으로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나쁘게 행동했거나 생각했던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뿐이며, 어떻게 했더라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까를 알려고 노력하며, 물론 게을리 했던 보상을 하고, 신(神)의 도움으로 이 교훈을 내일에 적용하도록 결정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오직 가장 면밀하게 정밀 조사를 해야만 우리의 참된 동기를 밝힐 수 있다. 우리의 오래된 숙적인, 합리화가 밀고 들어와서 실제로는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했던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의 유혹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마치 우리가 선한 동기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듯이 상상하려는 것이다.

단지 가치 없는 논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실제 동기인데, 우리는 이것이 필요했던 누군가를 위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했다. 혹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얻으려는 것이 진짜 속마음 이었는데, 현재 그가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벌을 주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이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상처 입혔다. 실제로 우리가 동정과 관심을 주로 간청할 때에도, 기분이 나쁘다며 우울해하거나 불평을 했다. 마음과 감정의 이런 이상한 특성, 즉 선한 동기 아래 악한 동기를 감추려는 이 빼뺏어진 소원은 높은 이에서부터 바닥의 사람에게까지 모든 인간에게 스며들어 있다. 이 미묘하고도 회피하려는 독선은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행동과 생각 밑에도 깔려 있다. 이런 결점들을 찾아내고 시인하고 그리고 고치

려는 것을 매일 배우는 것, 이것이 성격 형성과 좋은 생활의 요소다.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정직한 후회와 받은 바, 축복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그리고 내일은 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다는 용의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자산이다.

그렇게 하루를 점검한 후,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을 생략하지 않고, 두려움도 그 반대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난 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진실로 신(神)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잠잘 수 있다.

## 제 11 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神)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기도와 명상은 신(神)과의 의식적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 A.A. 사람들은, 대개는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삶의 현실을 처리함에 있어 만족함을 즐기고, 그리고 따라 들어오는 다음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우려고 힘껏 노력하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주 중요한 명상과 기도를 실제로는 별로 필요치 않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은 때때로 닥치는 응급의 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느끼지만, 처음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직자들의 어떤 신비한 기술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그 기술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얻기를 희망하거나 혹은 이런 일들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초심자들에게나, 여전히 A.A. 그룹을 그들의 위대하신 힘으로 간주해 매달리고 있는 한때 불가지론자였던 사람들에게 있어, 기도의 힘에 대한 주장들은, 모든 이론과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납득하지 못하거나 혹은 완전히 반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때 그와 같이 느꼈던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의 무엇인가가 어떤 신(神)이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반발하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또한 어떠한 신(神)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강한 논리



를 갖고 있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사고와 질병과 잔혹함과 불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불운한 출생과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그 모든 불행한 생명들은 무엇인가? 확실히 이런 일들의 계획 속에는 정의란 있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신(神)이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는 약간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과연 닭의 알이 있기 전에 아마도 암탉이 먼저 있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우주에는 어떤 종류의 “최초의 원인”이 있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순서에 따라 뜨거움과 냉각이 반복되는 원자(原子)라는 신(神)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을 알고 돌보는 신(神)에 대한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불가지론자들은 물론 A.A.를 좋아했고 그리고 A.A.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나 마치 어떤 과학자가 그가 좋아하는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안 되니까 어떤 실험을 행하기를 거부하듯이 우리는 기도와 명상으로부터 꿈무늬를 뺐다. 물론 결국 우리는 실험을 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뒤따랐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느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틀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명상과 기도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시도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도를 비웃는 사람들은 오로지 결코 기도를 충분히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이용하게 된 우리는 마치 우리가 공기, 음식 혹은 태양을 거부할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 같은 이유인 것이다. 우리가 공기, 빛 그리고 음식을 거부할 때, 육체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명상과 기도로부터 돌아설 때, 같은 이유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직관에 매우 필요한 받침대를 잃게 된다. 육체가 영양 결핍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신(神) 본체(本體)의 빛과 그분의 힘의 영양소 그리고 그분의 은총의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놀라울 정도로 A.A. 생활의

사실들은 이 영원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다.

자기 검토와 명상과 기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실천을 하더라도 상당한 안도와 유익함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연관되고 잘 짜여 있을 때, 그 결과는 인생에 있어 흔들림 없는 기초가 된다. 때때로 우리는 신(神)의 천국이라는 궁극적 본체(本體)를 언뜻 볼 수 있는 은총이 허락된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얼마간 비틀거릴지라도, 우리의 창조주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러한 영역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운명이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에 위로받고 또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기 검토는 새로운 미래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본성의 어둡고 부정적인 면에 효과가 있는 은총을 불러오는 도구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신(神)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검손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단계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심지어 우리 중 제일 고약한 사람 안에서도 있는 선(善)이 꽃 피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가장 확실히, 우리는 상쾌한 공기와 풍부한 음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태양의 빛을 원한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별로 자랄 수 없다. 명상은 우리가 태양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의 걸음걸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명상할 것인가?

물론 수세기에 걸쳐 명상과 기도의 실제적 경험은 헤아릴 수 없다. 세계 도처의 도서관들과 그리고 경배하는 곳들은 모든 구도자(求道者)들에게는 매장된 보배와 같다. 명상을 강조하는 종교와 관계가 있는 A.A. 멤버들은, 전에는 결코 실천하지 않았던 것에 전념하도록 돌아서기를 바란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하는가?

우선,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말 좋은 기도문을 살펴보자. 그것을 찾기 위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종교의 위대한 남녀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남겨놓았다. 여기에 한 고전적인 기도문을 생각해보자.

그 기도문을 만든 사람은 수백 년 동안 성인(聖人)으로 간주되어왔다. 비록 그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이 감정적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성인이라는 사실에 편견도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가 쓰라린 경험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기도문은 그가 그 당시 볼 수 있었던 것과,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표현한 것이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를 전달하는 통로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헌신적일 때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으로 깨어납니다. 아멘.”

명상의 초보자로서, 우리는 이제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음미하고 그리고 각 구절과 아이디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이 기도문을 매우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우리의 친구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저항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명상에서 논쟁이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명상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휴식한다.

마치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 해변에 누워 있는 것처럼, 긴장을 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기도문의 은총의 영적 대기를 심호흡 하자.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이 훌륭한 말들이 전달하는 순수한 영적인 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에 의해 힘을 얻고 향상하도록 하자.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그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 저 먼 수평선 멀리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자. 그 너머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그 모든 경이로움을 추구하자.

“빌어먹을! 이것은 허튼 소리. 비현실적이야.”라고 어떤 이는 말한다.

이런 생각들이 끼어들 때, 조금은 비탄에 싸여서, 우리가 술에서 현실을 창조해 내려고 애쓰면서, 상상력을 얼마나 중요시했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즐겼었다. 그렇지 않았는가? 비록 요즈음 술은 끊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종종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모름지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상상력을 올바른 목적을 향해 사용할 수 없었던 자신의 거의 철저한 무능력에 있었을 것이다. **건설적인** 상상력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모든 건전한 성공이 이 상상력에 달려 있다. 결국 아무도 그가 먼저 집을 지으려는 설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다. 명상도 또한 이와 같다. 상상력은 우리가 영적 목적을 향해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그 영적 목적에 대한 미래상을 보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그 햇빛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원한다면 언덕으로 혹은 산으로 돌아가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상상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우리는 기도문을 다시 읽고, 또다시 그 내면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맨 처음 그 기도문을 기도한 사람에게 대해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 후에 그는 가능한 한 모든 인간에게 사랑, 용서, 화합, 진리, 믿음, 희망, 빛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은총을 간청했다.

그 다음 그 자신을 위한 열망과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 그는 신의 뜻 즉, 그 자신이 이런 보물들을 또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것을 소위 그가 말하는 자기희생에 의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희생”이란 무엇을 그가 뜻하려 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용서 받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단편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첫 시도으로써, 또한 당신이 좋아한다면, 영혼의 영역으로의 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현재 어디에서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뒤따라야 하고, 만일 우리가 이제 언뜻 보려고 노력하는 이상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날 것도 나아가 살펴보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명상이란 언제나 좀 더 향상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그 깊이나 높이에 있어 경계가 없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훈과 본보기로 도움을 받아, 명상이란 각 개인의 탐험이며, 우리 각자가 자기의 방식대로 노력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항상 같다. 즉 신(神)과 그분의 은총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명상은 실제에 있어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자. 그 명상의 첫 열매의 하나는 감정적 균형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神)과의 사이의 통로를 넓히고 깊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가? 기도는 마음과 정신을 신(神)께로 바쳐 올리는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명상을 포함한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명상과는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통상적으로 이해된 바와 같이 기도는 신(神)께 드리는 탄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통로를 열고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옳은 것들을 달라고 간청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범위가 제11단계의 한 부분 즉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할 힘”에 의해 잘 정의 내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한 간청은 하루 중 어느 때에도 할 수 있다.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는 하루의 할 일과, 그 하루 동안에 우리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회를 생각해 본다. 혹은 그날이 가져올지도 모를 특별한 문제를 생각한다. 어쩌면, 오늘은 어제로부터 넘어온 심각하고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연속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즉각적인 유혹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간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미 우리가 생각한 것에 따라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간청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신(神)이 **우리의** 방식으로 행하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간청의 진실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각각의 요구를 면밀히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구체적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요청에 “...만일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이라는 조건을 첨가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그날을 통해 신(神)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당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神)의 뜻에 대한 최선의 이해심과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단순히 간청하는 것이다.

그 하루가 지나가면서 상황을 마주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에서 우리는 잠깐 멈출 수 있고,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간단한 요청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감정의 혼란이 굉장하다면, 독서 중이나 명상 중에 마음에 드는 어떤 특별한

기도문이나 혹은 문구를 기억하고 또 반복하면, 우리는 우리의 균형을 확실히 유지할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노여움, 두려움, 좌절 혹은 오해로 막혀버린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케 하고 우리가 긴장의 순간에 가장 확실한 모든 도움 — 즉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신(神)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만일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것,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것,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다시 되새긴다면, 우리는 제11단계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왜~~ 우리가 구체적이고 괴로운 곤경을 신(神)에게 바로 가져갈 수 없으며, 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요구들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구하면 안 되는가?”하고 질문하는 것은 이치에 맞고 또 이해할만한 일이다.

이것은 그럴 수는 있으나, 위험스럽다. 우리는 A.A. 사람들이 결판이 난 가정의 위기나 재정적 위기에서부터 게으름과 같은 작은 개인적 결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신(神)의 분명한 안내를 진지함과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매우 자주, 신(神)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이 종종 전혀 해답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것들은 선의(善意)이기는 하지만 무의식적인 자기정당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A.A. 멤버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라도 신의 응답을 요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기도로 융통성 없이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 황당한 인간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나 비판이 생기면, 문제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즉흥적으로 기도에 의존한다. 그는 그 자신의 갈망하는 마음과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성향이 소위 말하는 인도라는 것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잊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선의 의도를 갖고, 그가 신(神)의 구체

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확신으로 모든 종류의 상황이나 문제들에 그 자신의 의지를 강제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와 같은 착각 아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커다란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神)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낸다. 자신에게 “이 사람은 그의 치명적인 병에서 치유되어야 한다” 혹은 “저 사람은 그의 감정적 고통에서 헤어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기도한다. 물론, 그와 같은 기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행위이지만, 자주 그것들은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신(神)의 뜻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것은 열성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잘난체하는 것과 자만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신(神)의 뜻이 무엇일지라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A.A. 사람들의 경험이다.

A.A.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실질적 좋은 결과들이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이해와 경험의 문제들이다.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을 뛰어넘는 힘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의 평소 능력을 초월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점점 더 갖게 되었다.

우리가 신(神)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주시되, 우리의 주문과 원하는 시기에 주실 것을 요구하기를 중지하는 바로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인도를 받는 것을 발견한다. A.A.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神)과의 의식적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의 문제들이 얼마나 놀랍고도 예상조차 못한 방향으로 더 좋게 되었는지를 말할 것이다. 또한 신(神)의 손길이 무겁고 불공평한 듯이 보일 때,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삶의 새로운 교훈을 배웠고, 새로운 용기의 원천을 발견하고 결국, 신(神)은 “그분의 기적을 행함에 있어 신비로운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들이 신(神)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신(神)의 도움과 지시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매우 용기를 주는 사실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만 의지를 다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된다. 종종 이보다 더 심한 때도 우리는 경험한다. 우리는 저항감이 너무 깊어져서, 그저 기도를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자신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기도를 재개할 뿐이다.

명상과 기도에서 오는 제일 큰 보상의 하나는 아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속감**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적대적인 세상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 없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신(神)의 뜻을 얼핏이라도 파악하는 순간, 그리고 진리와 정의, 사랑을 인생의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사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럴 듯한 거짓 증거에 대해 더 이상 깊은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신(神)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로부터 먼 훗날까지 우리가 그분에게로 향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제 12 단계

“이런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생** 활의 기쁨이 A.A.의 제12단계의 주제이며, 행동이 핵심이 되는 단어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동료 알코올 중독자들을 향해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것을 체험한다. 여기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정적 평온함을 얻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램의 12단계들 모두를 실천하기 시작한다. 제12단계를 그 함축된 의미에서 충분히 보면, 그것은 참으로 값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제12단계는 또한 그 모든 단계들을 실천한 결과로써, 우리 각자는 소위 영적 각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다. A.A.의 초심자들에게 이것은 흔히 매우 의심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그들은 “도대체 ‘영적 각성’에 대해 말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하고 묻는다.

아마도 영적 각성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그 각성에 대한 정의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순수한 정의에는 다른 모든 정의들과 공통된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영적 각성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에 아무 도움을 얻지 않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그가 이제 행하고,

느끼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의식과 존재의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된 선물을 허락받게 된 것이다. 그는, 인생이란 막다른 골목도 아니고 인내하거나 혹은 정복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며, 그가 실제로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길 위에 서게 된 것이다. 어떻게 되었든, 그가 이제까지 스스로 부정해 왔던 힘의 원천을 파악했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는 변화된 것이다. 스스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즉 어느 정도의 정직, 관용, 비이기적인 것,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사랑을 갖게 된 것을 그는 깨닫는다. 그가 받은 것은 무상의 선물이지만 대개는, 적어도 어떤 작은 부분에서는, 그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한 것이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A.A.의 방식이란 우리의 프로그램 안에서 12단계들을 실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써왔던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제1단계는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먼저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인할 때까지 알코올 중독의 강박을 전혀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2단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본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어떤 위대하신 힘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제3단계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神)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겼다. 불가지론자나 혹은 무신론자였던 우리는 당분간 우리의 그룹이나 A.A. 전체가 위대하신 힘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4단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육체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파산 상태를 가져다준 것들을 우리 자신 안

에서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도덕적 검토를 했다. 제5단계를 보면서, 우리는 혼자서 정리한 검토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갈등을 지닌 채 홀로 살아가는 무서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을 알았고,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신(神)과 다른 어떤 사람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제6단계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주저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격상 결점 중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격적 결점들이 전부 제거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 실질적 이유로 주춤거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6단계의 기본적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성격상의 어떤 결점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든 그 결점들에 대한 우리의 완고하고 반항적인 집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아마 이것을 오늘 내가 할 수 없지만 ‘결코 못한다!’고 외치는 것은 그만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 제7단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간청하는 그날의 상황 아래서 신(神)께서 제거하실 수 있고 또 제거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결점들을 없애주시기를 겸손히 간청했다. 제8단계에서, 우리는 자기-정화를 계속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갈등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시작해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고 이들을 바로 잡으려는 용의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직접 보상이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보상함으로써 제9단계로 올라갔다. 이때, 제10단계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근거를 얻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개인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강력하게 깨달았으며, 잘못되었을 때, 즉각 시인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 제11단계에서 만일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심각하게 문제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살게 하셨

다면, 그와 같은 위대하신 힘은, 가능한 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좀 더 잘 알아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명상과 기도의 지속적인 사용은 통로를 열게 했고, 그래서 작은 시내가 흐르던 곳에 이제는 강물이 흐르고, 그 강은 우리를 확실한 힘과 우리가 점차 더 많이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神)으로부터 오는 안전한 길로 이끈다.

이렇게 단계들을 실천함으로써, 결국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영적 각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겨우 시작하고 아직도 의문에 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굉장히 많은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아직 “영적인 견해”를 못 가졌다고 주장했던 의심에 찬 사람이나 아직 그가 사랑하는 A.A. 그룹을 위대한 힘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神)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神)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제12단계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방출하는 놀라운 에너지와 우리의 메시지를 고통받고 있는 다음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하는 행동 그리고 결국 12단계들을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A.A.의 보상이고 놀라운 본체인 것이다.

초심자 중 가장 초심자라도 그가 그 자신보다 더 모르는 그의 형제 알코올 중독자를 도우려고 할 때, 그는 꿈도 꾸지 못했던 보상을 발견한다. 이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받는 형제가 그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혹은 그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준다는 것의 신(神)적인 역설에 의해, 그의 형제가 무엇인가를 아직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그는 자신의 보상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성격은 아직 심각한 상태로 결점 투성이이겠지만, 어쨌든 신(神)이 그로 하여금 힘찬 출발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신비와 기쁨 그리고 경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느낀다.

실질적으로 모든 A.A. 멤버는 제12단계의 실천을 잘해서 오는 만족보다 더 깊고 더 큰 만족은 없다고 선언한다. 남녀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눈을 보는 것, 그들의 삶이 새로운 목적과 의미로 빠르게 채워지는 것을 보며, 가족들이 재결합하는 것을 보고, 버림받은 알코올 중독자가 완전한 시민 자격으로 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보다도 그들이 자신의 삶 안에 사랑 많으신 신(神)이 존재하심을 깨닫는 것을 바라보는 것 —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A.A. 메시지를 다음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할 때 우리가 받는 실제적 핵심이다.

제12단계의 실천은 이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에 있음으로 가져다줄 수 있는 재확신과 후원을 주기 위해 모임에 앉아 있고 그리고 경청한다. 만일 모임에서 이야기할 차례가 오면, 우리는 다시 A.A.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청중이 한 명이건 혹은 많건, 그것은 아직 어디까지나 제12단계의 실천이다. 모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으로 느끼는 우리 중 어떤 이들이나 혹은 제12단계의 실천을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다. 눈부시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제12단계 실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임무를 택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즉, 아마도 모임이 끝난 후,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에 찬 초심자들이 큰 웃음소리와 대화 속에서 확신과 편안함을 발견하는 모임 후의 자리에서 커피나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의미에서 제12단계 실천이다.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것이 제12단계의 이 부분의 핵심이다.

우리는 때때로 일시적이거나 방향이 빗나간 듯이 보이는 제 12단계의 경험을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큰 퇴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후에는 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한 디딤돌로 보여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떤 특징인이 단주를 하도록 정성을 다하지만, 수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에, 그가 재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찌면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A.A.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의 능력에 깊이 낙담할지도 모른다. 혹은 그 반대 상황에 접할 수도 있으며, 그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매우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초심자들을 오히려 소유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어찌면 우리가 충고를 주기에는 자격이 없거나 혹은 전혀 주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 충고를 주려고 애쓸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충고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상처 받거나 혼란스러워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더 큰 혼란에 빠진다. 매우 열정적으로 12단계를 실천함으로써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를 그룹의 대표로 추대한다. 여기서 우리는 매사를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유혹에 직면하고, 때때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절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은 성장 과정의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만일 우리가 해결책을 위해 전체 12단계들을 향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이 찾아온다.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발견한 삶의 작은 부분을 열성적으로 사랑했던 것만큼 우리가 삶의 모

든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A.A. 그룹에 준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때때로 혼란스러운 우리 가정생활에도 가져갈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후원자에게 가졌던 신뢰와 믿음을 우리 자신의 병 때문에 같이 병들고 또 망가진 사람들에게도 가질 수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A.A. 정신을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 새로이 인식된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종교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소위 실패 혹은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실패건 성공이건 절망이나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가? 용기와 평온함으로 가난, 질병, 고독 그리고 사별(死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좀 더 밝고 화려한 성공이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을 때, 겸손한 성공에 굳건하게 만족할 수 있으며, 때때로 더욱 오래도록 흡족해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의 질문들에 대한 A.A.의 해답은 “그렇다, 이런 모든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 고통 그리고 비록 재난까지도 A.A.의 12단계들을 실천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것들이 A.A.에서 회복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삶의 진실이라면, 그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사실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A.A. 사람들, 비록 최선의 A.A. 멤버도 이와 같은 일관된 성취감을 맛볼 수는 없다. 첫 잔을 마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종종 올바른 방향에서 아주 벗어난다. 우리의 문제들은 때때로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단주를 했고, 우리



의 A.A. 일 안에서 행복하다. 만사가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형통하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았을 때는 너무 쉽고 피상  
적인 것에 대해 자축한 것이었다. A.A.의 12단계들 **모두**가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성장을 중지하게 된다. 우리는 그 12단계들  
중 몇 개를 잘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제1단계와 그리고 제12  
단계 중 “메시지를 전한다.”는 부분을 합쳐 오로지 두 단계만을  
잘하고 있다. A.A.의 속어로 그런 기쁜 듯한 상태는 “두 단계 실  
천”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중 제일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도 “두 단계 실천”의 망  
상에 빠질 수 있다. 조만간 그 분홍색 구름은 걷히고 일들은 실  
망적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A.A.가 결국 보상해 주  
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당황하고 용기를 잃게  
된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갑자기 소화는커녕 삼키  
지도 못할 매우 큰 덩어리를 우리에게 넘긴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의 승진도 못한다. 우리는 그 좋은 직장을 잃는다. 어쩌면  
심각한 가정 또는 사랑 문제도 있고 혹은 신(神)이 돌보고 있다  
고 생각했던 아이가 전쟁의 희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떠한가? A.A.에 있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이런 재난에 대처할 힘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직면할 수 없었던 인생 문제였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神)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  
독자가 아닌 친구들이 용감하게 처리하듯 우리도 그것들을 처  
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자산이나 성장의 원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2단계 실천”에서 “12단계 실천”으

로 바꾼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신(神)의 은총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럴 기회를 가질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으나,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는” 정직한 노력을 했을 때, 충분한 기초를 갖춘 A.A. 사람들은, 신(神)의 은총으로—이런 문제들을 쉽게 극복하고 그것들을 믿음의 현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A.A. 사람들이 숙환과 치명적인 질병을 별로 불평 없이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때때로 오해나 긴장, 혹은 부정(不貞)으로 인해 파괴되어 헤어졌던 가정들이 A.A.의 생활 방식으로 재결합된 것을 보기도 한다.

비록 대부분 A.A. 사람들의 돈 버는 능력은 비교적 높지만, 돈 문제에 있어 결코 자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멤버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는 멤버들도 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을 깨끗한 용기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곤경이 닥쳐오는 대로 그것들을 맞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많거나 적거나 계속되는 생활의 문제에서 더욱 큰 도전을 발견한다. 해결책은 더욱 더 영적 성장을 하는데 있다.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위한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본능들에 대한 지난날의 태도가 과감한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의 욕망들 즉 감정적 안정과 부(富)에 대한, 개인적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고 가족의 만족에 대한 — 이 모든 욕망들은 조절되거나 혹은 방향 재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본능의 충족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만일 우리가 본능을 최우선에 둔다면, 말 앞에 마차를 둔 것이다. 즉 환멸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영적 성장을 앞세울 때,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 진실한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가 A.A.에 들어온 후, 계속 성장한다면, 안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 — 감정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 — 은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방식에 따른 감정적 안정에 대한 요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넣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같았다. 우리는 신(神)의 행세를 하고 주위의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거나,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했다. 마치 그들이 어린아이이거나 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매우 행복함을 느꼈고 스스로 안정을 느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저항하거나 도망쳤을 때, 우리는 몹시 상처 받고 그리고 실망했다. 우리의 부당한 요구가 원인이었음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을 탓했다.

정반대의 태도로, 마치 우리 자신이 어린 아기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아 주기를 주장할 때, 혹은 세상이 우리 생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때, 그 결과는 똑같이 불행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하거나 혹은 우리를 버리도록 만들었다. 우리의 환멸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비록 연령으로는 성인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 — 친구들, 아내, 남편, 그리고 세상까지도 — 우리를 보호하는 부모로 바꾸려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 중 최선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특히 관심을 끌려는 우리의 요구가 부당하게 심할 때는, 우리를 좌절시킴으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그 매우 힘든 교훈을 배우기를 우리는

거절해 왔던 것이다.

우리가 영적 향상을 이루면서, 이런 오류들을 통찰하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성인들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안정을 느끼려 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주고받는' 기초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반자 관계 혹은 형제 관계에 있다는 느낌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되돌려 달라는 요구 없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과는 전혀 달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점차적으로 발견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더 영적으로 발전할 때, 감정적 안정의 가능한 최선의 원천은 신(神),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그분의 완전한 정의, 용서, 그리고 사랑에의 의존은 건전하며,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신(神)에 의존했다면, 우리 동료들에게 신(神) 행세를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인간의 보호와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이나 혹은 우리 자신이 만들지 않은 재난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없는 내면의 힘과 평화를 가져다준 새로운 태도들이다.

이런 새로운 관점은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특히 필요한 것들임을 우리는 배웠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알코올 중독이란 그 자체가 외로움의 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멋대로의 자기 의지가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소외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값싼 술집에서 거물 행세를 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에 의존하기 위해 홀로 길거리로 나아가게 했다. 우리는 아직 다른 사람

들을 지배하거나 그들에게 의존함으로써 감정적 안정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세상에서 외톨이라고 느꼈고, 건전하지 못한 지배나 의존에 의해 안정되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A.A.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A.A.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결혼한 사람들은 매우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A.A.는 오랜 동안의 알코올 중독에 의해 가정에 닥쳐온 상처를 없애 주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회에서와 같이, 우리도 성(性) 문제와 결혼 생활의 문제를 갖고 있고, 때때로 이것들은 괴로울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A.A. 안에서는 영구한 결혼 파탄이나 별거는 매우 드물다. 우리의 주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발생한 감정적 삐뚤어짐을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가에 있다.

건전한 인간은 거의 모두가, 평생에 언젠가는, 가능한 가장 충만한 결합 — 영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육체적 결합 — 을 할 수 있는 이성(異性)의 짝을 찾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경험한다. 이런 강력한 충동은 위대한 인간적 성취 즉, 우리의 인생에 깊이 영향 미치는 창조적 에너지의 근본이다. 신(神)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무지와 충동과 제멋대로의 자기 의지에 의해, 우리는 어떻게 이 선물을 우리 자신의 파괴를 위해 잘못 사용했는가? 우리 A.A. 사람들은 이 오래고 오래된 난처한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는 없으나, 우리 자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어떤 해답을 마련해 준다.

알코올 중독이 닥쳐올 때, 동반자적 결혼과 잘 맞는 결합에 반대로 작용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나타난다. 만일 남자가 병에 걸리면, 아내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자주 돈을 버는 사람이 된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남편은 돌보아 줄 필요가 있고 끝없는 곤경과 난관으로부터 구해주어야 하는 병들고 무책임한 어린아이가 되고 만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대개는 그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아내는 그 말썽꾸러기 소년의 어머니가 되도록 강요된다. 그리고 만일 처음부터 그녀가 강한 모성 본능을 가졌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분명하게도 이런 상황 아래서는 동반자 관계는 별로 있을 수 없다. 아내는 보통 그녀가 아는 방법에 따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반면에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아내의 모성적 돌봄에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오하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 지고 이것은 후에 풀어야 할 많은 것을 남긴다. 어떻든 A.A.의 12단계들의 영향 아래서, 이런 상황들은 흔히 바로 잡혀진다.\*

그러나 아주 심하게 왜곡되었다면, 오랜 동안의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남편이 A.A.에 참여한 후, 아내는 불만에 찰 수도 있고, 심하면, 그녀의 수년 동안의 헌신이 실패한 바로 그 일을 A.A.가 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원한에 찰 수도 있다. 그녀의 남편은 A.A.나 새 친구들에게 너무 열중하게 되어 그가 술 마셨을 때보다 더 분별없이 집과 멀어질 수 있다. 그녀의 불행을 보면서 그는 A.A.의 12단계들을 추천하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애쓴다. 당연히 그녀는 자신이 남편보다 훨씬 더 올바

---

\* 개작된 형식으로, 그 단계들은 또한 알라논 가족 친목 그룹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A.A.의 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전 세계적 친목은 알코올 중독자(A.A. 멤버건 혹은 아직 술 마시는 사람이건)의 배우자나 다른 친척 혹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본부의 주소는 Box 862, Midtown Station, New York, NY 10018-0862.이다.

한국알아년연합회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5(현대오피스텔) 303호. 전화: 02-752-1808. 이메일: alanonkorea@naver.com

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언제나 그들의 결혼 생활이 다시 행복해질 것인지 묻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좋았었는지조차 의심하기도 한다.

결혼의 융화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면 별거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내가 인내해 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보상하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임으로써, 거의 항상 그의 결혼 생활의 책임을 지려고 한다. 좋은 결과를 이루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A.A.의 12단계들 모두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 시점에서 그는 문제의 소년 대신에 동반자로서 곳곳이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결국 무분별한 사랑이 그에게 맞지 않는 생활 방법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된다.

A.A.에는 결혼하기를 원하는 독신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할 입장에 있다. 어떤 이들은 A.A. 사람들과 결혼한다. 그들의 결과는 어떤가? 전반적으로 이런 결혼은 매우 훌륭하다. 술꾼으로서 그들의 공통의 고통, A.A.와 영적인 것에 대한 공통의 관심 등이, 그런 결합을 더욱 좋게 한다. 다만 “A.A. 캠퍼스에서 소년이 소녀를 만나다.” 그리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곳에서만 어려움이 발생한다. 장래의 동반자는 확고한 A.A. 멤버일 필요가 있으며, 영적,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 적합성이 소망 사항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알만큼 오랜 동안 알고 사귀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둘 중 어느 한 사람에게 깊이 내재하는 감정적 결합이 훗날의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 그들을 망치는 일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려는 A.A. 밖의 사람과 결혼하는 A.A. 사람에게도 똑같이 옳고 똑같

이 중요하다. 분명한 이해와 올바르고 성숙된 태도를 취할 때, 매우 행복한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많은 A.A. 멤버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들 주위에 그 많은 가정의 행복을 눈으로 보면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고독하고, 상처 받고 소외감을 느낀다. 만일 그들이 이런 종류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면, A.A는 그들에게 동등한 값어치가 있고 오래 지속되는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렇다 — 언제나 그들이 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는 그렇다. 그렇게 많은 A.A. 친구들에 둘러싸여, 소위 이 독신자들은 더 이상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 여자건 남자건 — 그들은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나 사람들, 그리고 건설적인 계획에 몰두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들은 가정을 지닌 남녀들에게는 거절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그런 멤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그 보상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다.

돈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소유에 관한 한 우리의 관점 또한 혁명적 변화를 거쳤다.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면에서 돈을 낭비했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마치 돈이 끝없이 생기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술과 술 사이에는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 거의 수전노가 되기도 했었다. 깨닫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다만 다음의 술잔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을 뿐이다. 돈은 쾌락과 자기과시의 상징이었다. 우리의 음주가 더욱 심해졌을 때, 돈이란 우리에게 다음 음주를 공급해 주며, 그 술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망각의 평안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A.A.에 참가했을 때, 이런 태도들은 심하게 바뀌어져, 때때로 반대 방향으로 지나치게 가기도 했다. 수년간에 걸친 낭비의 참상은 우리를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우리의 손상된 재산을 다시 재건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어떻게 그 많은 빚을 청산하고, 팬찮은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는 말인가? 재정적 중요성은 더 이상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제 물질적 안정에 대해 크게 떠들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자신의 사업에서 잘 재건하고 있을 때에도 이런 심한 두려움이 자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것은 우리를 다시 수전노나 인색한 사람으로 만든다. 완전한 경제적 안정을 가져야만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평균 이상으로 돈 버는 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을 잊고 있었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자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의 A.A. 형제들이 그런 직장을 얻도록 돕기 위해 열성적인 엄청난 선의를 갖고 있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경제적 불안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神)을 잊고 있다. 돈 문제에 있어, 우리는 자신만을 믿었고, 신(神)은 별로 믿지 않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상당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하나의 직장이 봉사를 위한 기회라기보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일 때, 경제적 독립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신(神)에 대한 올바른 의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일 때, 우리는 아직 불합리한 두려움의 희생자인 것이다. 어떤 재정적 차원에서도 평온하고 유용한 삶을 몹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A.A.의 12단계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물질적 전망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두려움

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기쁨으로 겸손한 노동을 해낼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상황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더 나쁜 상황으로 변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커다란 자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물질적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이 문제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의 하인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과 봉사를 나누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신(神)의 도움으로, 우리가 자신의 분복(分福)을 조용히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자신과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같은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또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부족으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자긍심과 권력, 야망 그리고 지도력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좋아진 견해를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술 마실 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파선하게 된 암초였었다.

실제로 미국의 모든 소년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다. 그는 자기 나라의 제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것의 불가능성을 알게 되고,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온화하게 웃어넘길 수 있다. 그의 인생 후반기에 참 행복은 제1인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돈과 사랑과 자긍심을 위한 심한 투쟁에서 일류급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인생이 그에게 주어지는 대로 잘 행하는 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는 아직 야망을 갖고 있으나, 이제는 실제적 현실을 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하지 않다. 그는 자기에게 맞는 크기에 기꺼이 머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그렇지 못하다. A.A.가 아직 매우 초기였을

때, 저명한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소위 문제의 음주가라고 일컫는 상당히 큰 그룹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했었다. 그 의사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얼마나 다른가를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들은 만일 있다면, 이 알코올 중독자 그룹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결국 그 당시 A.A. 멤버들에게 충격을 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이 조사한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직 유치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하며, 과대망상적이라고 대담하게 말했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선고에 얼마나 분개했던가! 성인으로서의 우리의 꿈이 자주 유아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준 거친 난관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예민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느꼈다. 우리의 과대망상적 행동에 대하여는,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는 차원 높고 올바른 야망을 가진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은 가진 적이 없다고 우리는 주장했다.

여하튼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중 대부분은 그 의사들에게 동의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현명한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 명성과, 돈과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력이라는 것을 얻는 것을 인생의 사업으로 만듦으로 해서 이치에 맞지도 않는 두려움과 불안에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잘못된 교만은 “두려움”이라고 새겨진 파멸이라는 동전의 이면이 되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속 깊이 숨겨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제1인자가 되어야만 했다. 단편적인 성공을 하면, 이루어질 업적을 자랑했고, 패배 속에서는 괴로워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성공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우울해졌고 그리고 겁을 먹고 떨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열등”한 유형(類型)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음 깊이에서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늘 두려워하고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 망각에 빠질

때까지 술을 마셔, 삶의 가장자리에 앉았건 혹은 우리의 깊이나 능력을 넘어서 무모하고 제멋대로 뛰어들었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같았다. 우리 모두는 알코올이라는 바다 속으로 거의 사라질 뻔했다.

그러나 오늘날 잘 성숙된 A.A. 사람들 안에서, 이런 빠뜨어진 충동들은 그것들의 참된 목적과 방향으로 회복되었다. 우리는 자기과시를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명성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가족, 친구들, 사업 혹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로 인해, 우리는 널리 알려진 사랑을 받고 그리고 때때로 더 큰 책임과 신뢰의 자리에 혼자 격상될 때, 겸손히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 안에서 더욱 더 힘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참된 지도력이란 권력이나 혹은 명예의 헛된 과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쓸모 있고 깊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료들 사이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명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은 더욱 놀라운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빼어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 또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쁨으로 행하는 봉사, 정정당당하게 끝낸 의무, 잘 받아들인 문제들 혹은 신(神)의 도움으로 해결된 문제들, 집에서나 밖의 세상에서 우리는 공동 노력의 동반자라는 깨달음, 신(神)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이해, 값없이 준 사랑은 반드시 그만큼 돌아온다는 확증, 우리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홀로 있지도 않는 확실성, 둥근 구멍에 네모진 나무토막이 아니고, 신(神)의 계획에 잘 맞고 또 그에 속한다는 확신—이런 것들이 올바른 삶의 영구적이고 합당한 만족이며, 어떤 당당한 위풍이나 환경, 물질적으로 많은

소유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야망이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야망이란 쓸모 있게 살려는 깊은 열망과 그리고 신(神)의 은총 아래서 겸손히 살려는 열망이다.

A.A.의 12단계들에 대한 이 작은 연구는 이제 끝마무리에 왔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왔기에 A.A.는 주로 심한 곤경과 문제 해결로 구성된 듯이 보인다. 어느 정도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해결책을 발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우리는 그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방법을 나누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함으로써만,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세상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올바른 원칙과 태도에 대한 열쇠이며, 올바른 행동이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열쇠인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생활의 기쁨이 A.A.의 제12단계의 주제이다.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는 나날마다, 우리 모두는 A.A.의 간단한 기도의 내면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기를 바란다.

“신(神)이시여,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리고 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A.A.**

**12 전통**





# 제 1 전통

“우리의 공동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의 회복은 A.A.의 단합(unity)에 달려 있다.”

**A.** A.의 단합은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특성이다. 우리의 생명과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정확히 이 단합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전체로서 뭉치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A.A.는 죽는다. 단합 없이는 A.A.의 심장은 그 박동을 멈출 것이며, 우리의 전 세계적 동맥은 더 이상 생명을 주시는 신(神)의 은총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선물은 아무 목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술독으로 다시 들어가, 알코올 중독자들은 우리를 비난하며, “A.A.는 위대한 것일 뻔했어!” 하고 말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A.A.에서 개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개인은 그룹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 안에서 종속되고 맙니까?”하고 불안하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히 큰 소리로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 지구상에서 A.A.보다 더 개인 멤버들에게 헌신적으로 아낌없는 배려를 베푸는 공동체는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확실히 그 멤버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 말할 권리 그리고 행동할 권리를 더욱 빈틈없이 지켜주는 단체는 없다. 어떤 A.A. 멤버도 다른 멤버에게 그 무엇이든지 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아무도 처벌받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추방되지 않는다. 회복을 위한 12단계는 단지 제안하는 것이다. A.A.의 단합을 보장하는 12전통들도 “하지 말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반복해서 “우리는 ...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해야만 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을 위한 이 모든 자유는 무정부 상태로 이해된다. 모

든 초심자나, A.A.를 처음 대하게 된 모든 친구들은 매우 당황한다. 그들은 자유가 방종으로 기우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즉시 A.A.가 목적과 행동에서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무정부주의자들의 집단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이 그들의 공동 복리를 앞세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무엇이 그들을 함께 결속시키는가?”하고 그들은 묻는다.

면밀히 살펴본 사람들은 곧 이 신기한 역설의 열쇠를 발견한다. A.A. 멤버는 회복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의 생명은 실제로 영적 원칙에 대한 복종에 달려있다. 만일 그가 너무 멀리 벗어나면, 그 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나타난다. 그는 병들고 죽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따르지만, 나중에는 그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삶의 방식을 발견한다. 더 나아가 그는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주어 버리지 않으면, 그 선물을 계속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이건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건 A.A.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제12단계 실천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순간, 다른 또 하나의 발견이 이루어진다. 즉 대부분의 개인은 그룹이 **없다**면 회복할 수 없다. 그는 전체의 한 작은 부분이며, A.A.의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 희생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내면에서의 욕망과 야심의 부르짖음은 이것들이 그룹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배운다. 그룹은 살아남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룹으로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우리는 개인이 전체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 부(富)와 권력과 명성을 위한 투쟁은 전에 없이 인간성을 교란시켰다. 만일 강인한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을 추구함에 있어 교착상

태에 빠졌다면 우리 이상한 알코올 중독자들이야 그 무엇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한때 개인의 회복을 위해 싸우고 기도했듯이, 바로 그렇게 진지하게 A.A.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원칙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즉,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단체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수많은 도시와 시골에서 우리는 에디 리켄베커와 그의 용감한 친구들의 비행기가 태평양 가운데 추락했을 때의 이야기를 되풀이 했다. 우리처럼, 그들도 갑자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들 자신들을 발견했으나, 위험한 바다 위에 아직 떠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공동 복리가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물과 빵에 대해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참다운 힘을 발견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난과된 기체, 불확실성의 모든 시험, 고통, 두려움, 절망 그리고 비록 한 사람의 사망까지도 극복하는 차원의 힘을 발견했다.

이런 것이 A.A.에도 있어 왔다. 믿음과 실천으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의 교훈을 쌓아올 수 있었다. 그 교훈들은 A.A.의 12전통들 안에 오늘날 살아있고, — 신(神)의 뜻이라면 —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동안, 단합 안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

## 제 2 전통

“우리의 그룹 목적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이다. — 이는 우리 그룹의 양심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신(神)이시다 — 우리의 지도자는 신뢰받는 봉사자일 뿐이지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니다.

어디에서 A.A.는 그 지시를 받는가? 누가 A.A.를 운영하는가? 이것 또한 모든 친구나 초심자에게는 어려운 문제다. 우리의 단체가 그것을 다스릴 권위를 지닌 단체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어떤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회계도 없다는 것, 잘못된 멤버를 바깥의 어둠으로 내쫓을 간부 이사들도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어떤 A.A.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복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들었을 때, 우리의 친구들은 “이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어딘가에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숨 막힌 듯 소리 지른다. 이 실질적인 사람들은 그 다음 제2전통을 읽고, A.A. 안에서의 유일한 권위는 그룹의 양심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랑 많으신 신(神)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잘 되어 가는지를 경험 많은 A.A. 멤버에게 의심에 차서 묻는다. 모든 면에서 사려 깊어 보이는 그 멤버는 즉각 “예! 그것은 확실히 잘 되어갑니다.”하고 대답한다. 그 친구들은 이것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고지식하게 보인다고 중얼거린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하고, A.A.의 역사의 부분 부분을 듣고는 곧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된다.

분명히 비현실적인 이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A.A. 생활의 이런 사실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훌륭한 A.A. 멤버인 존 도우 씨는 미국의 미들 타운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한다. 이제 홀로된 그는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주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도움이 미칠 수 있는 거리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영적, 윤리적 강박을 느낀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의 홈 그룹을 그리워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그도 그들을 필요로 한다. 그는 성직자, 의사, 편집자, 경찰 그리고 바텐더 등을 방문하고... 그 결과 미들 타운에는 하나의 그룹이 생기고, 그는 창립자가 된다.

창립자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대표가 된다. 그 밖에 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곧 바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부여받은 그의 권위는 그가 도움을 준 첫 알코올 중독자와 나누어 갖기 시작한다. 이 때 그 친절한 독재자는 그의 친구들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그룹의 봉사체계이다 — 물론 자칭인데,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개월 이내에 미들 타운에서 A.A.는 크게 자란다.

창립자와 그의 친구들은 초심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전하고, 모임 장소를 빌리고, 병원 메시지를 정하고, 부인들에게 많은 커피를 끓여 달라고 간청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창립자와 그의 친구들은 약간의 자랑 속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서로 간에 “우리가 이 타운의 A.A.에 강력한 손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 게다가, 우리가 이 술꾼들에게 한 모든 좋은 것을 보시오. 그들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창립자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이보다는 때때로 더 현명하고 더 겸손하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는 그들은 자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성장기의 고통이 그룹에 생긴다. 거지인 사람들은 구걸을 하고, 고독한 사람은 낫두리를 한다. 문제들은 눈사태처럼 밀어닥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체 내에 속삭임이 들리다가 큰 소리로 커진다. “고참

자들은 이 그룹을 영원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선거를 하자!” 그 창립자와 그의 친구들은 상처를 받고 우울해진다. 그들은 한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한 멤버에게서 다른 멤버에게로 호소하며 뛰어 다닌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고, 혁명은 시작되었다. 그룹의 양심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가 시작된다. 만일 그 창립자와 그의 친구들이 잘 봉사를 했다면 그들은 —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 당분간 재선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상응하는 민주적인 흐름에 심하게 저항한다면, 그들은 즉석에서 자리를 잃을 것이다. 어떤 경우건 그 그룹은 그 권위를 매우 심각하게 제한하여 소위 교체 위원회를 이제 갖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건, 그 멤버들이 그 그룹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 그들은 봉사자들이다. 그들의 할 일은 때때로 감사할 일도 없는 특권으로서 그룹의 잡다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대표자의 주관 아래 그들은 홍보 활동을 살피고, 모임을 준비한다. 엄격히 책임을 진 그들의 회계는, 돌려진 모금 통에서 돈을 받아, 은행에 넣고, 집세와 그 밖의 대금을 지불하고 비즈니스 모임에서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 서기는 인쇄물이 책상에 있는가를 살피고, 전화 응답 봉사를 보살피고, 우편물에 응답하고 모임의 알림서를 보낸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그룹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간단한 봉사들이다. 그 위원회는 어떤 영적 충고도 하지 않고, 아무의 행동도 심판하지 않으며,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런 것을 시도하면, 다음 선거에서 그들 모두가 즉각 제거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상원의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봉사자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경험들이다. 그러므로 A.A. 전반을 통해 그룹의 양심이 그 지도자들이 봉사할 기간을 정한다.

이는 “A.A.는 참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바로 가져온다. 그 답은 가장 단호히 “예, 비록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

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다.”이다. 다시, 그 쫓겨난 창립자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 생각을 돌려보자.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슬픔과 불안이 가라앉으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두 개의 계층 즉 A.A. 속어로 ‘훌륭한 선배 지도자’와 ‘피 흘리는 집사’로 나뉜다. 훌륭한 선배 지도자란 그룹 결정의 지혜를 뚫어보는 사람이며, 자신의 낮아진 지위에 원한을 갖지 않으며, 그의 상당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건전하고, 곁에서 조용히 앉아 기꺼운 마음으로 그룹의 발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사람을 말한다. 피로운 집사란 그룹이 자기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매우 굳게 확신하는 사람이며, 사무직에 재선이 되도록 끊임없이 공모(共謀)하고,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을 말한다. 그 중 몇몇은 출혈이 심하여 — A.A.의 정신과 원칙은 모두 잊고서 — 술을 마시고 만다. 때때로 A.A.의 모습은 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어질러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 단체의 거의 모든 고참자는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다행히 그들 중 대부분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훌륭한 선배 지도자가 되기 까지 살고 있다. 그들은 A.A.의 참되고 영구한 지도자가 된다. 그들이 지닌 것은 조용한 의견, 확실한 지식 그리고 위기를 해결하는 겸손한 본보기인 것이다. 난처하게 되었을 때, 그룹은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조언을 구한다. 그들은 그룹 양심의 목소리가 된다. 사실 이것이 A.A.의 참 목소리다. 그들은 명령으로 몰아치지 않으며, 본보기로 이끌어 나간다. 이것이 그룹의 선배들에 의해 잘 조언을 받은 그룹의 양심이, 길게 볼 때 어느 한 지도자보다 더 지혜롭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경험이다.

A.A.가 겨우 3년쯤 되었을 때, 이 원칙을 실증하는 한 사

건이 발생했다. A.A.의 초창기 멤버 중의 한 사람은, 전혀 그 자신의 욕구에 반해, 그룹의 의견에 따라야 했다. 여기 그 자신의 말에 따른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뉴욕의 한 병원에서 나는 제12단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자인 찰리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빌, 나는 당신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주위의 이 모든 술꾼들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일에 모든 시간을 내면서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찰리는 그의 책상을 뒤져서 하나의 오래된 재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내게 건네면서 ‘이것은 지난 1920년대에 이 병원이 벌었던 돈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매달 수천 달러이지요. 지금도 그 정도는 벌고 있어야 하는데 - 당신이 돕기만 한다면 -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무실, 적절한 인출 계좌, 그리고 이윤의 상당 부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삼 년 전에 나의 우두머리 의사 실크워즈가 술꾼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돕는 아이디어를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었으나 마음을 바꿨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이 지난날의 술꾼들 무리가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득 메울 것인데, 그 반면 어째서 당신이 굶주려야 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완전히 윤리에 맞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직업적인 성공적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찰리의 제안이 얼마나 윤리적인가를 알 때까지는 나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직업적 상담자가 되는데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숙비를 내지 않으며 집을 메운 술꾼들을 위해 오로지 저녁 식사를 요리하려고, 매일 백화점에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루이스를 생각했습니다. 증권가에



아직 지고 있는 많은 빛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나의 알코올 중독자 친구들 중 몇몇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들만큼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비록 내가 찰리에게 약간의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내 마음은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지하철로 브룩클린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신의 인도처럼 느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수궁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자는 그가 일한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그 음성은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 명의 술꾼이 굶주려서 부엌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가 전처럼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 옆으로 가까이 가서 그 놀라운 뉴스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보였으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모임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무도 술을 끊은 것 같지 않았으나, 다른 몇몇은 술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부인들과 함께 그들은 아래층 응접실에 가득했습니다. 곧바로 나는 나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불현듯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그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기가 식어지면서 나의 이야기는 점차 약해지며 끝을 맺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거의 머뭇거리며,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궁핍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매우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음성은 좀 더 확신에 찼습니다. ‘당신은 결코 전문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찰리가 우리에게 관대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그의 병원이나 혹은 다른 어떤 병원과도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찰리

의 제안이 윤리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윤리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윤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훌륭해야만 합니다. 확실히 찰리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아무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변자가 계속 말하는 동안 나의 친구들은 도전적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빌, 당신은 바로 이 모임에서 때때로 선한 것(善)은 최선(最善)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게 그룹의 양심은 말했습니다. 그룹이 옳았고 나는 틀렸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들은 그 목소리는 신(神)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의 친구들에게서 샘솟은 것이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경청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복종했습니다.”

## 제 3 전통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A.A.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이 전통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A.A.는 모든 심한 음주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A.A. 멤버라고 말하면, 당신은 멤버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당신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건, 당신의 감정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건 — 당신의 범죄까지도 — 우리는 당신이 A.A. 멤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제외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빠뜨어지고 혹은 얼마나 폭력적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주를 위한 똑같은 기회를 갖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A.A. 멤버입니다.”

멤버 자격에 대한 이 원칙을 수립하는데 몇 년 동안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우리의 초기 시절에, A.A. 그룹만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도 없었다. 우리가 접근한 알코올 중독자 중 한 명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우리에게 합류한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폭풍 속의 흔들리는 촛불과 같았다. 여러 번 그들의 불꽃은 꺼졌고 다시 불붙일 수 없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은 “다음은 우리 중 누구일까?”하는 것이었다.

한 멤버가 그때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한때, 모든 A.A. 그룹은 멤버가 되기 위한 많은 규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보트를 뒤집어 우리 모두를 다시 술 속으로 던져 놓지나 않을까 모

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본부 사무실은 각 그룹에게 그 그룹의 ‘보호 규정’의 목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아진 전체 목록은 1마일은 되게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만일 그 모든 규칙이 모든 곳에서 실시되었다면, 누구도 A.A.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었을 만큼, 우리의 총체적 불안과 두려움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수한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명명한 가상의 인간 계층 외에는 아무도 A.A.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폭음, 그리고 그로 인한 불운한 결과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다른 어떤 합병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부랑자, 정신병원 수용자, 죄수, 동성연애자, 단순 정신병자, 윤락녀들은 절대 배제되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하고 존경 받을만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만 맞추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망칠 것입니다. 그밖에, 만일 우리가 그 이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점잖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A.A. 주위에 그물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은 웃기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들은 우리 선배들이 매우 관용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웃을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정이 위협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냉혹했고 그리고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용이 모자랐다고 당신들은 말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두려웠지요. 자연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울 때에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불관용의 참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그 모든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는가? 이 수천 명의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놀라운 회복을 하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일꾼이 되며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되

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A.A.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이혼율을 갖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에 그 문제의 사람들이 인내와 관용을 가르치는 우리의 주된 스승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까? 당시 그 누가 상상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인물을 포함한 단체, 그리고 모든 인종, 신앙, 정치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쉽게 넘어설 단체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결국 A.A.는 그 모든 멤버가 되는 규정을 없앴을까? 어째서 우리는 각 초심자 그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가 우리에게 합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그들에게 맡겼을까? 어째서 우리는 세계 도처의 다른 단체나 정부의 경험에 반(反)해, 우리는 어떤 A.A. 멤버에게도, 처벌도 회원 자격 박탈도 하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무엇이든 지불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어느 것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며 혹은 아무것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하는가?

이제 제3전통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답은 단순함 바로 그것이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때때로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거나, 자주 끝없는 불행으로 그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경험이 드디어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 누가 감히 자신의 병든 형제를 심판하고, 심사하고, 사형 집행자가 되겠는가?

그룹마다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그들은 결국 모든 멤버에 대한 규정을 버렸다. 이것이 우리 전체의 전통이 될 때까지는 극적인 경험들이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여기 그 두 가지 예를 보자.

A.A.가 설립된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그 당시에는 살아남으려 투쟁하는 이름 없는 그룹 두 개가 있었을 뿐이었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빛을 향해 얼굴을 쳐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 중 한 그룹에 어떤 초심자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기를 요청했

다. 그는 그 그룹의 가장 오래된 멤버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곧 본인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당신의 그룹에 합류토록 하겠습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보다도 더 고약한 중독의 희생자인데, 아마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 주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입시켜 주시겠습니까?”하고 그는 물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오래된 멤버는 다른 두 멤버를 불렀고, 은밀히 그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 앞에 내어놓았다. “글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그는 곧 죽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오직 신(神)만이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대답이 돼야 합니까? 예 혹은 아니요?”하고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그 오래된 멤버들은 반대 이유 쪽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만 상대합니다. 다수를 위해 이 한 사람을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요?”하고 그들은 말했다. 그 초심자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은 채, 그렇게 토론은 계속되었다. 그때 그들 셋 중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냈다. “우리가 실제로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의 평판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한 사람이 가져올지 모르는 문제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할까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다섯 단어가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계속 ‘신(神)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더 이상 없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었겠는가?

기쁨에 넘쳐, 그 초심자는 제12단계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A.A.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초창기 그룹이 있었으므로, 그 숫자는 수천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다른 어려움으로 어떤 이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A.A.는 제3전통을 만드는 첫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중독을 가진 사람이 가입을 위해 문을 두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에드라고 부르는 판매원을 다른 A.A. 그룹이 멤버로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어떤 판매원이든 그럴 수 있는 이상으로 활동적이고 성급했다. 그는 A.A.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 최소한 매 일 분마다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그가 자동차 광택 약을 분배할 때와 같은 열정으로 동료 멤버들에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팔기에 적당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에드는 무신론자였던 것이다. 그의 이 강박은 A.A.에 그 “터무니없는 신(神)”이 없다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호통치고 다녔고, 사람들은 전부 그가 곧 술을 마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당시 A.A.는 신앙적인 측면이 강했다. 신성모독에 대한 무거운 형벌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충분히 고통스럽게도, 에드는 단주를 유지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가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가 왔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기에 우리는 떨었다. 그는 A.A. 친목에 찬사를 보내고, 그의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합쳤는지를 이야기했고, 정직의 미덕을 격찬했다. 그는 제12단계 실천의 기쁨을 회상했고, 그러고 나서 그는 분위기를 떨어트렸다. “나는 이 신(神)이라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허튼소리입니다. 이 그룹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갖지 않겠소! 빌어먹을!”하고 에드는 외쳤다.

분노에 찬 분위기가 모임 장소를 휩쓸었고, 모든 멤버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그를 내보내시오!”

오래된 멤버가 에드를 옆으로 불렀다. “당신은 여기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드는 엄청난 비웃음을 갖고 그들에게 돌아왔다. “다시 말해 보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책 선반에다가 가서 중

이 멍치 한 다발을 꺼냈다. 그 종이 위에 그 당시 준비 중에 있던 A.A. 책자의 서문이 적혀 있었다. “A.A.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술을 끊으려는 열망뿐이다.”라고 그는 큰 소리로 읽었다. 그는 가차 없이 “당신들이 그 문장을 쓸 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고 계속 말했다.

당황한 채, 오래된 멤버들은 자신들이 틀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래서 에드는 남아 있게 되었다.

에드는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단주를 하고 있었다 -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도록. 술 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신(神)에 대한 거부의 소리를 더 크게 말했다. 그룹의 고민은 너무 깊어서 형제와 같은 모든 사랑은 사라졌다. “아, 언제나 저자가 술을 마실 것인가?”하고 멤버들은 서로 불평했다.

한참 후에, 에드는 판매 사업 일로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서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돈을 보내 달라는 전보를 쳤고, 모두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다음 그는 전화를 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가망이 없을지라도 제12단계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든 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그 작자를 그냥 덥시다! 이번은 그가 혼자서 해 보도록 내버려 덥시다. 어찌면 교훈을 얻겠지요!”

약 2주 후, 밤중에 에드는 한 A.A. 멤버 집에 몰래 들어왔고, 그 가족들 모르게 침대로 갔다. 아침이 왔고 집 주인과 친구가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층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놀라움 속에서 에드가 나타났다. 그의 입술에 야릇한 미소를 띠고, “당신들은 아침 명상을 했습니까?”하고 말했다. 그들은 곧 그가 진지함을 느꼈다. 단편적으로 그의 이야기가 나왔다.

옆 주(州)에서, 에드는 싼 호텔에 들어갔다. 결국 도움을 청하는 그의 모든 호소는 거절당했고, 흥분한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말이 울렸다.



“그들은 나를 저버렸다. 나는 나의 동료들에 의해 버림을 당했다. 이제  
는 끝장이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가 침대에 몸을 던졌을  
때, 그의 손은 옆에 있는 책상을 쓸었고 하나의 책을 건드렸다. 그 책  
을 열고 그는 읽었다. 그것은 기묘한 성경이었다. 에드는 더 이상 그  
가 그 호텔 방에서 보고 느낀 것을 결코 고백하지 않았다. 그것은  
1938년이였다. 그는 그 이후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

요즘에는 에드를 아는 오래된 멤버들이 모여서는, “만일 우리가  
에드를 신성모독으로 내쫓는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며, 후에 그가 도왔던 다른 모든 이들은 어떻  
게 되었을까?”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신(神)의 손은 초기에 우리에게 하나의 징표를 주셨는데, 그  
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스스로 말하면, 어떤 중독자도 우리 단체의 멤  
버인 것이다.

## 제 4 전통

“각 그룹은 다른 그룹이나 A.A.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율적이어야 한다.”

자 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다. 그러나 우리와 관련해서 자율이란 매우 간단하다. 즉 A.A. 전체가 위협받지 않는 한, 모든 A.A. 그룹은 각 그룹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의 문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제1전통에서 제기되었던 같은 질문이 나온다. 그와 같은 자유는 어리석게도 위험하지 않은가?

수년 동안에 걸쳐, 12단계들과 12전통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탈선이 시험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주로 자만으로 가득 찬 개인주의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혼돈에 빠진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다치지 않고 그리고 더 똑똑해질 것만을 생각하면서, 반항적으로 모든 종류의 불장난의 위험한 짓을 해 왔다. 바로 이런 탈선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신(神)의 은총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현재의 상태에까지 이끌어왔다.

A.A.의 전통들이 1946년 처음 출판되었을 때, 어떤 A.A. 그룹도 아무리 많은 혹평도 견딜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개인과 똑같이, 그룹도 생존을 보장하는 어떤 시험을 거친 원칙들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시행착오의 과정 안에 온전한 안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에 확신을 갖고서 다음과 같은 의미 깊은 문장을 A.A.의 원래 전통에 넣었다. “그룹으로서 그들이 다른 단체와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두 명 또는 세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기 위해 모여서 그들 자신을 A.A. 그룹이라고 불리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각 A.A. 그룹은 독립적 존재며, 그 자체의 그룹 양심만을 행동 지침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선언할 만큼 우리가 용기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거대한 범위의 자유를 도입함에 있어, 우리는 다만 두 가지의 명심해야 할 전제가 필요한 것을 발견했다. 하나의 그룹은 전체로서의 A.A.를 크게 해를 입힐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룹은 어떤 것 혹은 어느 누구와도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그룹을 “음주 모임”이라 부르고 다른 그룹을 “단주 모임”이라 부르며, 또 다른 그룹을 “공화당 모임” 혹은 “공산당 모임”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가톨릭 모임” 혹은 “신교 모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정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A.A. 그룹은 그 자체의 목적에만 충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망 없이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단주가 그룹의 유일한 목적이다. 모든 다른 면에서는 완전한 의지와 행동의 자유가 있다. 모든 그룹은 잘못될 자유가 있다.

A.A.가 아직 초기였을 때, 열성적인 그룹이 많이 생기고 있었다. 우리가 미들톤이라고 부르는 도시에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모임을 시작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모임에 대해 폭죽만큼이나 열성적이었다. 몽상하듯, 오래된 멤버들은 혁신을 꿈꾸었다. 그들은 모든 곳의 A.A. 그룹들이 복제할 수 있을 그런 시험공장 같은 훌륭하고 커다란 알코올 센터가 필요하다고 구상했다. 1층에서부터 시작해, 그 층에는 클럽을 두고, 2층에는 그들이 술꾼들을 술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현찰을 빌려주고, 3층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곳을 마련하는 -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상상 속에서 그 빛나는 센터는 몇 층을 더 올라갈 것이었으나, 3층이 시작으로서는 충분할 것이었다. 이것은 많은 돈이 들 것이며 - 다른 사람들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믿건 안 믿건, 돈 많은 마을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 중 그 계획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뉴욕에 있는 A.A. 본부에 편지를 보내어, 이런 종류의 능률화 안(案)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그들은 오래된 멤버들이 그 일을 확정 지으려 곧 본부에 특허장을 신청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소수 몇몇은 혼란스러워했고 또 회의적이었다.

물론 그 계약을 위해 한 추진자가 있었고 - 그는 대단한 추진자였다. 본부는 특허장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과, A.A. 그룹을 의료나 교육과 혼합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난처한 결과를 초래했던 경험들에 대한 본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훌륭한 연설로 모든 두려움을 진정시켰다. 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그 추진자는 세 개의 법인(法人)을 조직했고, 그 세 법인의 회장이 되었다. 새로 페인트칠을 한 그 센터는 빛났다. 도시 전체는 열기에 휩싸였으며, 센터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속적인 활동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61가지의 규칙과 규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밝은 모습은 오래지 않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혼란이 평온함을 대신했다. 어떤 술꾼들은 교육받기를 열망했지만,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떤 사람들의 성격상 결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돈을 빌려줘야 할지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클럽에 관심을 쏟았으나, 그것은 다만 고독한 마음을 달래려는 것뿐이었다. 때때로 몰려오는 신청자들이 3개 층을 모두 돌아다녔다. 어떤 사람들은 클럽 멤버가 되기 위해 맨 위층에서 시작해 아래층까지 내려왔고, 다른 이들은 클럽에서 시작해, 주연을 마련하고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리고 3층에서 교육을 마쳤다. 그것은 활동하는 별집과 같았으나, 별집과는 달리 혼란의

극치였다. 그와 같이, A.A. 그룹은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파열이 왔다 - 어떤 공장에서의 보일러가 터진 것과도 같은 폭발이었다. 두려움과 좌절의 싸늘한 유독가스가 그룹을 뒤덮었다.

그것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우두머리 추진자가 본부에 편지를 썼다. 그는 그가 A.A.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썼다. 그리고 나서 그는 A.A.의 모범이 된 어떤 것을 했다. 그것은 골프 점수를 기록하는 크기의 작은 카드였는데, 그 겉에, “미들톤 그룹 #1, 규정 62.” 그 카드를 열면 단 한 줄의 충고의 글이 눈에 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말라.”

그렇게 제4전통 아래서 A.A. 그룹은 그 자체의 잘못될 권리를 행사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A.A.에 커다란 봉사를 행했다. 왜냐하면 A.A.가 그 배운 바 교훈을 겸손히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웃어넘기고 그리고 보다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갔다. 그 우두머리 설계사까지도 그의 망쳐진 꿈 가운데 서서, 자신에 대해 크게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의 극치인 것이다.

## 제 5 전통

**“각 그룹의 유일한 목적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구** 두를 만드는 이여, 구두를 만드는 일에 충실하라.” 많은 것을 엉망으로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아주 잘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 전통의 중심이 되는 주제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단체가 단합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우리 친목의 생명은 이 원칙의 보존을 필요로 한다.

A.A.는 암에 대한 치료를 발견한 한 그룹의 의사들에 비유될 수 있고,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해결책은 그들의 협조적 공동 작업에 달려있다. 물론, 그 그룹의 각 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을 것이다. 관련된 모든 의사는 때때로 그 그룹과 함께 일하기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사람들이 치유책을 발견하고, 그들의 합동 노력에 의해서만 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들 모두는 암을 치유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와 같은 기적적인 발견의 기쁨 속에서, 어떤 의사이든 개인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자신의 다른 야망을 제쳐놓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도울 수 없는 문제의 술꾼들을 그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A.A.의 멤버들이 그 책임감에 속박된 것과 똑같다. 자신을 초심자들과 동일시하며, 또 그들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각 A.A. 멤버의 특별한 능력은 결코 그의 학식, 웅변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개인적 재능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주에 필요한 열쇠를 발견한 하나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이다. 이 고통과 회복의 유산은 알코올 중독자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쉽게 전해진다. 이것은 신(神)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그것을 우리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A.A.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큰 목적인 것이다.

이렇게 유일한 목적만을 갖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A.A.의 위대한 역설인 바, 즉 우리가 받은 선물을 주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주의 선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한 그룹의 의사들이 암 치료법을 소유했는데, 그들이 이기적인 이유로 그들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태만은 그들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일 아직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면 거기에는 자신의 생명과 본정신에 끊임없는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런 자기 보존과 의무와 그리고 사랑의 충동으로 인해, 우리 단체가 오직 단 한 가지 사명-해결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 을 갖기로 결정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A.A.의 유일한 목적의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 한 멤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불안한 어느 날, 나는 내가 제12단계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나는 재발에 대한 약간의 보험을 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대상이 될 술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타운스 병원에 갔고, 거기서 실크워즈 박사에게 장래에 A.A. 멤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별로 희망은 없지만, 3층에 가능성이 보이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거친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완고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가 그를 좀 더 잘 대해주고, 부인이 자기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곧 자신의 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심한 섬망증이 있었고, 매우 몽롱하며 그리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와 일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하고 그 고마운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곧 몸집이 매우 큰 한 사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연코 불친절하게, 그는 붉고 부어 오른 얼굴의 가느다란 눈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그가 확실히 좋지 않게 보인다는 의사의 의견에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친목이 얼마나 놀라운지, 서로 간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나는 술꾼이 갖는 곤경의 절망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나는 술꾼들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으나, 우리의 그룹에서는 우리가 각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내 말을 막고 아내, 동료, 그리고 알코올 중독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정거리며 ‘당신의 계획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전혀 안 듭니다.’하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다음 질문은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얻습니까?’였습니다.”

“나의 응답은 물론 ‘나 자신의 단주와 매우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에 차서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오로지 나를 돕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도우려고 왔다는 것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예, 단연코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약간 머뭇거리면서, 나는 우리 프로그램의 영적인 면을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그 술꾼이 얼마나 간담을 서늘케 했는지! 내가 ‘영



적'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오! 이제 알겠소! 당신은 나를 어떤 빌어먹을 종교나 종파에 개종시키려 하는 것이군요. 다른 뜻이 없다고요? 나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 독실한 신자라구! 내게 와서 당돌하게 종교에 대해서 말하다니' "

"다행히 나는 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A.A.의 유일한 목적에 대한 솔직한 솔회였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일지 모릅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 나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나는 종교에 대해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확인하건대, 당신은 제게 겸손에 대한 정의를 완전하게 내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내게 말한 것으로부터 나는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말해보세요'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만심에 가득 찬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말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해지면서, 내가 그에게 겸손이 단주의 열쇠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그의 종교적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았고, 그의 회복에 도움을 줄 은총을 그 자신의 종교 안에서 발견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잘 해 나갔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종교적인 바탕에서 말하려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나의 대답이 A.A.는 많은 돈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A.A.는 교육, 병원 그리고 재활에도 관여한다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의 가정과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없었을 것입

니다.”하고 그 오래된 멤버는 말했다.

몇 년 후 이 거친 아일랜드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 “나의 후원자는 나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팔았지요. 그것은 단주였지요. 그 당시 나는 그 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제 6 전통

“A.A. 그룹은 관계 기관이나 외부의 기업에 보증을 서거나 용자를 해주거나 A.A.의 이름을 빌려주는 일 등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이나 재산, 명성의 문제는 우리를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그 순간,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당시 그렇게 보였었다.) 많은 사람들이, A.A.는 사업에 손 댈 수 있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전 분야에서 어떤 기업에 용자를 해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우리는 A.A.의 이름의 모든 중요성을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여기 몇 가지 우리가 꿈꾸었던 일들이 있다. 병원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일련의 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는 대중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하고, 학교와 의학 교과서들도 다시 써야 한다. 우리는 불량자들 중에서 낙오자를 모아 그 중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격리된 어떤 종류의 감금된 장소에서 그들의 생활비를 버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쨌면 이런 곳들은 우리의 다른 좋은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법률을 다시 제정해, 알코올 중독자는 병든 사람들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생각했다. 더 이상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판사들은 그들을 우리의 보호 아래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A.A.를 마약 중독과 범죄의 어두운 지역

에 퍼트려야 한다. 우리는 우울증과 피해망상증 환자들의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정신 질환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좋다. 그 이유는 알코올 중독이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공장에 가져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의 단호한 정직성은 정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손은 종교 쪽에 다른 한 손은 의료계에 뻗어 그들의 차이점을 해결할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웠으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아마 우리는 A.A.야말로 새로운 정신운동의 선봉이며, 세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A.A.의 우리는 그런 꿈들을 꿈꾸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결판이 난 이상주의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일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훌륭한 선(善)을 행하고, 위대한 행동을 실현하고, 그리고 위대한 이상을 품기를 원했다. 우리 모두는 완벽주의자들이나, 완벽함은 결여한 채 그것과 동떨어진 극단으로 흘러 술병과 의식 상실을 택했다. A.A.을 통해서 신(神)의 섭리는 우리를 최고의 기대치에 도달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모든 사람과 나누어 갖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인가?

그 후에 우리는 병원을 시도해 보았으나, A.A. 그룹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수렁으로 빠졌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다. A.A. 그룹이 교육에 매진했고, 그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좋은 점을 떠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A.A.는 술꾼을 회복시키는가 혹은 교육 프로젝트인가? A.A.는 영적인 것인가 혹은 의학적인 것인가? 그것은 개혁 운동인가?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들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으나 여하튼 모든 종류의 사업에 연관되게 된 것을 알았다. 좋은 싫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도소나 혹은 정신 병동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A.A.는 법사 위원회 방에서 책상을 치기 시작했으며 법적 개혁을 위해 흥분했다. 그것은 신문 표지를 장식했으나, 그 외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곧 우리가 정치에서도 곤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 비록 A.A. 안에서 우리는 클럽이나 제12단계 운동을 하는 건물에서도 A.A.의 이름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모험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와 관계있는 어떤 기관도,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추천할 수 없다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다. 우리 A.A.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좋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노력해서도 안 된다.

몇 년 전에 이 “추천 불가”의 원칙이 중요한 시험을 받았다. 큰 주류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알코올 교육 분야에 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주류 업계가 사회적 책임감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술이란, 즐길 것이지 남용할 것이 아니며, 술을 많이 마시는 술꾼은 술을 줄여야 하고 문제의 술꾼 — 알코올 중독자 — 은 술을 전혀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기를 원했다.

그 주류 업계의 한 협회에서 어떻게 이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라디오, 신문 그리고 영화를 이용할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 일을 주관할 것인가? 그들은 즉각 A.A.를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중에서 섭외 활동에 적절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안성맞춤이 아니겠는가? 그는 틀림없이 문제점을 잘 알 것이다. 그 사람이 갖는 A.A.와의 관계는 매우 가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A.A.는 대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이 세상

에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필요한 경험을 갖춘 한 A.A. 사람을 발견했다. 곧 바로 그는 뉴욕의 A.A. 본부에 나타나서, “내가 이와 같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 안에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교육은 제게 좋은 것처럼 보이며,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하고 물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것은 좋은 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심이 일어났다. 그 협회는 우리 멤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는 섭외 부장으로 소개될 것이며 그리고 A.A.의 멤버로 소개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협회가 한 A.A. 멤버를 그의 섭외 능력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의 지식 때문에 그를 고용했다면 어떤 반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한 A.A. 멤버가 공적으로 그 이름을 꺼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A.A.라는 이름을 수백만의 마음속에서 이 특정한 교육 프로젝트와 연결시켜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A.A.가 주류 업계의 방식으로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것임에 틀림 없게 되었다.

그 문제가 지닌 해로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그 미래의 섭외 부장에게 이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물어보았다. “큰일이군요!, 물론 나는 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광고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주 단체로부터 무서운 비명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산**에 맞는 종류의 교육을 선전할 성실한 A.A.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A.A.는 곧 바로 단주와 금주의 논란의 한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절반은 우리가 단주와 결탁했다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음주와 합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웬 난리이겠습니까?”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일을 맡을 법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하고 우리는 그에게 지적해 주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A.A.는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니 그것이 우선입니다. 나는 A.A.를 큰 혼란 속에 빠트리는 사람은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A.A.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추천에 관련하여, 이 친구가 한 말이 전부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 자신을 제외한 어디에도 A.A. 이름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제 7 전통

“모든 A.A. 그룹은 외부의 기부금을 사절하며,  
전적으로 자립해 나가야 한다.”

자립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누가 언제 그런 것을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장차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안다. 이 원칙이 곧 A.A.가 우리들 모두 안에 새겨놓은 뜻깊은 변화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다고 술을 마시며 외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항상 우리는 손을 내밀고 있다. 돈에 관한 한 헤아릴 수 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 왔다. 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그 비용을 자체로 지불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참으로 화젯거리가 될 것이다.

아마도 다른 어떤 전통도 이 전통만큼 진통을 겪은 것은 없을 것이다. 초기에는 우리 모두가 무일푼이었다. 여기에다 술을 끊으려고 애쓰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사람들이 돈을 주어야 한다는 습관적인 측면을 보탠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돈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A.A.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매우 이상하게도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술을 끊었으니 우리 자신의 것을 지불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자급해야 하므로 가난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의 집단적인 가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12단계 일들에는 아낌없이 소비하면서도, 그들은 그룹 목적을 위해 모임 장소의 기부금 통에 돈을 넣는 것에는 심한 혐오감을 지닌 것



이 곧 분명해졌다. 우리는 우리가 나무의 껍질처럼 옅색한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A.A.의 개인들은 변성하는 반면, 그렇게 A.A.와 그 운동은 시작부터 무일푼이었고 그리고 무일푼으로 남아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것을 증명한다. A.A.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매우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서 A.A.는 전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당신들은 A.A.와 돈을 혼합하지 말라.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우리가 이런 새롭고 강력한 방침을 택한 것은 곳곳에서 멤버들이 A.A.와의 연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시도했으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용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감사에 찬 독지가가 클럽 하우스를 내주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문제에 외부의 간섭이 있기도 했다. 우리는 병원을 선물로 받았고, 거의 즉각적으로 그 기부자의 아들이 주된 환자가 되었고 장차의 운영자가 되는 것이었다. 한 A.A. 그룹은 5,000 달러를 그 그룹이 원하는 대로 쓰도록 기부를 받았다. 그 큰돈에 대한 논란은 몇 년 동안 쑥밭을 만들었다. 이런 분규에 놀라서, 어떤 그룹은 재정 금고에 일전도 남겨두지 않으려 했다.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A.가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했다. 모이는 장소는 비용이 든다. 소용돌이로부터 전체를 구하기 위해,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고, 전화가 설치되어야 했으며, 몇 명의 비서들이 고용되어야 했다.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성취되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일하러 오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이런 간단한 봉사도 우리가 지불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약간의 돈을 요했다. 드디어 큰 동요는 흔들림을 멈추었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제7전통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관해서, 빌 씨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이야기를 전하기를 좋아한다. 1941년, 잭 알렉산더의 *셋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가 기사를 실었을 때, 정신이 혼란한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의 수천 통의 편지들이 뉴욕의 본부 편지통에 쇄도했던 것을 그는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사무실 직원은 두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은 헌신적인 비서였고, 그리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산사태처럼 밀려오는 호소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A. 그룹들에게 자발적인 기부금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의 멤버가 1년에 1달러를 보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슴 아픈 우편물에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룹들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우편물을 바라보면서, 동료 멤버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구두쇠일 수 있는가를 투덜거리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오랜 친구가 형클어진 난발로 그 머리를 문에 디밀었습니다. 그는 자주 재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심한 숙취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숙취를 기억하면서 내 가슴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에게 안쪽의 내 방으로 오도록 손짓을 해서 그에게 5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주급이 30달러였으니, 이는 상당히 큰돈이었습니다. 로이스는 식료품을 위해 그 돈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나를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친구 얼굴에 퍼지는 안도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본부에 1달러를 보내지 않는 그 모든 전(前)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기쁜 마음으로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 5달러를 투

자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특별히 도덕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은 뉴욕의 오래된 24번가의 클럽 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회계를 맡은 사람은 그 클럽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운지를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과 A.A.를 관련시키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 만일 우리가 집세를 다 못 내면, 집 주인은 우리를 내 보낼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기부금 통에 좀 더 많이 넣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로 자신의 말을 끝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초심자를 변화시키려고 열성으로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매우 평범하게 듣고 넘겼습니다. 그 기부금 통은 내 앞으로 왔고,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여전히 미래의 멤버와 이야기하면서, 주머니를 더듬어 50전짜리를 꺼냈습니다. 어쩐지 그것은 매우 큰 동전으로 느껴졌습니다. 급히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 10전짜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부금 통에 떨어트릴 때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무렵에는 지폐를 기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의 관대함을 자랑했던 내가 나의 클럽을 오히려 본부에 돈 보내는 것을 잊어버린 멀리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재발자에게 5달러를 선물로 준 것은 자만심의 발로였으며, 그것은 그에게도 좋지 않고 내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A. 안에 돈과 영적인 것이 혼합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부금 통입니다!”

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1948년 어느 날 밤, 본부의 임원들이 그들의 분기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떤 숙녀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녀의 유언장이 낭독되었을 때, 그녀가 A.A. 본부에 1만 달러를 기부해 놓은 것이 알려졌다. 문제는 ‘A.A.가 그 선물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였다.

그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심한 논쟁을 벌였는지! 바로 그때, 본부는 실제로 매우 재정적으로 힘들었다. 그룹들은 사무실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돈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책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밀어 넣고 있었고,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못했다. 예비금은 봄날의 눈 녹듯 했다. 우리는 그 1만 달러가 필요했다. “아마도 그룹은 결코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실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돈을 받으시다. 그리고 미래에 그런 모든 기부금을 받으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하고 어떤 이들이 말했다.

그러나 반대가 나왔다. 본부 이사회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연장에 A.A.를 위해 50만 달러가 마련된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하늘만 알 것이다. 만일 외부의 기부금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끊지 않는다면, 어느 날인가 본부는 부자가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론에 약간 던지시 비추기만 해도, 우리는 거대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1만 달러는 많은 것은 아니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첫 잔과 같이, 일단 받으면, 비극적인 연쇄반응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피리 부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곡명을 지정하듯이, 만일 A.A. 본부가 외부의 기부금을 받으면, 그 위원회는 A.A. 전체가 원하는 것을 참고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려고 유혹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책임감에서 해방되어,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할 것이다. “본부는 부자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풍부한 재정의 압력은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계획을 마련할 유혹을 받을 것이고, A.A.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A.A.를 이탈시킬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

는 순간 우리 단체의 신뢰는 흔들릴 것이다. 위원회는 고립되고, 그들은 A.A.로부터도 대중으로부터도 심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찬성과 반대의 가능성들이었다.

그 다음 위원회는 A.A. 역사의 빛나는 한 장을 쓰게 된 것이다. 원칙상 A.A.는 항상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선언했다. 빠듯한 운영비와 조심성 있는 예비금이 이제부터 본부의 재정 정책이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 1만 달러를 공식적으로 사절했고 미래의 모든 유사한 기부금을 그와 같이 사절할 공식적이고도 빈틈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 순간 우리는 단체로서의 빈곤의 원칙이 굳건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A.A.의 전통에 새겨진 것을 믿는다.

이런 사실들이 인쇄되었을 때, 대단한 반응이 있었다. 자선기금을 위한 끝없는 운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A.A.는 이상하고도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저기서 찬성하는 사설들이 A.A.의 성실성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는 파도의 물결이 일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책임 있게 되었고, 재정적 자립을 A.A.의 전통으로 만들어, A.A.는 이 시대가 잊고 있었던 이상을 일깨웠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 제 8 전통

“A.A.는 항상 비직업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는 전임 직원을 둘 수 있다.”

A. A.는 결코 직업적인 부류를 두지 않을 것이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옛말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직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돈과 영적인 것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전문가에 의해, 그것이 의료계건 종교계건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거의 전무했었다.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전문 직업을 비난하지 않으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소용이 없다는 명료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제12단계의 일을 전문 직업화하려고 노력할 때 마다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실패했다.

알코올 중독자는 돈을 받고 제12단계 일을 하는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우리는 시초부터,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와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일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겠다는 열망에 기초를 두어야만 오로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A.A.가 금전(金錢)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모임에서건 혹은 단 한 명의 초심자에게이건, 그것은 극심한 해를 그에게 끼칠 수 있다. 돈에 대한 동기는 말하는 사람 그 자신과 그가 도우려는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서 다만 매우 적은 숫자의 A.A. 사람들이 돈을 받고 제12단계 일을 했었다.

이러한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 직업주의만큼 A.A. 안에서 더 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없었다. 마루를 닦는 관리

인들, 햄버거를 굽는 요리사들, 사무실의 비서들, 책을 쓰는 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공격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 까닭은 그 비판자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A.A.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노동이 제12단계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 비판자들은 아무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려는, 감사(感謝)도 하지 않는 일들을 자주 하고 있는 우리의 일꾼들을 A.A.의 전문 직업이라고 공격했다. A.A.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요양소나 공장 운영을 시작했을 때, 몇 사람이 그 사업장의 알코올 문제를 맡기 위해 인사 담당관으로 고용되었을 때, 어떤 이들이 알코올 중독 병동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알코올 교육의 분야에 들어갔을 때 더 크고 격렬한 소란이 일어났다. 이런 모든 예에서나 다른 데서 A.A.의 지식과 경험이 돈을 위해 팔렸다고 주장했고, 그러므로 이들도 또한 직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드디어 전문적 직업과 비직업적인 것을 구별하는 분명한 선이 보였다. 제12단계의 일이 돈을 위해 팔릴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동의했을 때, 우리는 현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가 A.A.는 봉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거나 혹은 어떤 A.A. 사람도 우리들의 지식을 다른 분야에 전파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상의를 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오늘날 경험을 통해 거의 없어졌다.

클럽의 청소부나 요리사의 경우를 보자. 만일 클럽이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있을만하고 쾌적해야만 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을 써보았지만, 그들은 일주일 내내 마루를 닦고 커피를 내리는 일에 곧 싫증을 냈다. 그들은 그저 나타나지를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어있는 클럽은 전화에

응답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은 여분의 열쇠를 갖고 있는 술 취한 술꾼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장소를 24시간 돌보아야만 했다. 만일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고용한다면, 그는 다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 아닌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만큼을 받는 것이다. 그 일은 제12단계 일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제12단계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뿐이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봉사일 뿐이다.

전임(專任)의 직원 없이는 A.A.는 그 자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본부와 연합 단체 사무실에 알코올 중독자 아닌 사람들을 비서로 고용할 수 없었다. 우리는 A.A.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고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고용하는 순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 두려움에 찬 사람들은 “전문 직업”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한때는 이 충직한 봉사자들의 처지는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A.A.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A.A. 모임에서 말하도록 초청도 되지 않았다. 때때로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을 피했다. 비록 자선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조차 그들을 “하나의 필요악(必要惡)”이라고 표현했다. 위원회는 이런 태도들을 그들의 봉급을 낮추는 데 이용했다. 만일 그들이 A.A.를 위해 매우 짝 값으로 일한다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다. 이런 관념들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 후 만일 열심히 일하는 비서가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한탄하는 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병원 수속을 해 주고, 10여명의 초심자들에게 후원자를 정해 주며,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나 그녀가 지나치게 많이 급여를 받고 있다고 불평하는 성난 알코올 중독자들을 사교적으로 부드럽게 대해 준다면, 그러한 사람은 직업적 A.A.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녀는 제12단계를 직업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녀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 위원회 사람들이나 보조자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들이 밤낮으로 계속해 이런 일을 해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부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매월 8톤의 책과 인쇄물이 저절로 포장되어 세계 도처에 배달되는 것은 아니다. 외로이 홀로 있는 에스키모로부터 수천에 달하는 그룹의 성장기 고통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A.A.의 문제에 대한 몇 바구니의 편지들은 무엇인가 **이는** 사람에게 의해 답변이 되어야만 한다. 바깥세상과 올바른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A.A.의 생명선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A.A. 직원을 고용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적절히 지불하고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다. 그들은 전문 직업으로서의 비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직업적인 A.A. 멤버는 아니다.

아마도 모든 A.A. 멤버 마음속에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돈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런 일에 대한 추측조차도 심한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그 태풍은 정의롭건 불의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심각하게 파괴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항상 비이성적이다.

A.A. 사람이 알코올 문제를 처리하려는 외부 기관에서의 일자리를 용감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감정적 격동에 의해 상처를 받는 이도 없을 것이다. 한 대학교는 A.A. 멤버가 알코올에 대해 일반인에게 교육하기를 원했다. 한 회사는 그

문제를 잘 아는 인사 담당관을 원했다. 어떤 주(州)의 술꾼을 위한 농장은 술꾼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리인을 원했다. 한 시(市)는 알코올이 가족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경험 있는 사회사업가를 원했다. 한 주(州)의 알코올 위원회는 급료를 받는 직업적 연구원을 원했다. 이런 것들은 개인 자격으로 A.A. 멤버가 자리를 채우도록 요청받는 몇 개의 자리에 불과했다. 때때로 A.A. 멤버들은 몹시 망쳐진 술고래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이나 휴양소를 사기도 했다. 문제는 ‘그런 활동들이 - 현재도 종종 있는 일이지만 - A.A.의 전통 아래서 전문 직업으로 낙인찍혀야 하는가?’인 것이다.

그 답은 “아니요. 그런 전임직을 선택한 멤버들은 A.A.의 제 12단계를 직업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했다. 처음에 우리는 관계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었다. 과거에는 한 A.A. 멤버가 그런 기관에 고용되는 순간, 그는 즉각 A.A. 이름을 선전이나 돈을 모금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술꾼 농장들, 교육 기관, 주(州) 의회 그리고 위원회들이 A.A. 멤버가 자기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용된 A.A.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기관의 이익을 위해 무모하게 익명을 깨트렸다. 이런 이유로 몇몇의 매우 좋은 사업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A.A. 그룹으로부터의 부당한 비판으로 고통받았다. 자주 이런 맹공은 “직업적이다! 저 친구는 A.A.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A.A.의 제12단계를 행하도록 고용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의 위반은 전혀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익명을 깨트리는 것이었다. A.A.의 유일

한 목적이 훼손됐고, A.A.의 이름이 잘못 사용된 것이다.

이제 우리 단체 안에서 거의 어떤 A.A. 사람도 공개적으로  
의명을 깨지 않으며, 이런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다. A.A. 사람들이 이런 보다 넓은 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을 막을 권리도 필요도 우리  
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금지시킨  
다면, 그것은 실제로 반사회적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A.A.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최고의 비밀로 지키는 폐쇄적인 모임이  
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한 A.A. 멤버가 하나의 시  
민으로서, 보다 훌륭한 연구원, 교육가, 인사 담당관이 된다  
면, 왜 마다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득을 보고 우리는 잃는 것  
이 없다. A.A.와 관련되었던 몇몇의 프로젝트는 잘못 생각했  
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관련된 원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이 A.A.가 비직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멋진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연인 것이다. 우리의 제12  
단계는 결코 돈으로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를 위  
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용에 상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 제 9 전통

“A.A.는 결코 조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봉사부나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으며, 그들은 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제 9전통이 처음으로 쓰여졌을 때, “A.A.는 가능한 최소한의 조직을 요한다.”고 쓰여졌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서, 우리는 그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바꿨다. 오늘 우리는 A.A.는 - 전체로서 결코 조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모순인 듯 보이지만, 우리는 조직화된 특수한 봉사부와 위원회를 만들도록 추진했다. 그렇다면 그 자체를 위해 봉사 조직을 만들고 또 만들 수 있는 비(非)조직화된 운동기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조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하고 물었다.

자, 한번 살펴보자. 국가나 교회, 정당, 혹은 비록 자선단체라도 회원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어떤 단체일지라도 그 회원을 징계할 수 없고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단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단체가 그 회원의 일부에게 권한을 주어서 나머지 회원을 제재하고 또 처벌하거나 규칙 불이행자를 처벌하는 자격 박탈권을 주지 않는가? 그러므로 모든 국가나, 실제로 모든 모양의 단체도 인간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의 형태이어야 한다. 지도하고 지배하는 힘이 모든 단체의 기본 요소다.

그러나 A.A.는 예외다. A.A.는 이런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본부 위원회나 본부 이사회 혹은 그룹의 아주 작은 위원회라도 단 한 명의 멤버에게도 단 한 건의 지시를 내릴 수 없고, 그런 것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번 그것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 결과는 항상 형편없는 실패뿐이었다. 그룹들이 멤버들을 추방하려고 해 보았지만, 그 추방된 사람들은 모임에 돌아와 앉아서 “이 모임은 우리에게서 곧 생명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A.A. 사람들에게 만성적 재발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일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내가 제12단계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내 일이다. 당신이 무엇인데 판단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A.A. 사람이 경험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충고나 제안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다만 그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혜로 가득 찬 고참 A.A. 멤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 그룹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보다 인기를 잃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A.A.의 좋은 점을 지키기 위해 걱정하는 눈으로 보는” 그 고참자나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은 가장 완고한 저항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웃음거리가 된다.

당신들은 뉴욕의 A.A 본부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임원이나 직원들은 똑같이 제안을 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고 그것도 매우 부드럽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쓰는 편지의 반수가 량에 삽입할 몇 개의 문장을 만들어 놓아야만 했다. “물론, 당신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완전한 자유를 갖

고 있습니다. 그러나 A.A.에서의 대부분의 경험은 ...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중앙정부라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명령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쯤, 교회 사람들이 “저들은 불복종을 하나의 미덕으로 삼는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된다. 그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반항적인 불량자! 그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들은 미쳤음에 틀림없어!”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A.A. 안에 있는 독특한 어떤 것을 간과하고 있다. A.A.의 각 멤버가 우리의 제안된 회복의 12단계들을 그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의 확실하게 자신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그가 술에 취하고 사망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한 벌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원칙들에 대한 불복종의 결과일 뿐이다.

그와 똑같은 엄격한 위험이 그룹 그 자체에도 적용된다. A.A.의 12전통들에 대한 같은 정도의 준수(遵守)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룹도 또한 지리멸렬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A.A.의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중국에는 그와 같은 복종이 가져다주는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원칙들에 복종하는 것이다. 커다란 고통과 위대한 사랑이 A.A.의 훈육관이며, 우리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를 다스릴 이사회를 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확실해졌으나, 반면에 우리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봉사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것은 기득권의 권위주의 정신과 봉사 정신의 차이인 것이며, 그 두 가지 개념은 때때로 두 극단으로 나뉜다. 이 봉사의 정신 아래서 우리는 A.A.의 비공

식적 교체 위원회, 그 지역의 그룹 간 연합회 그리고 A.A. 전체로서의 통합 봉사회(G.S.C.)를 선출하는 것이다.

비록 본부조차도 한때는 독립체였으나 오늘날에는 우리 단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위원들은 우리의 전 세계적 봉사를 위한 관리인이며 촉진시키는 사람들인 것이다.

A.A. 각 멤버의 목적이 개인적으로 술 끊은 맑은 정신인 것과 똑같이 우리 봉사의 목적도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맑은 정신을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다. 만일 아무도 그룹의 잡다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전화벨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편지에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A.A.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길은 끊어질 것이다.

A.A.는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A.A.는 엄청난 부(富)와 특권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혹하는 권력의 위험을 피해야만 한다. 처음 보기에는 제9전통은 순수하게 실질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 운용에서 보면, 그것은 조직이 없는 단체임을 밝혀낸다. 즉 오로지 봉사 정신에 의해서만 그 생명을 이어가는, 진정한 동지애인 것이다.

## 제 10 전통

“A.A.는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A.A.의 이름이 공론에 들먹여져서는 안 된다.”

A. A.가 시작된 이후 A.A.는 한 번도 어떤 중요한 문제로 인해 분열된 적이 없다. 또한 우리 단체는 전투태세를 갖춘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에도 한쪽 편을 든 적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미덕이 아니었다. 한 오래된 고참자가 “실제로 나는 A.A. 멤버들 중에서 종교적, 정치적 혹은 개혁적인 열띤 논쟁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사적으로 논쟁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결코 공적으로도 논쟁하지 않을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라고 근래에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난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깊은 본능에 의한 것처럼, 우리 A.A.는 처음부터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가치 있는 논쟁이라도, 공공연히 논쟁에서 어느 한편을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투쟁하는 어떤 국가나 그룹도, 그들이 논쟁에 빠지도록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산산이 조각난 것을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것들은 또한 그들의 단순한 독선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구체적 열거 사항을 영원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라졌다. 우리 이 시대에도 종교적 혹은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전쟁 속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인간들이 어떻게 지배되어야 하고, 자연과 노동의 생산품이 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려는 데서, 대과피의 가능성 속에 우



리는 살고 있다. 그것이 A.A.가 탄생한 영적 상황이었고, 그리고 신(神)의 은총에 의해, 어떻게 변창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다른 누구나 어떤 단체와도 싸우기를 주저하는 이것을 마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미덕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자. 또한 그것은 이제 세상의 시민으로 회복된 A.A.의 멤버들이, 그들 개인적 책임 즉 그들이 그들 시대의 문제들을 바로 잡도록 행동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A.A. 전체로서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은 매우 다른 문제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론에 빠지면, 우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론에 빠져들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어떤 문제에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A.A.의 생존과 전파(傳播)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우리에게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존의 방식을 모든 힘을 다해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쩌면, 이것은 마치 A.A. 안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거대하고 행복한 가족이나 된 듯이 들릴지 모른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 인간인 우리는 작은 일로 승강이질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 상태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최소한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소한 일들로 다투는 하나의 단체처럼 보였다. 회사 경비로 10만 달러의 지출을 결의한 회사 중역이 A.A.의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해서는 필요한 25달러어치의 우표 값 지출에 대해 노발대발한다. 어떤 이들이 한 그룹을 운영하려는 기도에 못마땅해서, 그 멤버의 반이 분노해서, 그들의 취향에 따라 다른 그룹을 형성해 뛰쳐나간다. 고참자들은, 일시적으로 바리새인으로 변해서 화를 낸다. 애매 모호한 동기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향해 독한 공격

을 하기도 한다. 그들의 이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단치 않은 다름은 A.A.에 조그마한 해도 미치지 못했다. 그것들은 단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거의 항상 A.A.를 더욱 효과 있게 만들려는 길, 즉 어떻게 하면, 최다(最多)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최선(最善)의 것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길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중요시하자.

약 100년 전에 발티모어 시(市)에서 시작된 알코올 중독자들의 운동이었던, 워싱턴이언 회(會)는 거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었다. 처음, 그 단체는 전적으로 상호간에 서로 도우려는 알코올 중독자들로만 구성되었다. 초기 멤버들은 그들이 이 유일한 목적에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예견했다. 많은 면에서, 그 워싱턴이언들은 오늘의 A.A.와 닮았었다. 그 회원은 10만 명 선을 넘었다. 만일 그들이 그들 자신들로만 남아 있었고, 그들의 단 한 가지 목적에만 매달렸었다면, 그들은 나머지 해결책을 발견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대신 워싱턴이언들은 알코올 중독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정치가들과 개혁가들이 그 단체를 그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했었다. 예를 들자면 노예제도의 폐지는 그 당시 대단한 정치적 문제였다. 곧, 워싱턴이언 대변자들은 격렬하고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의 한쪽 편을 들었다. 아마도 이 단체는 노예 폐지 논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것이 미국의 음주 습관을 개혁하려고 결정하는 순간 그같이 살아남을 기회는 사라졌다. 그들이 음주 운동의 개혁가들이 되었을 때, 수년 내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우려는 그들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 워싱턴이언들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A.A.는 간과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운동의 파멸을 검토하면서, 초기 A.A. 멤버들

은 우리 단체를 공론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결심을 했다. 그렇게 제10전통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A.A.는 외부의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A.A.의 이름이 공론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제 11 전통

“A.A.의 홍보 원칙은 요란한 선전보다  
A.A.의 본래 매력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익명을 지켜야 한다.”

A. A.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A.A.는 지금과 같이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 세계를 통해, 모든 종류의 기사에 있어 엄청나고도 호의적인 호평이 알코올 중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단체에 들어오도록 한 그 중요한 방법이었다. A.A.의 사무실이나 클럽, 가정에서 전화는 계속 울렸다. 한 음성은 “저는 신문에서 ...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음성은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우리는 영화에서 ...을 보았습니다.” 혹은 “우리는 T.V.에서 A.A.에 관한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하고 말한다. A.A. 멤버의 반 정도는 이와 같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문의하는 음성들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나 가족들만이 아니다. 의사들은 A.A.에 대한 의료 전문지를 읽고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한다. 또한 성직자들은 그들 교회의 정기 간행물에서 기사를 읽고서 문의를 한다. 고용주들은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어 그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 자신의 회사에서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A.A.를 위한 가능한 최선의 홍보 원칙을 발전시킬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칙이 어떠한가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통상적인 선

전의 방법에 많은 면에서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요란한 선전보다는 오히려 **매력**의 원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아이디어 - 매력과 선전 - 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도록 하자. 정치적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해 그 지도자의 좋은 점을 선전한다. 훌륭한 자선단체는 모금을 원하고, 즉시 그 인쇄된 편지지 위에는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저명인사의 이름이 오른다. 이 세상 대부분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생활은 잘 선전된 지도력에 의존하고 있다. 명분과 이념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인간의 깊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A.A.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대중의 눈총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 특히 우리에게서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성격상, 우리 모두는 무책임한 선전가였고, 거의 이런 선전가들로 구성된 단체의 장래는 불안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폭발적인 요인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자제함이 가져다준 것은 놀라운 것이었다. A.A.의 최고의 홍보 요원들이 모든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호의적인 A.A.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 분명 A.A.는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이 홍보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아이디어에 의존했다. 정확하게도 그렇게 되었고,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졌다. 노련한 취재기자, 훈련 받은 비평가들인 그들은 A.A.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는 훌륭한 이야깃거리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 거의 모든 뉴스 미디어에서 신문사의 남녀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초기에는 언론들이 모든 개인적 홍보에 대한 우리의 거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익명에 대한 우리의 끈질긴 주장에 정말로 당황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뜻을 이해했다. 여기 세상에서 드문 일이 있다 - 그 단체의 원칙과 하는 일은 홍보하기를 원하지만, 개개 멤버를 홍보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런 태도를 매우 기뻐했다. 그 이후, 이 친구들은 가장 열성적인 멤버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A.A.에 대해 보도했다.

실제로 한때는 미국 언론이 우리 A.A. 멤버들보다도 A.A.의 익명에 대해 더욱 가치를 부여한 적도 있었다. 어떤 시점에, 우리 단체의 약 100명 정도가 공개적으로 익명을 깨트리고 있었다. 전적으로 좋은 의도로서, 이 사람들은 익명의 원칙은 A.A.의 개척기애나 적절했던 것으로서 이제는 낡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만일 A.A.가 현대적 홍보 매체에 나선다면, 그것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넓게 퍼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A.A.가 그 지역으로나 혹은 국가적, 국제적으로 유명한 많은 인물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기꺼이 하려고 한다면 - 많은 이들이 그러했지만 - 어째서 그들이 회원임을 홍보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와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은 그럴듯한 논쟁이었으나 언론계의 우리 친구들은 다행히도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A.A. 본부는 북 미주(北 美州)의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 우리의 홍보 원칙은 요란한 선전보다는 매력에 기초를 둔다는 것과, A.A.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로서 개인의 익명을 강조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그때 이후, 편집인들이나 기사를 고쳐 쓰는 기자들이 A.A. 기사로부터 이름과 사진을 계속 삭제했고, 자주 그들은 야망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A.A.의 익명 원칙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좋은 기사를 안 쓰기도 했다. 그들의 협동

의 힘은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오직 매우 적은 수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공공연히 익명을 깨고 있었다.

이것이 간략하지만 A.A.의 제11전통이 이루어진 과정이다. 어떤 든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어떤 건전한 홍보 원칙보다 더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다. 이 전통은 A.A. 안에서는 개인적 야망이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 안에 각 멤버는 우리 단체를 지키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 제 12 전통

“익명은 우리의 모든 전통의 영적 기본이며,  
이는 각 개인보다 항상 A.A.의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익**명의 영적 본질은 희생이다. A.A.의 12전통들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개인적 욕망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정신 - 익명에 의해 잘 상징되어진 - 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이 희생을 하겠다는 A.A.의 이미 증명된 용의이며, 이 희생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익명이 신뢰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초기 우리의 두려움의 소산이었다. 처음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름 없는 그룹은 비밀 단체였다. 새로 오려는 알코올 중독자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몇몇의 소수 친구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찾을 수 있었다. 비록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공개된다는 작은 기미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비록 과거의 술꾼이었지만, 우리는 아직 대중의 불신과 경멸로부터 숨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1939년 빅북이 출간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불렀다. 그 서문(序文)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글을 실었다. “우리가 익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책으로 발행됨에 따라 문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 주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개 사업가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많은 수의 새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익명을 깨고 널리 알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다.



A.A.의 그룹이 증가하면서 익명의 문제도 따라서 커졌다. 형제 알코올 중독자의 이 놀라운 회복에 감격한 나머지, 때때로 그의 후원자에게만 알려져야 할 일신상의 비밀스럽고 또 쓰라린 면을 우리가 토론하기도 했다. 그러면 바로 이 괴로움을 당한 희생자는 그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A.A.의 범위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익명의 약속에 대한 신뢰 상실은 심각했다. 그것은 자주 우리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가 원한다면, A.A. 멤버의 이름 - 그의 이야기기도 함께 - 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익명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한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이었다.

특징적인 무절제로, 우리의 어떤 초심자들은 비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A.A.를 소리쳐 외치려고 원했고, 또 그렇게 했다. 이제 겨우 술에서 깨어난 알코올 중독자들이 순진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녔다. 다른 이들은 화성기와 카메라 앞에 서느라고 바빴다. 때때로 그들은 비참할 정도로 취해서 자신들의 그룹을 크게 망쳤다. 그들은 A.A. 멤버에서 A.A.의 자랑꾼으로 변해 버렸다.

이 대조적인 현상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했다. “A.A. 멤버는 어디까지 익명을 지켜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정면으로 우리 앞에 다가 왔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비밀단체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으나, 그와 똑같이 우리가 곡예단처럼 떠버리가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이 두 개의 극단에서 안전한 길을 모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개, 보통 초심자들은 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의 가족들이 즉각 알기를 원했다. 그는 또한 그를 도우려고 애썼던 사람들 - 그의 의사, 그의 성직자, 가까운 친구들 - 에게 말하기를 원했다. 그가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는 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의 고

용주나 사업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느낀다. 도움이 될 만한 기회가 오면, 그는 그가 거의 누구에게나 A.A.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조용한 노출은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오명의 두려움을 벗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주위에 A.A.의 존재를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대화 때문에 많은 남녀 초심자들이 A.A.에 왔다. 비록 엄격한 의미에서 익명은 아니지만, 그런 대화는 충분히 그 익명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두 전달 방식에는 지나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우리의 활동은 홍보될 필요가 있었다. A.A. 그룹은 가능한 빨리 절망하고 있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도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많은 그룹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대중에게 공개된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해서, 일반 시민들이 A.A.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임들에 대한 반응은 따뜻하고 동정적이었다. 곧, 그룹들은 A.A. 연사가 시민 단체나 교회 그룹 그리고 의료 단체에 나오도록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연설에서 익명이 지켜지고, 참석한 기자들에게 이름이나 사진의 사용을 주의시키는 한 그 결과는 좋았다.

아슬아슬 했던 중대한 대중 홍보에의 우리의 첫 탈선이 왔다. 우리에게 대한 클리브랜드의 **플레이인 딜러** 기사가 그 도시의 멤버를 몇 명에서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으로 늘렸다. A.A.를 위한 록펠러 씨의 만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는 일년 사이에 우리 멤버를 두 배로 늘렸다. 잭 알렉산더의 그 유명한 **셋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기사는 A.A.를 전국적 기구로 만들어 버렸다. 이와 같은 찬사들은 좀 더 많은 인정을 불러올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다른 신문과 잡지들이 A.A.

이야기를 다루기를 원했다. 영화사에서는 우리를 촬영하기를 원했다. 라디오와 끝으로 텔레비전은 우리가 방송국에 나오기를 요청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최고의 대중의 인정의 물결이 조류처럼 밀려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달려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멤버가 자칭 A.A.를 대표하는 구세주인양 스스로 자신을 대중 앞에 내세우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우리 안에 있는 선동 본능이 우리의 파멸이 될 것이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한다면, 그 상처는 대책이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 - 신문, 라디오,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 - 에서 100%의 익명이 그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여기서 예외 없이 원칙이 개인보다는 우선되어야만 한다.

이런 경험들이 익명이야말로 효과 있는 참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오늘날 어디에서든지 A.A.의 삶을 강조하는 충만한 영적 특성이다. 익명의 정신에 감동받아서, 우리는 동료 알코올 중독자들 사이에서나 대중 앞에서 A.A. 멤버로서의 개인적 영예에 대한 자연적 본능을 포기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매우 인간적인 열망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리 전 단체를 감싸는 보호막을 짜는데 참여하는 것이며 그 보호막 아래서 우리는 단합하여 성장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익명으로 표현된 겸손은 A.A.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호자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 12 전통 (긴 형식)

우리 A.A.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가르쳐 주었다.

1. A.A.의 각 멤버는 단지 커다란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A.A.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대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 복리가 먼저이며, 개인의 복리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2. 우리의 그룹 목적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이다. — 이는 우리 그룹의 양심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신(神)이시다.
3. 우리의 멤버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을 원하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A.A.의 멤버가 되기 위한 자격은 돈이나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단주를 위해 둘이나 셋이 모였다면, A.A.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룹이 되기 위해 어떤 가입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4. 각 A.A. 그룹은 자신들의 일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다른 어떤 권위보다 스스로의 양심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계획이 인근 그룹의 복리와 관련이 있을 때는, 그 그룹들과 상의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그룹이나 지역 위원회 또는 개인이라도 A.A.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문제

는 총봉사본부(General Service Board)의 이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공동 복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다.

5. 각 A.A. 그룹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오직 하나의 근본 목적을 갖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6. 돈이나 재산 그리고 권위는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목적에서 우리를 쉽게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A.를 위해 실제로 쓰이는 상당량의 재산은 별도로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영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이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A.A. 그룹은 결코 사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A.A.를 위한 2차적인 보조기관 중 많은 재정이나 행정이 필요한 클럽이나 병원 등은 한계가 뚜렷해야 하고, 그런 만큼 별개가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룹은 구애받을 것 없이 그들을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기관들의 관리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클럽의 경우에는 A.A. 관리자들이 일반적으로 더 좋아하지만, 병원의 경우에는 회복을 위한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A.A.와 분리되어 의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A.A.는 어떤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협력은 실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후나 보증의 선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A.A. 그룹 자체는 어떤 누구와도 결속하지 않는다.
7. A.A. 그룹들은 멤버 스스로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완전히 자립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룹이나 클럽, 병원 또는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A.A.의 이름을 사용해 어떤 기금을 대중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과 어떤 출

처에서 커다란 증여를 받는 것이나 제약을 수반하는 기부금을 받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런 이상들을 각 그룹이 곧바로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중한 자금 비축을 넘어서, 공인된 A.A.의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해 기금을 축적하는 것 또한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재산, 돈, 권위에 대해 헛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분명 우리의 영적 전승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8. A.A.는 영구히 비직업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직업적이라는 것을 돈을 받거나 고용되어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대신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런 특별한 서비스는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12단계의 일은 보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9. 각 A.A. 그룹은 가능한 가장 작은 조직을 필요로 한다. 지도자는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가장 좋다. 작은 그룹들은 서기를 선출할 수 있으며, 커다란 그룹은 위원직을 돌아가며 맡고, 종종 전임서기를 고용할 수 있다. 총봉사본부의 이사들은 사실상 A.A. 총봉사위원회이다. 그들은 우리 A.A. 전 통의 지킴이이며, 뉴욕의 A.A. 총봉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유지함으로써 자발적인 A.A. 기부금을 관리한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모든 홍보 분야를 관장하고, A.A.의 가장 중요한 소식지인 <포도나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임을 맡고 있다. 참된 A.A.의 지도자들은 믿을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험 많은 심부름꾼이므로 모든 대표들은 봉사 정신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위로부터 어

편 실질적인 권한도 가져서는 안 되며, 다스려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존경은 그들 능력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10. A.A. 그룹이나 멤버들은 정치, 알코올 문제, 또는 종교의 종파와 같은 A.A. 밖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도 A.A.의 이름을 끌어들여 말해서는 안 된다. A.A. 그룹은 어느 누구와도 맞서서는 안 되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역시 표현해서도 안 된다.
11. 우리와 대중의 관계는 개인의 익명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는 A.A.가 대대적인 광고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A. 멤버로서 우리의 이름과 모습이 방송되거나 영상화되거나 공개적으로 인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중 홍보 원칙은 요란한 선전보다는 매력에 달려 있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자화자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친구들이 우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12. 결론적으로 우리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익명의 원칙이 무한한 영적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것은 개인보다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게 한다. 진정으로 겸손할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은 위대한 축복 때문에 우리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힘께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